망향의 30년

민족분단의 비극속에서

남한땅에 30년

崔德新著

統一評論社



■著者소개

1914년 9 월17일 평안북도義州生

1936년 中国南京·陸軍中央軍官学校卒、 이후 항일전에 참가함

1946년 5 월 帰国

1947년~1956년 한국군에 복무 1956년육군중장으로 퇴역

1956년~1961년 주월남대사

1961년~1963년 외무부장관

1963년~1967년 주서독대사

1967년~1976년 천도교교령、 국토통일원고문등° 역임

현 재 배달민족회의회장

주된 저서에 『民族과 나』(본사간) 등이 있음

남한땅에 30년

민족분단의 비극속에서

崔 德 新

統一評論社

또다시 붓을 들면서

이 사람이 졸저(拙著)《민족과 나》(통일의 한길에서)를 내놓은지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 독자 여러분들의 반향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회고하건대 8·15후 한국의 정치사는 그 어떤 독재권력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진리로서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독재정권의 영고성쇠(栄枯盛衰)가 어지럽게 교차되었으며 그 때마다 권력주변에 매달려 떠돌던 정상배들도 유평(流萍)처럼 끊임없이 부침(浮沈)했다.

그런 악취풍기는 탁류 속에서 나만큼 검질긴 〈무운(武運)〉과 〈정치수복(政治寿福)〉을 누린 사람도 아마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비록 권력의 중추에는 끼우지 못했을 망정 그만하면 그래도 권력주변을 맴도는 고위층에서 고관대작(高官大爵)을 꽤 누린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런 과거를 자랑하려고 《민족과 나》(통일의 한길에서)를 세상에 내놓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인생말년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된 민족적 삶의 이치를 독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였다.

하기에 이 사람은 독자 여러분들의 그런 반향을 이 사람이 찾은 길에 대한 공감의 표시로 받아 들이면서 오직 보람있는 내일만을 내다보고 천도교리 따라 〈성(誠)〉 〈경(敬)〉 〈신(信)〉을 더욱 철저히 생활지침으로 삼을 것을 마음다져 왔다.

그러던 터에 지난 설 명절에 세배(歲拝)차 최정렬(崔貞烈)여사댁에 들렸을 때 존경하는 여사께서 역대 독재정권에서 고위직을 담당해왔으니 참회할 것은 반성하고 고발할 것은 발가 놓아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책자를 써보라고 간곡히 권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이에 크게 고무되어 또다시 붓을 들기로 했다.

이 사람이 또다시 붓을 들게 된 다른 하나의 계기는 역사적인 8·15해

방 40돌을 맞으면서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느끼게 된 깊은 감회와 충격이다. 그 지긋지긋하던 일제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난지 40년이 되건만 우리 민족은 아직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온 겨레가 분단민족으로서 막심한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날 반공의 늪에 빠져이 사람과 같이 민족통일을 외면한 사람들의 죄책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런 시각에서 이 사람은 지난날의 나와 같은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동포형제들에게 하루 빨리 그 사로(邪路)에서 빠져나와 민족의 정도(正道)에 들어서도록 좀 더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

이런 일들이 허물 많은 이 사람의 어젯날을 재조명(再照明)하게 되며 우리 겨레 치부(恥部)를 드러내놓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적 사명감마저 느끼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졸저 《민족과 나》(통일의 한길에서)의 자매편 격으로 또 이 책자를 펴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 책자에서 지난날 이 사람의 인식활동에서 오랫동안 작용한 착오가 무엇이었던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며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민족정기를 흐리게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 범속한 인간이 제나름의 애국적 민족적 포부를 안고 추구해온 것이 도착(倒錯)된 애국주의, 눈먼 민족주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외세에 의해 부식된 구조 속에서 외세에 아부하는 자들이 권좌에 들어앉아 국민의 생사여탈을 자행하는 풍토에서는 각양각색의 가치관이 도착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제 필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지 않을 때 이것이 잘못이다〉(見過而不改是謂過也)라고 한 선현(先賢)의 말씀에 기대어 담담히 책을 쓰려 한다.

때(垢)많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참된 민족적 삶의 길에 나선 이 사람을 계속 편달하여 주기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삼가 바라는 바이다.

1985년 8월

최 덕 신

남한땅에 30년——민족분단의 비극속에서 / 차례

제 1 장 과연 해방은 왔는가



과연 해방은 왔는가?

8·15는 일본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가 독립되었다는 감격을 우리 모든 한국인에게 안겨준 역사적인 날이었다.

해외에서 8·15를 맞이한 나에게는 이날의 감격이 남달리 더 컸을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망국노가 아니다. 당당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되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희망과 포부로 하여 나의 가슴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었으며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듯한 힘이 온 몸에 용솟음치는 것 같았다.

나는 해방된 조국의 모습과 나의 운명에 대해서 감미로운 명상에 잠기었다. 독립을 이룩한 조국에는 물론 민주주의공화제가 실시될 것이다.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서 각 방면에 걸쳐 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요구될 것인가!

나는 한시바삐 귀국하고 싶어 조바심이 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위 38도선을 계선으로 하여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각각 진주했다고 하며 남쪽에서는 일본군의 항복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다고도 했다.

나는 북쪽에 진주한 소련군에 대해서는 어쩐지 소원감(疎遠感)이 드는 반면에 남쪽에 진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인도 버마 국경 일대에서 일본군을 반대하여 함께 싸운 일도 있어서 그런지 친근감이 갔다. 더구나 부친이 이미 남쪽으로 귀국한 터인지라 나도 자연히 귀국의 길을 남쪽으로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귀국해서 보니 조국의 현실은 나의 기대와는 너무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나를 맞아준 것은 자주독립을 이룩한 조국이 아니었다. 여전히 이방인(異邦人)들이 행세하고 있었다. 조국의 이 현실 앞에서 나는 어리둥절했다. 〈과연 이 땅에 해방이 오기는 한 것인가?〉고 몇번이고 속으로 자신에게 반문했던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좌절감에 빠져 고뇌와 번민에 모대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오랜 기간 군인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조성된 새 환경과 여건에 자신을 적응시켜 다시 군직에 들어갔다.

내가 택한 이 길이 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여건에서 우리 민족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과연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나는 심각히 파헤쳐 보지 못했다. 다만 나는 그 때 해방된 조국 땅에 와서 오랜 직업군인으로서 무위도식할 수야 없지 않는가 하는 알쏭달쏭한 민족주의 명분을 내세우고 군인생활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행로를 규정하는 계기로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제 1 절 환멸

외면하는 부산항구

대단히 청명한 날씨였다. 그야말로 화창한 봄날이었다. 파도는 잔잔하게 설레이고 있었다. 푸른 하늘 높이 떠 있는 흰 구름처럼 나의 마음도 뭉게뭉게 가볍게 한없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조국 땅이 자리잡고 있을상 싶은 방향으로 수평선 멀리 아득한 공간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깊은 명상에 빨려들어 갔다.

꿈결에도 잊을 수 없던 조국! 얼마나 그립던 조국이냐!

부산에 상륙하면 3,000여명 대오로 시가행진을 하자. 이어서 서울로 곧장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환국개선행진도 하자. 지축을 흔들며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대열 선두에는 청년장교 최덕신이 가슴을 펴고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나아갈 것이다. 나는 선두에 설 충분한 자격이 있다.

3,000여명의 이 남녀 동포들로 말하면 일제에게 징병, 학도병, 노무대, 〈정신대〉 등의 명색으로 강제 연행되어 중국대륙에서 인간이하의 모진 학대에 시달리면서 사선(死線)을 헤매던 사람들로서 일본군이 중국군에 항복하고 무장해제 당한 후 그들과 함께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것을 중국 정규군 장교인 나의 활동으로 포로신분을 벗은 나의 동포들이다. 광동성 일대와 해남도(海南島) 등지에서 집결한 이들은 〈한적사병집중훈련총대〉(韓籍士兵集中訓練総隊)로 조직 편성되어 들어온 것이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의례 그렇듯이 귀국하는 배 위에서는 고향자랑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으며 귀국후의 계획과 포부를 교환하기도 했다. 공통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연고를 깊이 간직하기 위해 앞

으로도 연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모두 나의 귓전을 간지럽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환상은 다시 나래친다.

군중의 박수와 환호성이 서울 장안을 뒤흔든다, 군중의 시선이 대열 선두에서 행진하는 나에게로 집중된다, 나는 황홀감에 도취한다, 두 어깨는 더욱 으쓱해진다.

그때 누가 나를 찾는 소리에 문득 환각에서 깨어났다. 그 동안 광동(広東)부터 의무반을 담당해온 박씨와 문씨였다. 그 두분은 다 일본군대에서 의무반에 속해서 역시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나온 뒤 <집중훈련총대>에 와서도 계속 전염병 예방으로부터 각종 질병치료 등 의무반 일을 담당하고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어서 결심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일행 가운데서 발생한 호열자(코레라) 환자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 일행 가운데서 호열자환자가 발생한 것은 중국 광동에 있을 때부터였는데 의료설비와 약품 위생환경이 변변치 못한 조건에서 귀국하는 배 위에서도 희생자가 몇명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대로 상륙한다는 것은 전염병을 조국에 만연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병원선에 격리하고 기타 인원도 소정기일이 넘은 다음에 상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분의 주장은 의무담당자로서 너무도 옳은 것이었으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나는 퍼그나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선뜻 동의하지 못한 것은 3,000여명 귀환자들의 강열한 향수(鄕愁)에 부딛쳤기 때문이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혹은 거리에서, 혹은 들에서 불시에 잡혀서 연행되었으며 좀 나은 경우라야 부모처자들의 아우성소리를 등 뒤에 남기고 끌려온 사람들이다.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생환하는 이 시각에 1초가 여삼추(如三秋)인 그들 모두의 심정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박씨와 문씨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부리며 공기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눈치마저 보였던 것이다.

나의 머리 속에서는 한동안 육친애와 민족애라는 두개의 사랑이 대결하고 있었다. 마침내 크나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극복했다. 나는 박씨

와 문씨의 주장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의 〈권위〉, 총대장의 권위로 동포들을 설득할 과업이 남았다.

어느덧 수평선 위에 뭍이 나타났다. 나의 시야에 조국강토가 안겨왔다.

뱃전에서 환성이 연발한다. 우리들의 눈앞에 조국의 남단 항구도시 부산(釜山)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두 볼로 하염없이 뜨거운 것이 흘렀다. 1946년 5월 1일이었다. 4월 16일에 중국의 광동을 떠난지 보름만이었다.

부산에서는 그 날부터 18일간이나 상륙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었다. 항만 당국과 연락하여 환자들은 병원선으로 옮기고 우리가 탄 배도 격리되어 있어야 했다. 우리는 조국땅에 몹쓸 전염병균을 퍼뜨려서는 안된다는 한가지 생각(나는 그 생각을 애국심이라고 말하고 싶다)으로 지루하고 우울한 나날을 견디었다.

5월 18일 나는 미군정기관인 항만사령부에 호출되었다. 이날 내가 겪은 기막힌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내놓은 졸저 《민족과 나》(통일의 한길에서)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해방후 한국에 군림(君臨)한 미군정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 실례로서 다시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항만사령부의 호출을 받고 나는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는줄만 알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그런데 나는 의외의 상황에 부딪쳤으며 의외의 취급을 당했다. 대령의 신분으로서 일본계 2세인 미군상사의 면접아닌 사실상의 심문을 당했고 가지고있던 권총과 미화(美貨) 500달러를 몰수 당했다.

전신의 피가 일시에 역류하는 느낌이었으나 격양된 분노를 어디에 폭발시켜야 할지 몰라 나의 심령(心靈)은 몹시 몸부림쳤다.

배에 돌아와 보니 텅 빈 배만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동포 한 사람이 그 사연을 알려준 데 의하면 내가 미군정 항만사령부에 호출되어 1시간나마 심문을 당하고 있는 사이에 몰려온 미군인들에 의해 3,000여명의 동포들 모두가 배에서 내려 해산 당했다는 것이었다. 거듭되는 타격에 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이제는 개선행진의 꿈도 완전히 깨어졌다. 나는 개선장군은 고사하고 개선장교도 아닌 하나의

패배한 무졸 장교로 되었다.

미군정 당국이 권총과 미화 500달러를 압수하면서도 군복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그것은 나를 중국군복을 입은 장교로서가 아니라 다른 귀향난민(難民)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 이것이 항일전쟁에 목숨걸고 참가했고 승리하여 일본군부대를 무장해제시켰으며 일제에게 강제연행되어 사지(死地)에서 온갖 곤욕을 치르어온 남녀동포 3,000여명을 구출 인솔하여 환국한 나에 대한 대접이란 말인가?

조국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조국에 해방이 오기는 왔는가 말이다. 나의 상념은 갈피 잡을 수 없는 깊은 혼란에 빠지고 있었다.

다만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희열과 희망과 포부를 가슴 가득히 안고 돌아온 이 최덕신을 부산항구는 너무도 쌀쌀하게 외면했으며 미군정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준 것이다.

나를 푸대접하고 나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것은 분명 미군정 당국이었다.

무슨 이유로 그랬는가?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설문(設問)하고는 스스로 답을 찾느라고 무던히 모대겼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즉답을 찾을 수 없었다.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헤쳐온 훨씬 후 말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때의 그 설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친미 토착무력의 편성을 추구하면서 그와 다른 어떠한 군인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의 표현이었던것이다.

국군의 창설 과정에서 나는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임정법통(臨政法統)〉은 어데로?

부산에서 커다란 심리적 타격을 받은 나는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는 수 밖에 없었다. 서울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 환국한 부친(崔東旿)과 장인(柳東悅)을 만나면 〈임시정부〉이야기도 듣고 국내의 모든 형편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임시정부〉는 아는바대로 〈한일합방〉 후 해외로 망명한 독립지사들이 세운 것으로서 비록 중국정부로부터도 변변한 대접을 못받았고 자기의

깃발조차 띄울 수 없었던 처지였지만 망국노의 설움에 젖어 있던 내외 동포들에게는 그런대로 한가닥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던 존재였다.

더우기 나로서는 부친이 그 〈임정〉의 법무부장 직책을 맡아 왔고 장인이 통수부 참모총장 직책을 담당해 왔던만큼 〈임정〉의 권위에 남달리 마음을 쓰게 된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임정〉에 대한 나의 기대는 컸다.

지금 남한의 실권은 미군정이 행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 현상일 것이다. 미군이 이땅에 진주한 목적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는 데 있다고 하는만큼 그 사명이 끝나면 그들은 이땅에서 할 일이 없으며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땅에서 주권은 우리 민족의 수중에 돌아올 것이다. 그 때 〈임정〉의 법통과 권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신생독립정부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서울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에는 입문(入門)도 하지 못한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서 나는 당시 남한의 정치중심지인 서울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날이 바로 5월 19일이었다.

서울에 가 본즉 가족들은 을지로(乙支路) 6가(六街)의 자그마한 적산(敵産)가옥에 살고 있었다. 식구수에 비해 그리 여유는 없어도 박현욱(朴玄煜)이라는 분의 호의로 얻은 우리 일가권속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숨을 돌리고 주변을 살폈다. 궁금한대로 〈임정〉의 거취부터 알아 보았다. 그런데 이미 〈임정〉의 존재는 없었다. 〈임정〉요인들은 분명 환국했지만 〈임정〉의 권능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미군정 당국이 미군정 이외에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민족자체의 자주적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2 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일본이 연합국에 대적해온 전패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를 원형대로 존립시켰으며 그를 〈맥아터〉사령부에 복종하게 하는 간접통치를 실시하면서도 해방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민의 그 어떤 자주적인 움직임도 거부하고 한국을 점령한 미군을 통해 직접통치를 실시하고 미군은 마치 적국에 대하는 것처럼 점령군으로 행세하였다. 〈맥아더〉사령부가 남한통치권을 장악하며 공용어를 영어로 한다는 내용의 소위 〈태평양방면연합군총사령부〉의 포고 제 1 호가

선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의 남한 진주에서부터 미군 당국의 태도는 한국민에게 결코 우호적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인천(仁川)앞바다에까지 나갔던 〈건준(建準)〉의 환영대표를 미군은 무시했으며 또 환영대열을 짓고 인천 부두로 행진하는 인천지구 노조원들을 향해 항만 경비에 나선 구 총독부시기의 일본경찰이 발포하여 수명의 살상자를 발생시켰으나 상륙하는 미군장교는 오히려 살인을 정당한 경찰행위로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중경(重慶)에서 돌아온 〈임정〉요인들의 환국절차 역시 마땅치 않은 것이었다. 미군정은 〈임정〉요인들이 다 개인 자격으로서만 환국할 수 있게 했으며 그것도 몇개 조(組)로 분산 귀국할 수 밖에 없도록 조처했다.

그래서 〈임정〉요인들은 중경서부터 안고 온 〈임시정부의 법통〉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왔으나 그것을 바칠 데가 없었다. 미군정은 그 〈법통〉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해방된 우리 민족의 주권문제와 관련되는만큼 미군정이 관여할 성질이 아니며 오직 우리 민족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 더구나 8·15전까지만 해도 미군은 중국대륙에서 우리 광복군과 반일협동작전을 벌여온 사이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막상 일본군이 항복한 이 마당에서는 우리 민족의 그 어떠한 형태의 자주적인 요소도 다 부정해 나서니 도대체 미국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의를 알 수 없었다.

미국에 대한 의혹이 어렴풋하게나마 머리를 들고 있었으나 당시 나의 식견과 의식 수준은 그 정체를 명쾌하게 해부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못했었다. 만약 그때 우리 한국민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군정의 실태, 나아가서 미국의 대한(対韓)정책과 대한국인관을 해부하는 안목이 있었다면 어째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전도가 불투명하게 비쳤는가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 나의 인생행로는 달리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우리 민족의 독립은 미국이 참여한 〈카이로선언〉과 같은 국제적 담보가 있는만큼 아무 때건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었

다. 그런데 그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 부여 시기를 규정한 〈in due course〉(적당한 시기에)라는 문구가 그처럼 애매 모호하게 해석될 줄은 미처 몰랐었다.

남한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중장은 『내셔날 지오그래피』지 1947년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말하기를 〈〝in due course〟란 우리가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해석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것은 단지 〝수일안에〟라고 풀이할 수도 있고 〝수주일 안에〟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몇년 안으로〟에서 〝몇 10년안으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말을 〝수일 안으로〟라고 해석하고 오직 독립만 달라고 갈망하는 데서 절벽이 가로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중장의 이 논조에서는 한국의 자주독립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결코 호의적이랄 수 없음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도대체 즉시적인 독립요구가 어째서 미국의 견해와는 절벽이 가로놓이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8·15를 맞이한 것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실현인줄로 생각한 것이 인식착오였단 말인가? 나는 8·15후의 정세추이에 환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환멸감은 단지 〈임정의 법통〉이 무시당한데서만 오는 감정이 아니었다. 당시의 남한정국 전반실태를 두고 느낀 감정이었다.

일개 하급장교, 그것도 우리 민족이 아닌 미군중위가 8·15후의 남한정국을 장기판으로 삼고 우리의 노지사들을 장기쪽처럼 다루는 현실앞에서 나의 심정은 매우 언짢았다. 1945년 12월 초에 내한한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젊은 장교 버치중위는 처음에는 하지중장의 연설문을 기고하는 〈스피치 라이터〉(Speech writer)로 있다가 곧 하지중장의 유력한 정치고문으로 부상하여 남한정국을 떡 주무르듯 했던것이다. 바로 내가 서울에 입경한 무렵인 1646년 5월 22일에는 성동구 신당동(城東区新堂洞)에 있는 버치중위의 집에서 김규식(金奎植), 원세훈(元世勳), 여운형, 황진남(黄鎭南) 등 인사들을 불러다가 〈좌우합작〉극의 연출대본을 마련하고 있었다. 버치중위 주도하의 그 〈좌우합작〉이라는 정치작업이 그 후 실패하고야 만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어쨌든 개탄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자주독립국가

를 왜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건설할 수 없게 하면서 일개 미군중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하긴 모를 일이 그후에도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나로서는 망명 임시정부를 8·15후 곧 그대로 신생조국의 정통부로 고스란히 들여 앉힐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망국후 광복을 위해 바친 그 애국충정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끝내 털어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미련이었다.

수난에 찬 세월을 그대로 중국대륙의 일각에서 버티어 오던 〈임시정부〉는 환국후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그의 존재를 그치고 만것이다.

우울한 나날에

조부모님을 비롯해서 고향에 있던 가족들까지 월남하여 합류하니 4대가 사는 우리 가정은 을지로 6가의 자그마한 적산가옥의 수용능력에 비추어 생활상 불편이 이만저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을지로 5가에 우리 가족들이 몸담아 살 수 있는 적산가옥을 겨우 물색했는데 그 이사수속이 그렇게도 힘든줄은 미처 몰랐다. 반년나마 갖은 신고를 겪고서야 새 집에 옮겨 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 〈연고권〉을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규모가 크고 호화로운 적산가옥을 한채는 고사하고 몇채씩이나 쉽게 〈불하〉받는 것은 물론 큰 공장이나 기업체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불하〉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고권〉으로 말하면야 과거 일본인들에게 부착되었던 친일인사들만큼 적산과 깊은 〈연고〉를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일정때는 물론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도 이남사회에서는 친일분자들만이 잘 살게 되어있는 것이었다. 불쾌하기 그지없으나 미군정의 막강한 힘 앞에서 나는 너무도 무력한 존재인즉 어쩔 수 없었다.

할 일 없이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라 거리에 나서면 보이고 들리는 것 모두가 우울한 광경뿐이다. 경제적 혼란이 날로 심해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다.

뭐니뭐니 해도 양식문제가 제일 걱정거리였다. 도처에서 쌀을 내라고 아우성이었다.

이 험악한 분위기를 해소시킬 능력이 없는 미군정은 오히려 쌀타령하는 한국인들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민정장관 러취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째서 한국인들은 사과나 계란 같은 것은 먹지 않고 쌀만 먹으려 하는가고 말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민정의 최고직을 감당하는지 고소(苦笑)를 금할 길 없었다.

생산은 거의나 정지상태이고 장마당에서는 일제가 남긴 물건들과 미군 〈피엑쓰〉(P X)상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어디서 쏟아져 나왔는지 일본 식민지지폐가 다량 유통되어 무서운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앙진되었다. 거리에 느는 것은 술집들 뿐이었다. 한집 건너 〈빠〉요 두집 건너 〈캬바레〉고 여기저기 고급 요정들도 수없이 나타났다. 〈땐스홀〉이 나타나고 춤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스산해졌다. 미군에 의한 강간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백주에 거리에서 일제가 남긴 〈조선은행권〉을 흔들면서 젊은 우리네 여성들을 찾아 돌아치는 미군도 있었다.

이런 꼬락서니를 보면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 차례진 〈다다미〉방에 들이박히니 나의 가슴은 더욱 우울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틔워주기도 한 분들이 있었으니 한분은 중국에서부터 지면관계가 있는 김산(金山)씨였으며 다른 한분은 환국해서 사귄 최능진(崔能鎭)씨였다.

김씨는 부친과 상종하면서도 훨씬 손아래인 나를 허물없이 상대해 주었으며 내가 겪어온 체험담을 조용히 들어주기도 했다. 언젠가 김씨의 지방여행에 따라 나섰을 때 열차안에서 김씨는 중국군 장교로서 인도, 버마 국경 지대에서 일본군을 섬멸하는 작전에 참가했던 나의 소박한 〈무훈담〉을 주의깊게 들어주고는 기특하다는 눈매로 나를 바라보더니 그 체험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묶어내라고 고무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 일을 생각조차 못했던 나에게 김씨의 권유는 뇌리에 새겨져 그후 나는 기회를 얻어 『인면항일혈전기』(印緬抗日血戰記)라는 제하의 책을 발간했던것이다. 김씨는 그후 국회의원으로도 활약한 바도 있고 나에게는 퍽그나 친근한 정감을 남겨준 분이었다.

최능진씨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다정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분의 장형(長兄)되는 최대혁(崔大爀)씨는 바로 중국남경에서 삼민공사라

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임무를 담당해온 분이었다. 그 인연으로 해서 부친이 환국한 이래 최능진씨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이다.

최능진씨는 워낙 불의(不義)와는 타협할 줄 모르는 대바른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세월을 못만난 그 성품 때문에 그 분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던 것이다.

여운형선생이 이끄는 〈건준〉에 관계해온 최씨는 그 후 미군정청의 경찰수사국장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6년 9월에 대구에서 민중봉기가 터졌던 것이다. 봉기가 진압된 후 10월 23일부터 한미공동회담이 벌어졌는데 그때 미군정대표로 미국인들과 좌우합작위원회 대표로 여운형선생과 김규식박사가 참가했으며 군정청 경찰부장 조병옥과 수도경찰청장 장택상도 동석했다. 여기에 대구민중봉기사건의 진상설명을 위해 수사국장인 최능진씨가 호출되어 증언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구민중봉기에 대해서 미군정측에서는 좌익의 사주로 일어난 소요사건이라 했지만 기실 그것은 군정의 악정학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일제통치시기를 능가하는 경찰의 횡포와 해방후에도 계속된 쌀 강제공출 때문이었다.

최씨는 바로 이런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까밝히면서 증언했던 것이다.

군정청의 경찰관이란 전에는 일본의 주구이며 우리 민족을 심하게 괴롭혀온 자들로서 미군정청 경찰을 피난처로 삼고 기어들었다는 사실, 그 중에는 이북에서 배겨낼 수 없게 되어 도망쳐온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들추면서 최씨는 경찰에 대한 민족감정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농가를 습격하여 쌀을 수색 압수하고 저항을 하면 수갑을 채워 끌어가서 마구 구타 고문을 자행해 왔다는 것을 열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인이 공산주의자화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최씨는 계속하여 조병옥과 장택상을 정면으로 지목하면서 민족적 양심의 소유자들로 경찰관을 채용하자는 자기의 주장을 조, 장 양인이 완강하게 거부해온 사실까지 폭로했다.

여운형선생은 좌우합작위원회 주석의 명의로 조병옥, 장택상 양인의 해임을 주장했으나 미군정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문에 여운형선생

이나 최능진씨는 비명횡사(非命橫死)하는 혹독한 복수를 당한 셈이다.

여운형선생의 암살사건은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지만 최씨의 최후는 잘 알려지지 않은채 암흑에 묻혀버린 것이다.

최씨는 상기 증언 때문에 경찰에서 쫓겨났다. 1948년 5월 10일의 〈제헌국회의원선거〉때에는 동대문갑구에서 이승만과 맞서 입후보했으나 이유없이 체포되고 입후보가 취소되었다. 그후 최씨는 불우한 세월을 보내다가 6·25전쟁 때에 이승만의 특명으로 재판도 없이 총살형을 당했던 것이다. 독재권력에 의한 사실상의 암살이다.

생각하면 기막힌 일이다. 최능진씨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으며 처한 위치에서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제 2 절 창군(創軍)작업과 나

군(軍)은 친일파의 대피호

일제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신생조국건설은 우리민족 모두의 크나큰 관심사이지만 그런가운데서도 나로서는 특히 창군작업에 유다른 관심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단순한 직업군인 의식의 작용만이 아니다. 국권이 일제에게 강탈당했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민족적 자주권이 강력한 민족자위무력에 의해서 담보되지 못했던 탓이었다는 것을 통절히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장인 (유동열)은 구한국군의 장교를 지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 군대가 강제해산을 당했을 때 비분강개(悲憤慷慨)하던 나머지 이갑(李甲) 노백린(盧伯麟)선생들과 더불어 의병운동을 일으켰으며 그후 해외에서 반일독립운동에 투신하여 8·15후 귀국하기까지 〈임정〉의 통수부 참모총장 직책을 담당하여온 분이다. 해외풍상(風霜)을 겪어온 수십년 동안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위력한 민족군대의 육성을 꿈꾸어온 장인의 절절한 심정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우리 민족의 현대적인 정규무력의 성원이 되고 싶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

는 오랜 세월 항일전에 참여해온 여러 선배들과 함께 우리 신생조국의 민족군대 창설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니 담당할 수 있다고 자부해 왔던것이다.

그런데 막상 8·15후 귀국하여 남한의 현실을 관찰하여 보니 형세는 나의 포부, 나의 기대와는 너무도 어긋나는 판이었다. 진정 민족군대를 창설하자면 우리 민족의 의사에 따라 우리 민족의 손으로 외세의 침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군대를 애국애족하는 사람들로써 편성해야만 할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군 편성작업이 이런 적격조항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우선 군 창설의 주인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미군정 당국이었으며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을 골간(骨幹)으로 해서가 아니라 친일민족반역세력을 주역으로 해서 편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군대가 민족을 위해 복무할 수 없으며 외세에 이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것은 창군과정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45년 11월 13일 이응준, 김석원, 백홍석, 신태영, 유재홍, 채병덕, 정일권, 백선엽, 이형근, 김백일 등이 주동이 되어 소위 〈국방경비사령부〉란 간판을 내걸었다. 이들은 다 일본도(日本刀)를 허리에 차고 활보하던 왕년의 일만군 장교들이다.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건군준비작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환국한 우리 〈임시정부〉의 활동을 거부하면서도 이들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의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었으며 군정법령으로 합법화해 주었던 것이다. 11월 23일 미군정법령으로 〈주한미군정청 통위부〉의 현판식이 60여명의 일, 만군 출신 청장년 장교들의 참가속에 진행되었다. 이렇게 창군작업이 시발되었고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군정은 같은 해 12월 5일 서대문에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하였다. 이응준, 이형근, 채병덕, 김상겸 등의 협조로 원용덕(元容德)이 초대교장으로 들어 앉았다.

〈군사영어학교〉로 말하면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을 영어에 숙달시켜 속성으로 임관시키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기관이었다. 그것은 요컨대 미군정의 군사정책을 실시 담당 수행할 토착군대의 지휘관양성 〈풀〉(Pool)이었다. 이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2월 27일 태릉(泰陵)으로 자리를

옮겨 1연대 편성과 동시에 순전히 영어교육을 진행하여 3월 15일에는 20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후에 육군사관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그리고 1946년 1월에 국방경비대가, 5월에는 국방경비대 사관학교가 각각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다.

8·15후 이와 같이 남한에서 정부가 구성되기도 전에 군대부터 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정책적 요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남한에서 토착군대의 편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용병(傭兵)으로 되어줄 적격(適格) 대상은 바로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자들이었다. 미군정 측으로 볼 때 그들이야말로 오늘도 어제처럼 쉽게 외세에 붙어서 복무할 체질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민족을 배반한 그들에게는 일본이건 미국이건 자기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가릴 것이 없는 것이다. 실지 그들은 새로운 역사적 환경에서 미군정의 호출에 응할 적극적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정청에서 과거 일본군의 고급장교로 있던 이응준(李應俊)씨를 환문(喚問)한 경우만 보아도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1946년 1월 초 미군정청 국방부 책임장교들인 참팬대령과 아고대령이 이응준을 불렀다. 그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심중한 문제가 토의되었지만 쉽게 낙착되었다. 쌍방은 만나자마자 한 곬으로 교감(交感)되었던 것이다.

〈건군(建軍)문제를 서둘러야 하겠는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

〈과거 일본군 출신인만큼 국민감정도 고려해서 당분간 근신하고 싶다〉

〈일본군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해방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겠는가?〉

〈그렇다면 좋다. 그말에 용기가 난다〉

이른바 〈근신〉을 하고 있던 과거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환성을 올렸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미군정청 국방부청사로 구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미군정 당국과 담화를 마친 이응준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군정청 국방부 고문관으로 정식 취임했다.

이응준으로 말하면 이갑선생의 무남독녀를 취한 사위이자 아들 격으로서 일찌기 구 한국정부의 위촉으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파견된 유학생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본육사(陸士)에 재학중 〈한일합방〉을 당했으나 그대로 눌러 앉아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되어 일본군에 복무했으며 대좌까지 승진했던 것이었다. 원래 성격이 온후한 편이고 사람들과 원만히 지내왔기 때문에 일, 만군 출신 장교들 속에서 선배격으로 인심을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8·15후에도 고대(高大)근방에 있던 그의 집으로는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었다. 바로 이점을 포착한 미군정 당국은 이응준에게 창군작업의 알선역을 담당시켰던 것이다.

한편 미군정청은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편하면서 통위부장으로 〈임정〉 통수부참모총장이었던 유동열씨를 임명했다. 그것은 그들이 일, 만군출신 장교들로써 경비대를 꾸리고 있는데 대한 국민감정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창군작업은 미군정의 방침에 따라 일, 만군 출신들이 주동이 되어 처리했다. 유동열에게는 자신의 포부와 주견을 펼쳐 줄만한 방조자들이 없었다.

유동열씨를 통위부장 자리에 앉히고 1월 15일 국방경비대를 정식 발족시킨후 일, 만군 출신의 원용덕, 채병덕, 이형근 등이 주동이 되어 우선 도청 소재지 단위로 중대 이상의 병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장비들은 물론 미군이 항복한 일군의 소총을 제공해 주었다. 1946년 6월에 이르러 각 도에 1개 연대씩 총 8개 연대가 편성되었다. 통위부 산하에는 조선경비대 총사령부가 나와서 각 연대를 통솔하고 있었고 해안경비국 편제하에 해방병단으로부터 시발한 해안경비대가 정식 편성되었다. 비행대도 조직되었다. 물론 미군정 당국은 육군무력을 위주로 꾸리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체모를 갖추고 역량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풀리었다. 일본군이 패망한 후 태평양일대 도서들에 산재해 있던 자들이 귀국하는 차제로 이미 통위부의 중추에 들어 앉은 이응준, 이형근, 채병덕 등에 의해서 왕년의 일본육사 동기생 또는 선후배 관계의 연줄을 타고 군에 들어왔다.

만군출신들은 한편으로는 정일권이처럼 재빠르게 이북땅을 거쳐 남

하했고 기타는 박정희처럼 중국의 내전으로 길이 막히자 일시 방편으로 광복군에 편입되었다가 귀국한 자들이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원용덕, 정일권, 백선엽, 김백일 등의 알선으로 군에 기여들 수 있었다.

군의 모든 인사권은 물론 미군정청 미군장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통위부의 미군고문관은 푸라이스대령이었고 경비대의 고문관은 하우스만대위였다.

이때 통위부에는 이응준이 고문관으로 있었고 그의 사위 이형근이 참모장으로 있었으며 경비대에는 정일권이 사령부 참모장으로 앉아 있었는데 미군장교는 사실상 이들 일, 만군 출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의사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다보니 군의 인사행정은 실질적으로 일, 만군 출신의 의향에 따르게 되었다.

일, 만군 출신 장교들에 대한 직급을 사정하는 절차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일본군적에 있었던 경력자를 최우선 대우를 했다. 그들 자신의 신고에 따라 무조건 일본군의 직급을 그대로 주었던 것이다.

—일본군에서 당신의 최종 직급은?

—대위였다.

—올라잇! 오늘부터 당신은 대위다.

—당신은?

—소좌였다.

—올라잇! 당신은 소좌다.

이것은 과장없는 사실 그대로이다.

가소롭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심한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나 자신의 얼굴이 붉어질 지경이었다. 1948년, 한국정부수립후 일본의 〈NHK〉방송에서 간단한 풍자물을 취급한 일이 있었다.

A〈당신은 종전(終戦)이전에 무슨 계급이었지요?〉

B〈소좌였습니다.〉

A〈아하, 그래요! 그럼 이웃집에 가보시죠, 당신은 틀림없이 참모총장을 할 수 있소!〉

A〈당신은?〉

B〈나는 화물선 선장이었소!〉

A〈이웃집에 가면 당신은 국방장관이 될게요!〉

이것은 일본군 소좌였던 채병덕이 참모총장으로서 준장별을 달게 되고 영국의 화물선 선장을 하던 신성모가 국방장관을 하게 된 한국실정을 빗대여 신랄하게 야유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토착군대를 꾸리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별따위를 아까워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미군정에 의해 마련된 이러한 정치풍토에서 과거의 친일경력자들이 때를 만났다고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동안 형세를 관망하던 자들도 앞을 다투어 속속 군문에 들어섰다. 일, 만군 출신 장교들 뿐아니라 일본경찰관 출신들, 〈특고(特高)〉형사 출신들, 관동군 특무 출신들까지 군으로 몰려들었다.

이리하여 군은 사실상 친일, 반역의 경력을 쌓은 자들의 대피호처럼 되었던 것이다. 한때 〈반민특위(反民特委)〉라는 기구가 나와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재판에 부치겠다고 떠들썩하다가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격으로 흐지부지하고 말았지만 군부에 자리잡은 일, 만군 출신 장교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반민특위〉의 취급대상으로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을 다치지 못하게 한 미군정당국의 강한 입김때문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중한 친일, 반역의 죄를 졌어도 군인신분으로 있는 한 자동적으로 면죄되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대가 민족을 보위하는 민족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군의 그후 행정이 이를 설명해 주었다.

천진난만한 항의

미군정 주도하의 창군작업이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의 주역담당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나의 민족감정에 몹시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래도 일본군대와 맞서서 총칼을 내대고 항일전에 참가했던 나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짓밟히는 것만 같았다.

단제(丹齋) 신채호(申采浩)선생은 일찌기 〈조선혁명선언〉에서 일제를 〈조선민족 생존의 적〉으로 단정하고 〈일본을 살벌하는 것이 즉 우리의 정당수단〉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 생존의 적〉인 일제에 부착하여 일황(日皇)이 주는 똥별과 치사스러운 녹(祿)을 감지덕지 하면서 항일독립투사들을 반대하여 소위 토벌전의 앞장에 섰으며 무고한 동포들을 살륙하는 만행에 가담했던 자들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의 창군작업에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것인가?

우리 민족의 적에 복무한 자들도 우리 민족의 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적의 족속들에게 민족의 운명이 내맡겨져서야 안될 일이다. 워낙은 그들도 일제와 마찬가지로 살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나의 민족적 양심으로서는 이들 적의 족속들이 판을 치는 창군작업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로서는 그럴 수 없는 개인적 사정도 있었다. 일, 만군 출신 장교들과 항일전에 참가한 나와의 관계는 명백한 적대관계에 있었으며 전선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생사를 겨루던 사이였다.

과거 태평양전쟁시기 남양군도 전선에 참가했고 그후 버마전선에서 전투에 참가한 일본군 소좌 이용문(李龍文)은 인면(印緬)작전에 출동한 나 최덕신과 맞총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후일 내가 거창(居昌)사건에 연좌하여 증인심문에 호출당했을 때 군사재판관으로 배석했던 이용문이 나를 문책하던 사실은 나 개인으로서는 전신의 피가 역류하는 기막힌 역사의 희롱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 사람은 손립인(孫立仁)장군휘하 중국군부대에 소속되어 인면(印緬)작전에로 출발하기 직전에 귀주성 도윤독산(貴州省都勻独山)에 주둔하고 있었다. 후에 알고 보니 일본군 포병대위였던 이형근도 중국 귀주 땅에서 작전하고 있었다. 얼마동안의 시일차로 나는 그의 포사격세례를 면한 셈이다.

그런데 환국후 이 땅에서 일본군 대위였던 이형근은 중국군 대령이었던 나보다 훨씬 높은 상관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내려다 본 것이었다.

이렇게 할바하고는 친일이 무슨 죄가 될것이며 항일은 무엇때문에 목숨걸고 한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기타 전선에서 나와 직접 마주쳤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 만군 출신들이야 다 나와는 마주 섰던 적진에서 나와 대적관계에 있었던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들과 함께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대오에 선다는 것이 정말 나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원망스러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연합군편에서 함께 싸운 전우가 아닌가? 일본군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한편이었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어떻게 되어 적진에 가담했던 자들을 중시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미군정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미군정 당국의 처사를 호의적으로, 선의로 이해하려고 애써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직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의 작간이며 미군정당국은 실정에 어두운 나머지 그들의 꾀에 넘어간 것으로 해석을 해보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나머지 나는 미군정당국이 우리 실정을 정확히 요해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중심의 창군작업방향을 바로잡아줄 것을 바라는 서한을 미군정청 앞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그때 항의서한에서 나는 지금 미군정이 신임하고 있는 몇몇 대표적 인물들을 실례로 들면서 그들의 친일경력과 반민족적 죄행에 대해서, 특히 연합군을 반대하는 작전에 참가한 행적들을 사실자료로 입증하면서 현행 창군방향의 착오를 지적했으며 유능한 반일투쟁경력을 소유한 애국군인들로써 창군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좋게 말해서 천진난만하다고 할까,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었다. 당연한 결과로서 미군정청은 나의 항의서한에 대해 뜨끔도 안했으며 회답조차 없이 묵살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미군정당국은 내가 선의로 해석하는 것처럼 실정을 몰라서 일, 만군 출신 장교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후 장교들의 승진발령 때마다 더욱 강하게 실감한 것이지만 미군정당국은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일본군국주의 군사교육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도 중국군 출신이거나 광복군 출신인 경우에는 촌놈을 대하듯 경시 내지 무시하는듯 했다. 아니 그보다도

민족을 반대한 경력이 미군 측으로서는 더 소중했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국익추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제날의 원수가 오늘은 벗〉으로 되는 국제정치의 비정한 상태를 이해하는 안목을 갖추게 된 것은 나의 인생행로에서 훨씬 후의 일이고 그 때는 일본군으로서 얼마전까지만해도 연합군을 반대하여 싸운 사람들을 비호하는 미군정당국이 불만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창군의 역사는 내가 고민하건 말건 관계없이 미군정 당국이 설정한 기정코스를 따라 지체없이 추진되어 갔다.

그러니 창군작업의 방향수정을 요구하여 미군정청에 항의서한을 낸 나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더 엄격히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의 군대창설문제를 가지고 미군정청에 방향수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 자세 자체가 벌써 자주정신의 불철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 돌이켜 보면 그것도 쑥스러운 노릇이었다.

동참자의 변

장인과 더불어 창군작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신생조국의 군 지휘관으로서 활약하려던 포부와 꿈이 컸던만큼 미군정 주도하에 벌어지는 창군상황에 대한 실망도 컸고 분노심도 컸다. 그래서 그런 판국에 동참한다는 것은 도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 내가 1947년 1월초에 사관학교 3기 특별생으로 입대하여 중국군 장교신분을 청산하고 미군정이 주는 군복을 다시 입게 되었다.

그 오욕의 창군작업을 저주하며 그에 동참하기를 거부해온 내가 어떻게 되어 번의(翻意)하여 군 복무에로 나서게 되었던가?

나의 부친과 장인은 처음부터 내가 군에 참여하여 자리를 잡을 것을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 나중에는 독촉이 심해졌다.

원래 나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존경해 왔고 결혼해서는 장인도 몹시 존경해온터이다. 단지 혈연관계상 존속인 이유에서만 아니라 망국의 비운속에서도 조국광복의 의지를 실현코저 평생을 바쳐온 애국충정을 마음속으로 존경해 왔으며 그분들의 분부라면 순종해 왔다. 그분들의 의사를 거역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윤리도덕관으

로 굳어진 것이었다.

그러한 내가 두분의 뜻을 순순히 따르지 않은 것은 이번 문제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되는 것만큼 나로서도 논거가 당당했기 때문이었다.

두분은 나의 거부자세가 완강한 것을 보고 여러 모로 나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특히 통위부장인 장인은 자신이 겪는 고충으로부터 출발해서 창군작업이 친일세력의 주동으로 추진될수록 민족적 양심의 소유자들이 애써 군부에 더 많이 들어가 든든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항일경력 소유자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야만 군부의 친일세력 일색화 추향을 저지할 수 있으며 그들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논거는 장인이 비록 통위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튼튼한 애국역량을 지반으로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한 존재로 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통절한 호소이기도 한것이다.

듣고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군부의 실권을 완전히 친일매국세력에게 내맡기느냐 아니면 애국세력이 들어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더 차지하여 민족자주역량의 지반을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첨예한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막상 따지고 보면 나에게는 다른 출로가 없었다. 군인생활경력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택할만한 전문지식이 없는 나에게는 군인사회가 그래도 익숙된 세계였다. 그리고 장인이 담보하기를 형식상 절차로서 사관학교 특별반을 거쳐 곧 임관시키고 단시일내에 〈특진〉으로 계급과 직책면에서 고려하겠다니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생각되었다.

이래서 나는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었다. 그동안 품어왔던 자신의 소신을 번복하고서는 그것을 변명하는 구실을 수없이 주어대서 자신을 합리화하니 말이다. 그래야 덜 면구스럽고 마음의 불안도 가실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사관학교 특별반(3기생)에 입대하여 친일장교들과 창군작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것이 1947년 정초였다.

조선경비대 사관학교는 태릉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청년들을 침략전쟁에 내몰기 위해 꾸린 특별지원병훈련소 자리였다. 분명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쫓겨간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망령은 검질기게도 남아서 아직도 배회하고 있는 모양이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몰라도 하필이면 일제의 특별지원병 훈련소 자리를 우리 민족군대의 간부양성기지로 쓴단 말인가? 일본군국주의와 연고관계에 그다지도 연연하는지 그 검질긴 미련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하겠다.

사관학교 3기생 특별반으로는 나를 포함해서 중국 육군대학을 졸업한 포병출신인 박시창(朴始昌) 광복군 사령부 총무처장을 지낸 채원개(蔡元凱) 광복군참모본부에 있던 박기성(朴基成)등 8명이 들어왔다. 그들도 다 나처럼 오랫동안 관망하다가 입대한 민족주의적인 애국적 양심의 소유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보다 앞서서 송호성씨가 2기 특별생으로 육사를 거쳐 나갔다.

그로 말하면 중국군에서 항일실전 경험을 쌓고 해방후 초대 사령관직에 있다가 여순 군인반란사건 진압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 만군 패거리들에게 몰리워 한직에 좌천되었다가 전쟁시기에 월북한 사람이다.

사관학교 내무반생활에서 훈련생들을 관리하는 구대장(区隊長)중대장들은 특별생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젊은 일반훈련생들과 다름없는 취급을 했다. 특별이란 당초약속과는 달리 명색뿐이었다. 특대하려는 기미는 고사하고 오히려 푸대접하는 기색이 역연했다. 이러한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든든한 자리를 차지한 일, 만군 출신들이 중국이나 광복군에서 항일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작용시키고 있는 것이 명백했다.

벌써 나이 찬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식사조건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통밀밥은 소화하기도 어렵고 설사가 계속되는데는 질색이었다.

그러던 차에 당시 제 1 연대장이었던 이정일(李正一 후에 이성가 〝李成佳〟로 개명)이 슬그머니 우리 특별반 노병들에게 특별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이 연대장도 우리와 같은 계열의 광복군 출신이어서 동정심과 친근감이 작용했으리라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시켜 이밥에 고기국, 김치등 찬을 바쳐 대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군고문관은 그를 호

되게 추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 만군 출신들이 우리를 아니꼽게 여기고 살펴 오다가 고문관에게 고해 바친 결과였던 것이다.

참으로 얄팍한 심장들이며 괘씸한 속알머리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너절한 심사는 훈련에서도 나타났다.

사병훈련이야 소시적에 이미 치르고도 남고 실전경험도 적지 않게 쌓아 흔히 표현하는 식으로 말하면 산전수전을 겪은 노병이라 할 우리들, 특별반 훈련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진창위로 포복전진 훈련을 반복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준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항일경력의 소유자라는 이유때문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정신적 학대의 표현인 것이다. 민족을 반역한 떳떳치 못한 경력때문에 오는 죄의식과 일종의 부담감을 마취시켜 보려는 심리적 발작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고통도 참을 수 없거니와 이러한 정신적 학대로 인간성이 짓밟히는것이 더욱 참을 수 없었다. 1개월만에 주말외출이 허락되어 집에 들린 김에 나는 부친에게 다시 귀대하지 않고 군대를 그만 두겠다고 떼를 썼다. 부친께서는 그렇게 하면 군율상 도망병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귀대해야 하며 쓸데없는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큰 목적을 위해 사소한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나무라시는 것이었다. 그래도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부친은 사돈 어른에게 전화로 상논하시었다. 통위부장인 장인은 부친보다 더욱 펄쩍 뛰시면서 귀대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었다. 송호성사령관에게도 문의하여 결국 나는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별수없이 집에서 태릉까지 먼 거리를 도보로 귀대할 수 밖에 없었다. 울적한 기분을 억지로 달래면서 허덜터덜 촌길을 걸었다. 짜증스러운 길이었다.

이러저러 세월이 흘러 당초 약속대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만에 졸업이라고 하게 되었다. 우리들 광복군계통의 특별생 8명과 함께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구실밑에 일, 만군 출신, 그것도 하사관 출신 8명을 포함해서 특별졸업을 시켰다. 소정 격식대로 다 소위로 임관했던것이다.

항일한 중국군 대령의 별은 일본군 하사관의 별과 맞먹는단 말인가? 항일전경력도 미군정 관리하의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실시하는 일본군국주의 잔재의 훈련을 거쳐서야 겨우 소위로 임관되는 눅거리였던

가?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일본통치를 반대해서 망명했고 항일전에 참가한 나의 청백한 경력은 이렇게 해서 얼룩지기 시작했다. 일제침략자들의 군국주의 망령이 배회하는 왕년의 특별지원병훈련소 옛터에서 나는 오욕의 인생행로를 시발한 것이다. 다만 가슴속에는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군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간직하고서 반갑지 않은 일, 만군 출신들과 그 길을 동행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 3 절 승진가도를 달린다

로버트단장의 시찰과 야외강의

사관학교 특별반을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된 나는 대구에 있는 6연대에 배속되어 연대본부 교육작전담당으로 되었다. 연대참모로 있으면서 나는 처음 약속대로 특별진급이 있기를 기다렸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 만군 출신들은 애초부터 일제가 달아준 직급 그대로 수평임관을 시키고 인차 높은 직책에 앉혀 그에 따르는 별을 단번에 2, 3계단씩 뛰어 넘어 높여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왔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본래 직급대로 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래 직급인 대령도 못찾고 겨우 소위로 있다는 것이 어깨의 별이 맥을 쓰는 군인사회에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는 것이었다. 일본군 대위를 하던 자가 그대로 대위로 임관되고 다시 뒤따라 소령도 되고 대령도 되며 만주군 대위출신이 중령이 되고 하사관 하던 자도 소위, 중위가 되는 판에 그래도 명색이 대령이고 항일전 경력까지 지니고서 소위라니 될말인가? 도대체 아니꼽고 볼 수 없는 꼴인데다가 그런 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심사가 틀려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서울에 있는 사령부에서 안면있는 대위가 찾아와서는 〈선배님! 축하합니다. 대위로 특별진급하게 되었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격분했다. (아니! 대위라니! 고작해서 겨우 대위란 말인가?)그러나 겉으로 감정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 인사문건이 절차상 통위부장을 거치게 될것인즉 그때 논난되고

바로잡아질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를 포함한 3인이 소령으로, 기타는 위관급으로 진급발령이 내렸다. 대령까지 되찾자면 아직 두계단이 있으나 형세로 보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소령으로 승격하면서 나는 대전(大田)에 있는 제2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했다. 연대장은 대령직제인지라 얼마후 중령으로 승진했다.

연대를 맡고 보니 모든것이 엉성하기 그지없었다. 우선 편제 인원수부터 엄청나게 부족했다. 겨우 2개 대대 밖에 없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일대에서 모병에 정력을 기울였다. 이때 나는 무(武)를 경시하던 이조 봉건유습에서 〈호남부당병(好男不当兵)〉——호남은 총을 쥐지 않는다는 의식이 충청도 사람들에게 농후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호남의 손에 총이 쥐여지지 않으면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 결국 민폐와 국난을 입게 된다고 해설하면서, 청년들의 입대를 권유했다. 결과 모병성적이 매우 좋아서 우리 연대 부족인원을 보충하고도 온양에 있었던 13연대와 진주에 있던 12연대에까지 1개 대대 병력이나 넘겨줄 수 있었다.

편제 인원을 채우고 군율을 세워 연대를 꾸려 나가던 어느 날 로버트 미 고문단장이 하지중장의 전용열차를 타고 시찰을 내려왔다. 아직은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신통한 설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터에 미 고문단장이 시찰을 나왔으니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매우 난감했다. 문득 버마전선에서 사병들을 훈련시키던 생각이 떠올랐다. 한창 폭양이 내리쪼이는 때라 나무 그늘 아래 흑판을 세워놓고 사병훈련을 위한 강의를 하지 않았던가! 나는 그때의 경험을 살려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장면을 보여 주리라 결심했다.

시찰나온 로버트 고문단장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매우 흥미를 느끼는듯 했다. 그의 표정을 살피다가 자신심이 생긴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가보자고 권했더니 그는 〈노!〉하면서 그렇게 하면 방해가 될 것이니 그만 두자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잠시 더 그 교육광경을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관찰하다가 다른 것은 더 볼 필요가 없다는듯이 다음 목적지로 떠나갔다.

그는 채병덕이 여단장으로 있는 청주제4여단과 이정일(이성가)연대장이 지휘하는 온양의 13연대도 시찰했던 것이다.

며칠후 이정일연대장이 나에게 달려왔다. 그는 다짜고짜로 나에게 하

는 말이 〈형님! 로버트단장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해 보였기에 대단한 칭찬을 받았소〉하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이정일연대 참모들 앞에서 로버트단장은 〈내가 만일 연대장이라면 나는 나의 참모들을 대동하여 대전 2연대를 견학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가 나에게 전달하는 말투는 악의라고는 느낄 수 없었으며 진정으로 내가 평가받은 데 대해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분명 로버트는 다른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한 모양인데 한동안 지난 후에 만난 채병덕은 나를 보더니 〈고문단장을 어떻게 삶았기에…… 대단하구만! ……잘 대우한 모양이지?!〉라고 잔뜩 비꼬는 것이었다. 덩지는 큰 자가 마음씨는 고약한 소인배(小人輩)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 당시 부대 지휘관들이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특히 미 고문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썼으며 대접을 잘하며 심지어 뇌물과 주색을 제공하는 것이 풍토화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로버트단장을 삶기 위해 대접한 일도 없거니와 그럴 생각조차 없었다. 단지 사병교육의 실태를 내 나름대로 보여주었을 뿐이다. 물론 나의 머리속에는 로버트단장에게 잘 보이려는 심리적 작용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위해 향연이나 뇌물작전을 벌이지 않았을 따름이다.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판을 치는 꼴이 역겨워 군에 들어가기를 기피하다가 타의반, 자의반(他意半, 自意半)으로 입대하게 된 명분은 그들의 독판치기를 견제하고 민족주의 세력의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러자니까 민족주의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입대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될수록 높은 별을 따야 한다는 논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식의 이치가 더욱 전진해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 고문관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며 그들의 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다 든든한 자리를! 보다 높은 별을!〉 당초에 내세운 고상한 목적은 뒷전으로 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택한 수단이 목적처럼 되고만 셈이다.

그러나 아뭏든 야외강의라는 한 토막의 장면 연출이 인연으로 되어 로버트고문단장의 안중에 들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1개 연대장으로부터 사관학교 교장으로 발탁되었다.

나에게는 〈보다 든든한 자리, 보다 높은 별〉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담보된듯 싶었다. 일, 만군 출신만 비호하고 항일한 중국군 출신인 이 사람을 몰라주는 것이 그렇게도 한스럽고 원망스럽던것이 스르르 가셔지고 버마전선에서 싸운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종래와는 달리 미군이 하는 노릇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미군, 구체적으로는 미 고문단장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었다.

교육자의 포부를 안고

내가 사관학교 교장으로 가게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당시 사관학교 교장은 만군출신인 김백일(金白一)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군부내 중추에 자리잡고 실권파로서 정일권, 백선엽 등과 강력한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침 군수보급을 취급하는 후방사령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는 재빨리 그 사령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관학교 교장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후임교장으로 몇사람이 물망에 오른 것을 미 고문단장 로버트가 그들을 다 제쳐놓고 나 최덕신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교장으로 임명된 후 나는 로버트를 초청하여 사관학교 전체 후보생들 앞에서 특별강의를 해줄 것을 청탁한 일이 있다. 그는 쾌히 응해 주었다. 그는 강의 서두에서 나를 지명하면서 〈훌륭한 조직자 훌륭한 교육자〉라고 격찬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 고문단장의 안중에 들게 된 것도 기쁜 일이거니와 한편으로는 사관학교 교장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군(軍)에 대한 나의 포부를 실현하는 데 절호의 기회처럼 생각되었다. 사관학교를 거쳐 각 병종 부대들에 배속되게 될 수많은 사관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이 자리야말로 그들에게 민족정기를 심어주어 장차 군부내에서 애국애족세력이 친일세력을 압도할 수 있게 하는 더없이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교육자의 긍지를 안고 사관후보생들의 교육에 임하자고 마음먹었다.

새로운 직책에 부임해서 보니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훈련받던 낯익은 고장이건만 그 곳이 과거 일본군국주의가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특별지원군훈련소 자리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상기되어 몹시 언짢았다. 우리 민족군대의 간부양성기지를 이런 데다가 두어두다니……이것부터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적합한 교지(校趾)선택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당시 학교에는 이건국(李建国)이라는 정보참모가 있었는데 학도병으로 끌려나갔다가 도망쳐서 광복군으로 환국한 청년이었다. 따지고 보면 정보참모란 직책은 학교에서 별로 할일 없는 한직이었다. 훈련생들의 동태조사는 상급특무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적정 수집 분석을 하는 〈G—2〉의 역할도 이곳에서는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현 교사환경이 사관후보생 교육에 미치는 정신적 작용도 나쁘고 지형지리적 조건도 불리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적격지를 찾아내라고 지시를 주어 내보냈던 것이다.

며칠후 그가 답사 결과를 보고해 왔다. 바로 현재 〈워커힐〉자리였다. 검토해보니 마음에 들었다. 한강을 남향으로 두고 뒤로는 높은 산줄기가 뻗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멀리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전망에 안겨오고 앞으로는 넓은 벌판이 널려있다. 부근 대지는 이왕직(李王職)소유지라 귀속시키기도 쉬울것 같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많지 않아 어느 모로 보나 조건이 합당한 곳이었다.

서둘러 건축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서 상급의 인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럭저럭 시일을 끌다가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이범석(李範錫)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자 그를 찾아간 일이 있다. 이범석장관댁에는 아침부터 방문객들이 답지하여 줄을 짓고 있었다. 면접차례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퍼그나 걸렸다. 겨우 차례가 되어 장관을 만나 사관학교 교장으로서 실정을 보고하고 교사 건축계획서를 제출했다. 장관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둥 마는둥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이범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다. 일찌기 중국대륙에서 항일전에 참가한 경력자이고 광복군 제2지대장으로서 나에게

부지대장으로 함께 싸우자고 권한 적도 있는 터이지만 귀국후에는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는 곁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일본군 장교였던 채병덕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걸하니 그후 국무총리겸 국방장관을 할 때 채병덕을 국방부 참모총장으로 발탁 기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휘관회의에서 국군의 구성으로 볼 때 일, 만군 출신과 중국군 및 광복군 계통 출신의 인사안배가 그만하면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눈을 까뒤집고 보아도 일, 만군 출신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중추를 이루고 있는 데도 말이다. 이범석은 심지어 통위부 시기부터 내려온 군기대(軍紀隊)를 기어이 일제시기의 호칭 (헌병대)으로 개편했던 것이다. 반일경력자답지 않은 처사들에 대해 고개를 기웃거릴 수 밖에 없었다.

어쨌든 국방장관의 비협조적 자세로 말미암아 사관학교 교사건축계획은 공전만 했고 나도 교장자리를 내놓게 되어 나의 포부는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내친 김에 이와 관련한 후일담을 마저 펼쳐보자. 6·25동란이 터지자 사관학교는 자연히 없어졌다. 그러다가 그후 밴프리트의 계획으로 진해(鎭海)에 임시로 사관학교를 설치 운영했다. 밴프리트는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후 5만달러를 모금해서 기증해 왔다. 사관학교 교사건설자금을 기증한 연고로 밴프리트에게 〈육군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게 된 것이다.

안중근의사의 조카로서 나와 중국군관학교 제10기 동창생인 친구 안춘생(安椿生)이 진해에 임시로 설치된 사관학교 교장이 된후 나는 내가 세웠던 건설계획을 그 친구에게 넘겨주었다. 장차 참고로 해주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나 그 역시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그의 후임 교장인 김종오(金鍾五)는 태릉에 있는 현재학교 자리에서 건축계획을 벌였던 것이다. 누구도 그를 반대하지 않았다. 밴프리트는 새로운 대지를 잡으면 비용이 더 들게 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생색만 내면 되었다. 결국 일제의 특별지원병훈련소 자리에서 사관후보생 교육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일본군국주의 망령은 검질기기도 해서 좀체로 이 땅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교사건축문제가 결국 이렇게 될줄도 모르고 나는 교장 재직시 나의

계획을 실현해 보려고 공연히 동분서주한 것이다.

나의 교장 재임기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나는 조선경비대사관학교로서는 말미의 교장이고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로서는 초대교장이 되어 7기생과 많은 특별반생들을 졸업시켰고 8기생의 교육과정을 절반쯤 담당하다가 물러났다.

나는 교장으로서 교육과정 전반을 지휘통제 하면서 정훈교육시간을 이용하여 훈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는 군인생활에서 일본식을 탈피해야 하며 군대는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로 역설했다.

7기 특별반 졸업식에는 이승만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방장관 육군총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람이 이박사에게 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8기생들은 5·16 쿠데타의 주력이 되기도 했다. 이래서 내가 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사람들중에는 아직도 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계 관계 재계 등 사회에 진출하여 활약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얼마나 투철한 민족적 양심과 애국열정을 안고 살아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더듬어 보면 어처구니없는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보면 그 무슨 민족주의적 기반을 구축해 보자고 커다란 포부를 안고 사관학교 교장직을 담당한 것도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참으로 거대한 틀 속에서 거목(巨木) 못되는 이상 개인의 힘은 너무도 보잘것 없으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후 결국 내가 사관학교자리로 예정하던 자리에는 소위 한국제일의 유흥장·워커힐이 세워졌던 것이니 참으로 아이로니칼(ironical)한 일이긴 하다.

반공의 늪가에서

이 사람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미군정 주도하에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주동이 되어 시발된 창군작업은 날과 더불어 본격화하여 군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1945년 11월 23일 미군정법령에 의한 〈미

군정청 통위부>의 발족을 신호로 군정 3년간에 편제상으로나 병력수에 있어서나 군은 빨리도 비대했다. 1946년 초에 1개 연대편성으로부터 1948년에는 15개 연대편제의 2만의 병력으로 증원되었고 계속해서 병력을 5만으로 확충할 계획이 미군정에 의해 추진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는 것과 함께 통위부는 국방부로 개편되고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트준장 휘하 500명의 미군사고문단의 배치와 군병력 20만 증원계획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수립에 따라 병역법이 제정되어 징병제가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도에는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어 병력확충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리하여 1949년 6월에 이르러 병력은 8개사단(22개연대)으로 급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군확(軍擴)의 역사는 나에게 있어서 승진의 길이기도 했다.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의 눈에 들어 사관학교 교장 직책을 담당하다가 중국에서 늦게 환국한 김홍일(金弘壹)씨에게 교장직을 넘겨주고 나는 제3여단장으로 진출했다. 그후 군의 편제가 더욱 확충되면서 나는 제3사단장으로 승격되고 계급도 원래의 대령을 되찾게 되었다. 이때 나는 대령계급을 찾기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개운해질 수가 없었다. 그것은 군에서 일, 만군 출신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으며 민족주의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계속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에서는 나의 욕구불만이 해소될 수가 없었다. 일본군에서 대좌로 있던 자나 소좌로 있던 자들은 물론이고 일, 만군의 대위 중위를 하던 자들까지도 나보다 빨리 진급하고 높은 직책을 맡아서 거들먹거리는 꼴은 나의 자존심을 심히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도대체 민족을 반역한 이러한 자들이 점점 더 기고만장해서 활보하는 것을 볼때 이러한 군대가 과연 민족정기가 바로 선 군대로서 구실을 하게 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이러한 친일, 민족반역의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군이 아무리 확충된다 할지라도 도무지 기뻐해야 할 일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군확(軍擴)의 역사는 피비린내나는 살벌한 숙군(肅軍)선풍을 동반한 사실을 스쳐버릴 수 없다. 숙군이 나의 심경(心境)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8·15후 한국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것이었다. 찬탁(贊託)과 반탁(反託), 좌우의 대결과 충돌, 미소공위(美蘇共委)의 공전(空転)과 유산, 그리고 마침내 〈단정(単政)〉노선의 강행과 그로 말미암은 정치적 격돌 상황이 악순환하고 있었다.

이처럼 격변하는 정세를 배경으로한 군부에서는 오직 이북과의 대결 감정이 고취되는 분위기 속에서 군확일변도로 나가고 있었다. 군부내에서 좌익이란 공개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단지 북벌을 준비하는 남의 병력증강을 추구하는 저돌적(猪突的)인 자세가 찬양되고 있었다.

하지만 〈단선〉, 〈단정〉수립이 일정에 오르자 군부내에 잠재하던 좌우대결은 마침내 표면화했고 유혈적인 격돌사태를 연출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미소공위가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유산된 후 미군정이 산파역이 되어 남한단독정부를 출현시킨 것은 민족분열의 고착을 의미했고 따라서 민족주의자들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좌익세력도 맹열히 반대해 나섰던 것이다. 지하로 몰리운 좌익세력은 폭동으로 나섰고 적지않은 군인들이 이에 합세했던 것이다.

나는 사관학교 교장 재임시에 5·10단선과 〈대한민국〉수립을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겪었다. 남한에서만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단독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민족의 분열을 고착시키는 것인즉 그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대아메리카를 반대할 형편도 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출현을 지지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좌익세력은 극단적인 행동으로써 단독정부수립에 맞서나섰던 것이다. 이에 미군정이 경찰력과 군사력을 발동하여 전면 탄압에로 나섰다. 폭동과 진압작전은 처절한 숙군에로 직결되었다.

숙군은 처음에 군부내에 침투한 남노당(南労党)원을 적발하여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산당이란 국제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나로서는 숙군이 바로 그러한 이단자들을 적발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숙군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며 〈단정〉반대자들이 다 공산당

으로 몰리워 숙군대상으로 되는 사태를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 민중봉기를 진압하는 작전에 출동하게 된 제14연대 군인들이 1948년 10월 19일 반란을 일으킨 여수 순천 사건을 계기로 반란 진압작전과 숙군작업이 유혈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과연 단선반대는 다 공산당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공산당인가? 나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혹을 풀지 못해 모대겼다.

그런데 대구 6연대내의 반란사건을 거쳐 6사단 제8연대 강, 표 소령의 대대들이 월북사건을 일으켰고 해군 제1함대 〈제이 아이호〉가 월북하는 사태에 이르러 나는 뭐가 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도대체 어느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자로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한 것이냐? 나는 고민했다. 단독정부의 출현이 민족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국제공산당의 지령에 움직이는 공산당과 함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시 내키지 않는 노릇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출현을 환영할 수도, 배척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심리상태로 맞이했으며 숙군선풍을 불안과 우려로써 겪었다.

수많은 장교들이 숙청되고 적지 않은 병력이 진압작전 과정에 희생되었다. 그것은 가차없는 살육이었으며 피의 숙청이었다. 현행사실이 있건 없건 일단 혐의가 걸리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일제시기 좌익운동 경력과 복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이색적인 경향을 가진 인물들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대상들 그리고 이북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다 군적에서 제외되었다. 과거 민족주의자로서 반일운동에 관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어쩌지 못하면서도 위구심을 품고 경계하는 눈치였다.

숙군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 사감(私感)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숙군의 범위가 얼마나 폭넓은 것이었는가는 육사(陸士) 3기생의 80%가 숙군대상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송호성사령관에게도 공산당의 혐의를 들씌우는 판국이었다. 숙군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냈으며 8,000여명의 장병을 군적에서 탈락시켰

던 것이다. 공산당으로 몰아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계급과 직책 면에서 점차 탈락시키는 교묘한 방법도 썼다.

숙군작업은 미 고문관 갓소중령의 명령에 따라 미군 CIC가 직접 관여했으며 정보국장 백선엽(白善燁)소령이 지휘했다. 행동대 선봉은 제 1 연대 정보주임 김창룡(金昌龍)이라는 소위였다.

김창룡은 숙군의 칼자루를 잡고 숱한 장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했다.

그는 본래 함남 영흥(永興)출신으로 일제시기 일본군에 입대하여 관동군에서 특무노릇을 했다. 8·15후 고향으로 돌아와 있다가 경력이 탄로되자 월남도주하여 육사에 입학하고 3기생으로 졸업한후 제 1 연대 정보주임으로 배속되어 1956년 1월 30일 피살될 때까지 10년 동안 방첩대장 특무부대장을 역임하면서 이승만의 총애를 받고 온갖 횡포를 자행했던 것이다. 그의 마수에 걸려 비명에 죽은 원혼(冤魂)이 비단 공산당 연루자들만이 아니고 무고한 사람들, 민족주의적 견해의 소유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숙군선풍은 군부내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에게 어지간히 위축감을 주었다. 군부는 하나의 커다란 반공(反共)의 늪으로 변했던 것이다. 나는 이 반공의 늪가에서 어느 때까지나 서성거리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로버트 미 군사고문단장의 눈에 들어 그의 입김으로 승진의 길에 들어섰던 나로서도 기세좋게 달리던 걸음을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야 공산당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지라 두려울 것이 없지만 어느 코에 걸려들지 방심할 수가 없는 형세였다.

살벌한 숙군분위기는 반공이 아니면 친공으로서 의혹의 눈초리를 돌리는 판이라 어정쩡한 중도 자세는 오히려 거북살스럽기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반공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호신부(護身符)처럼 인식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비겁한 노릇이었지만 나 역시 이 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다. 그 당시의 나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돌이켜 보면서 버트란트 러셀경의 풍자적인 말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다. 〈제 욕심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의 진리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 반공은 이념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한 처세 수단으로 시발된 것이었다.

그런데 반공을 나는 단순한 호신부로서만 이용하였던가? 자기 보존책으로 출발한 나의 반공은 그후 그 이상의 효과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어느덧 반공의 늪에 자신의 발목을 잠그게 되었던 것이다.

제 4 절 현실적 사고

의혹에 모대기며

8·15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후 펼쳐지는 조국현실은 더욱 커다란 당혹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도대체 38도선은 누가 설정했고 왜 우리는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야만 했는가? 무엇때문에 미군과 소련군대가 남북을 분할 점령해야만 했는가? 그것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였다면 일본군이 항복하고 무장해제가 끝났는데도 어째서 군사적인 점령은 계속되었으며 패전국도 아닌데 왜 군정을 실시했는가 말이다. 어떤 이유로 해외풍상을 여러 십년이나 헤쳐오면서 일편단심 반일민족자주독립의 지조를 지켜온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며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자주적 활동도 전면적으로 봉쇄했는가? 그리고서는 끝내 국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채 남과 북에 따로따로 정권이 나오게 한 까닭은 어데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38도선은 어느 때 가서야 깨어지며 민족의 완전 자주독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든것이 의혹투성이었다.

이 모든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으며 나는 그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해 모대겼던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시 이 사람이 도달한 정치적 안목으로서는 착잡하게 엉켜 돌아가는 정세의 진정의 의미를 옳게 해부하고 판단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당시 나의 정치적 시력은 근시(近視)에다 색맹(色盲)이며 난시(乱視)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문제이건 그것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석과 이해,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자신으로서는 민족주의 신봉자라고 하면서도 실지 투철한 민족주의적 이념을 체계화한것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했다. 나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극히 어설픈 것이고 감성적인 단계를 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신념으로서 힘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인지라 민족사 발전방향을 올바르게 투시할 능력이 나에게는 구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당시 정세하에서 나는 어쩔 바를 몰랐으며 민족의 운명을 민족자체의 의지와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정신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기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8·15라는 역사적 사실이 연합국에 의한 일제패망의 결과인 것만큼 미국이 일정기간 군정을 실시하는 것도, 우리의 건국, 건군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해 보려는 생각도 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결국 대세에 편승 내지 타협하려는 비굴한 현실주의적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민족사의 전개과정이 우리 민족의 자율적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율적 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을 수긍하는 태도로 된다.

그래서 미군의 지원하의 건국, 건군 작업에 대한 나의 근본적 입장과 태도가 그토록 석연치 못했던 것이며 그 모든 사태가 과도적 현상으로서 불가피한 것처럼 타협했던 것이다.

만약 그당시 나에게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이 확립되어 있었더라면 한국독립시기에 대해 언급한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카이로선언〉의 문구를 풀이한 하지중장의 주석에 대해서도, 그리고 1946년 5월 번즈국무장관, 패터슨육군장관 실리번 해군성차관 등이 모여서 작성한 〈국무, 육군, 해군 장관회의 각서〉라는 타이틀이 붙은 극비문서에서 당시 남한의 정세교착이 한국인들이 다루기 힘들고 정치적으로 뒤떨어진 데 있다고 한 결론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해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표현들을 투철한 민족

자주정신에 서서 대하지 못했고 미국의 한국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투시하는 입장에 서지 못하다 보니 모든 문제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되며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다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과도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것이다. 다만 풀 수 없는 난제(難題)들만이 겹쌓이는 민족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고민했을 뿐이었다.

미국유학을 가다

1949년 초여름 나는 제 3 사단장 자리를 내놓고 미국유학의 길에 나섰다. 유학이라고 하면 일종의 호사스러운 인상을 줄 수도 있으나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미국유학을 가게 된 데는 몇가지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숙군선풍에 따르는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이다.

내가 사단장직을 맡은 제 3 사단은 처음에 본부를 부산에 두고 있었다. 휘하 5 연대는 장도영(張都暎)연대장 지휘하에 민산에 있었고 오덕준(吳德俊)연대장의 6 연대는 대구에, 그리고 박시창연대장의 16연대는 마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대구폭동사건이래 대구에서는 대낮에도 수류탄 투척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세가 계속 험악했다.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 정현모(鄭顯模)도 경찰국장 조재천(曺在千) 등이 부산의 3 여단(후에 사단으로 승격)본부를 대구로 옮기도록 중앙에 집요한 공작을 편 것이 성공해서 3 여단 본부는 대구로 옮겨 앉게 되었다.

여순 군인 반란사건 이후 진압작전이 벌어지고 반란군 잔류부대가 지리산 깊이 숨어 들어간 무렵 대구 6 연대 관하 포항지구 파견 1 개 중대가 반란을 일으켜 지리산 방향으로 합류를 기도하게 되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산의 5 연대에서 1 개 대대 병력을 부산의 5 연대에서 1 개 대대 병력을 울산—포항 계선으로 진출시켰는데 출동한 부대가 도중에서 트럭 전복사고를 일으켜 적지 않은 사상자들만 내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고는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여순반란사건 때문에 사령관직에서 송호성사령관이 트집을 잡혀 물러난 전례에 미루어 나에게 있어서는 일이 무사하게 넘어가리라는 담보는 없었

다. 나는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사단장 자리에 매달려 있을 생각이 아니었다. 그 누가 나에게 트집을 걸어 사고에 대한 문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매우 괴로웠다. 이것이 미국유학을 떠나게 된 첫째 이유다.

다음으로 김구선생 암살사건에서 노출된 남한정치의 비정함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당분간이라도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김구선생을 암살한 사건은 나를 매우 실망케 했다. 선생은 한평생을 민족의 존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해 바쳐온 노투사이며 애국자가 아닌가! 그분을 해방된 조국땅에서 감히 암살하다니! 그것도 국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역장교가 하수인이었으니 이 아니 통탄할 노릇인가?

김구선생 암살사건으로 받은 충격도 컸고 심사가 극도로 울적해진 나는 미국유학의 기회가 있음을 알고 그 답답한 정치풍토를 잠시라도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유학을 결심하게 된 세번째 이유는 그리 고상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송호성사령관이 실각하고 이범석국방장관이 채병덕을 참모총장으로 기용한 것은 일, 만군 출신들의 기세를 더욱 돋구어 주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불쾌지수만을 높여주었을 뿐이다. 중국에서부터 잘 아는 선배로 생각해온 이범석은 웬일인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될수록 멀리하려는 눈치였다.

과거 항일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군부내에서 일부 경우에는 숙군대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별로 맥을 쓸만한 세력이 되지 못했다. 일, 만군 출신, 그중에서도 만군 출신들이 서로 인맥관계를 형성하여 세력을 뻗치면서 기고만장하는 실정이었다. 자존심이 유린당하는 것을 통절히 실감하면서도 울분을 배출할 데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유학의 기회가 생겼으니 이왕이면 미국의 군사학도 배워 실력과 사회적 권위도 높이고 하느라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겸사 미국구경도 할 것이니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타산한 것도 마음 한구석에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주어진 현실여건에 적응해 나가려는 현실주의적 타산이 미국유학의 동기였다고 자신을 엄하게 반

성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내 나는 유학의 길에 올랐다.

공항에서 선친과 작별하던 장면이 지금도 삼삼히 눈 앞에 떠오른다. 그때의 모습, 그때의 목소리가 나에게는 부친의 마지막 모습이며 마지막 목소리였다.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에 도착한 나는 포트 릴레이(Fort Riley)에 있는 육군종합학교(Army general school)에 최홍희대령과 함께 입학했다.

육군종합학교는 미 육군소위로 임관된 자들을 훈련시키는 최하급의 장교훈련반이었다. 대령계급장으로서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최홍희대령과 나는 스스로 소령계급장을 달고 들어갔다.

최대령은 원래 평양학병사건의 주모자로서 일제관헌에 체포되어 모진 곤욕을 치르고 사형집행을 수일 앞두고 8·15를 맞이하여 살아난 경력자이다.

한번은 종합학교에서 힘자랑하는 판이 벌어졌었다. 키도 크고 몸이 다부진 미국청년 앞에 몸집이 작은 최대령이 나서자 상대방은 물론 관중들도 다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미국청년이 악! 소리를 치며 달려드는 순간 어떻게 했는지 최대령은 그대로 서있고 땅바닥에 나뒹굴어 넘어진 것은 거구(巨軀)의 백인청년이었다. 당시 아직은 태권도(跆拳道)란 말이 나오기 전이라 모두들 〈가라데, 가라데〉(唐手라는 일본말)라고 탄성을 올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유쾌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가던중 한번은 〈밀리타리 스테익크스〉(Military Stakes)라는 훈련과목을 치르게 되었다. 이것은 36개의 역(Rost)을 만들어 놓고 체력훈련과 사격술 그리고 장애물극복 등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편성해서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과목이었다.

나는 장차 하급장교 훈련때 참고로 할 생각으로 직접 실기동작에는 참가하지 않고 매개 역을 따라가면서 견학만 했다.

이 사실이 보고되어 점수는 0점으로 평가되고 학교에서는 퇴학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미군정 때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공비유학생이니만큼 그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 방청만이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요구대로 방청허가가 나와서 나는 전과정을 방청으로 마치었

다.

육군종합학교를 마치고 보병학교에 갔을때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는 원래 이 학교 초등반에 가게 되었는데 최홍희대령이 친숙해진 동급생 미국청년의 초청을 받고 크리스마스때 워싱톤에 있는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부친과 인사하게 되었다.

그의 부친은 육군본부 작전국장인 볼트소장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초등반에 다니기가 좀 창피하다는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로부터 고등반으로 편입알선을 받게 되었다.

이래서 1950년 1월 5일부터 학과가 시작된 고등군사반을 6월 23일에 졸업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짧은 어학 실력으로 강의를 받자니 예습, 복습에 사전과 씨름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달라붙었다. 졸업을 앞두고 〈모너그라프〉(monograph)제도(자신이 경험한 전투경험, 작전경험을 강의식으로 발표하여 배우는 제도임)를 거치게 되었다. 외국유학생들에게는 필수과정이 아니었지만 나는 버마작전에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25분간 발표하였다.

이럭저럭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 세계최강으로 알려진 미국의 군사학까지 배웠으니 군인으로서 이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때 나의 가슴은 막연한 희망에 부풀었고 무엇인가 다시 해보고 싶은 충동으로 설레였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들뜬 기분으로 졸업식을 치르었다. 마침 그 볼트소장이 와서 축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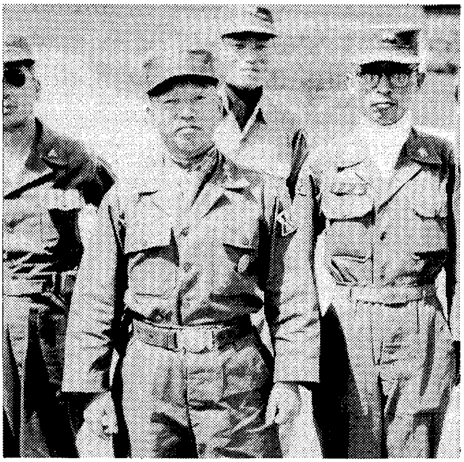
축사 가운데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긴장상태〉라는 낱말이 나오는 것을 겨우 알아들었으나 워낙 영어 발음은 빠른데 나의 영어회화 실력은 짧아서 자세한 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른 미국장교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으나 도저히 눈치로써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때 벌써 한국전선의 긴장상태가 미국군부에서는 상식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졸업식까지 하고나니 나의 유학은 일단 끝난 것이다. 이제 귀국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6월 24일 우리는 귀국여정에 올랐다. 도중 조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워싱톤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고 있는데 우리는 군용비행기를 타서 빨리 귀국해야 되겠다고 미국방성에 교섭하였다. 결과 우리는 7월 12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군용비행기를 타고 도꾜를 거쳐 7월 14일, 조국에 돌아왔다.

제 2 장　　6·25동란과 나


군단장시절의 저자

비행기안에는 우리들을 내놓고 다 미국장교들 뿐이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6·25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군이 한국전선에서 제공권(制空権)과 제해권(制海権)을 장악하고 즉각 전투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일본 큐슈(九州)로부터 스미스부대가 공수되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선발대로 투입되었고 뒤따라 미 24사단이 상륙했다. 주일 미 지상군 무력이 계속 한국전선에 증강되어 있어 전세는 곧 뒤집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미군장교들의 태도는 생사를 겨루는 전투장이 아니라 마치 들사냥이라도 떠나는듯한 들뜬 기분상태였다. 그들은 북한 군사력을 3류, 4류 이하 수준으로 깔보고 있었으며 미군 무력에게 여지없이 격파당하고말 보잘 것 없는 군대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6·25동란이 터진 일요일 저녁에 도꾜에 있는 미극동사령부의 맥아더원수가 〈한쪽 팔은 뒷짐 짚고서도 북한놈들을 혼내줄 수 있다〉고 호통을 쳤다면서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미군장교들의 말을 들으니 이 전쟁은 오래 걸리지 않고 끝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민족적 장래는 어떻게 개척되어야 할 것인가?

판단컨대 남북의 대립관계는 이념상 대립인 관계로 협상따위를 통해서는 융합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힘의 대결로 일방이 타방을 평정하는 과정으로서만 합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싫든 좋든 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최북방의 대전에서 내리겠다고 말했다.

막상 대전에 착륙해 보니 근방에 아군부대가 없었다. 짚차로 달려온 한 미군중령이 왜 여기서 내렸는가고 묻는 것이 아닌가? 육본(陸本)을 찾는다고 하니 어제 대구로 옮겼다는 것과 이 비행장도 곧 포기하고 철수할 형편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들을 내려놓고 다시 이륙하려고 발동을 건 비행기를 향해 급히 신호를 해서 멈추게 하고 다시 탑승해서 오후에 대구서 내릴 수 있었다. 대구비행장 장장(場長)으로 있는 김구선생의 영식(令息) 김신(金信)씨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의 차를 빌려타고 육본에 도착하여 귀국보고를 하고 1선배치를 요청했다. 육본에서 경비대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미고문관을 만났을 때 그는 〈당신은 워커사령관의 특별보좌관으로

가게 된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16일 정일권이 불러서 하는 말이 <3사단 26연대 연대장이 김종원인데 개가 미고문관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니 최형이 가서 연대장을 지도해 주시오>하는 것이었다. 26연대야 직속상관인 이준식사단장이 있는데 그를 제쳐놓고 나에게 위임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명령인지라 어쩔 수 없었다.

김종원연대는 그때 영덕(盈德)북방고지를 빼앗기고 평지의 촌락과 국민학교일대에 진을 치고 고전중이었다.

마침내 나는 동란의 싸움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여 나는 초토화한 거리와 마을들을 지나며 시산혈해(屍山血海)를 이룬 3천리강산을 뛰어 다니게 되었다.

동란을 통해 조국의 산천도 변모했고 인정세태(人情世態)도 퍽 달라졌다. 나의 주변에서도 나의 가족들의 처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 역시 그동안 어깨의 별이 올랐고 한때 판문점 휴전담판회의에 참가하여 화제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심정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었다.

3년과 한달 이틀동안 벌어진 동란은 우리 민족의 삶에 아물 수 없는 상흔(傷痕)을 남겨놓았으니 말이다.

실지 동란 속을 뛰어 다닐 때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새삼스럽게 응시(凝視)하면서 지나간 나날들을 더듬게 되는 것이다.

제 1 절 동란의 와중(渦中)에서

전장에 뛰어들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영덕에 이르러 김종원연대장을 찾아서 전황을 들었다. 형세는 아군에게 불리했으며 매우 위급하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나는 지체없이 1개 대대를 우측 능선으로, 또 다른 1개 대대는 좌측 능선으로 방어진지를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1개 대대는 예비대로 남겨놓았다. 우익을 차지한 대대의 방어진지로 연대장을 대동하여 가서

작전지시를 주고 개활지대를 거쳐 좌익으로 건너가는데 영덕 북방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 부대가 직사포 사격으로 갈겨대는 바람에 땅에 엎디었다가 급보로 달리고 또 엎디었다가 포복전진도 하면서 달리다 보니 뒤따라 달리던 김종원연대장이 우물가에 당도하여 푹 꼬꾸라지면서 졸도하고 말았다. 알고보니 지병인 당뇨병때문에 차를 타고 지휘만 해온 그가 상관인 이 사람을 따라 뛰지 않을 수 없는 정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찬물을 끼얹고 주물러 주고 하니 겨우 피어났다.

이러는 사이에 형세는 완전히 기울어져 북한군의 압력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연대병력은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부대를 수습하여 강구(江口)까지 후퇴해서 겨우 숨을 돌려 방어진을 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는 동란의 전장에 뛰어들자마자 패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떻게 되어 이렇게 38도선에서부터 37도선에, 그리고 36도선에 이르는 중간지대까지 밀려 내려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전쟁 전 1949년에 미국유학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을 훨씬 압도하는 것이었다. 5만의 경찰무력까지 계산하면 총 15만이 훨씬 넘는 무장인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방대한 병력이 8·15후부터 미군정에 의해 편성, 훈련, 장비되어 왔으며 민국수립 후에는 로버트준장이 인솔하는 500명의 미 군사고문단의 지휘 통제하에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력(戰力)을 높이기 위해 훈련되어 왔다.

한편 1949년도 대한민국 총예산의 100분의 40이 국방비로 할당되었으며 군 장교들이 체계적으로 도미유학과 주일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아왔다. 로버트 고문단장이 한국군을 가리켜 〈무적의 군대〉라고 자랑한 것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미군 당국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국군의 전력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돌려왔던 것이다.

1950년 5월 9일 미 경제협조처 한국부장 요한손이 미 국회하원 세출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미국의 장비로 무장되고 미 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된 한국군은 어느 때든지 전쟁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큰소리친것이라든지 맥아더원수가 한국군을 〈아세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라고 찬양한 것을 상기했을 때 북한의 남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

히 상식밖의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 북한의 남진 가능성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희박한 것이었다. 창군 역사로 보아 국군이 4년이상인 데 비해 북한군은 겨우 2년 남짓한 실정이고 국군은 연합군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벌였던 일본군의 정규군훈련과 실전경험을 소유한 일, 만군 출신 장교들이 기간성원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 북한군은 기껏해야 일부 지휘관들이 유격전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정규군으로서 현대전 경험을 쌓지 못한 형편이다. 쌍방의 배후세력을 대비해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국군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군으로 말하면 풍부한 재정적 토대 위에 원자탄을 비롯한 최신정예무기로 장비하고 있으며 대소전쟁을 수없이 치른 오랜 전쟁역사를 지니고서 2차대전에서도 본토에는 별 피해없이 승리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는 반면에 북한의 뒤에 있는 소련이나 중공은 한반도에서 전란이 일어나는 것을 달가워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2차대전에서 가장 심대한 희생을 치르고 평화적 여건을 갈구하고 있던 소련이나 그리고 오랜 중일전쟁과 내전 끝에 건국한지 겨우 1년도 채 안되는 중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만한 형편이 못되는 여건에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6·25직전까지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이었던 로버트준장이 미국으로 전근해가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은 나의 이러한 관측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북의 전쟁준비설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다. 미국 군사고문단은 한국 군원(軍援)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고문단 전예산에서 17%정도밖에 쓰지 않았다〉고 발언했던 것이다.

아무리 따져봐야 북한의 남진 가능성은 없었는데 6·25동란이 터진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계속 전선은 남으로만 밀리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앞에서 나는 그저 놀랠 따름이었다.

내가 도미하기 전 1949년 6월까지만 해도 제1선에는 서쪽으로부터 옹진(甕津)반도에는 17연대, 개성(開城)에는 1사, 동두천(東豆川)에 7사, 주문진(注文津)에는 8사가, 그리고 서울에 수도사, 원주(原州)에 6사가 진을 치고 있었고 후방에는 대전(大田)에 2사, 대구(大邱)에 3사, 광주(光州)에 5사가 배비되어 있었는데 그 든든한 진지가

어떻게 다 무너졌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의 북벌(北伐)로써 북한을 평정(平定)하는 것으로만 인식해 온터이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 용의주도한 준비를 해왔으며 38도선 일대에서 끊임없이 대소규모의 충돌사건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이 북한평정계획은 미 군정시기부터 불변의 방침이었고 군부내의 상식이었던 것이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후 이승만대통령은 〈북진통일〉, 〈수복실지(収復失地)〉를 고창해왔고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도 북으로 총진격하여 태극기를 백두산에 꽂고 창검을 두만강가에 놓고 휴식하자고 장병들을 고무했던 것이다. 이범석의 후임으로 국방장관이 된 신성모(申性模)도 〈국군의 무장준비는 대단히 좋아서 3일내로 북한을 완전히 평정한다〉고 장담했다. 제1사단장이었던 김석원이 1949년 5월 4일 사단 장병들 앞에서 〈북벌이 시작되면 조반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한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1950년 신년사에서 참모총장 채병덕이 〈북한 병력은 8만에 불과하고 무기도 노후(老朽)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없다. 금후의 국군의 임무는 실제 행동으로 실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북벌기운이 절정에 달함을 의미했다.

북벌이란 말로만 외치는 선전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목표였다. 1949년 2월 15일 〈이북 5도청〉을 설치하고 각 도지사들을 임명한 사실은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요란스럽던 북벌목표는 어데다 내버리고 그렇듯 충천하던 북한 평정의 사기는 어디로 가고 말았는지 대통령도, 정부도 도망치고 국군도 이렇게 패주하고 있으니 이 아니 개탄할 노릇이 아닌가 말이다.

강구 일대에서 2 6연대가 대오를 수습하고 적아간의 전투가 소강(小康)상태에 들어섰을 때 나는 김홍일군단장이 거느리는 제1군단 참모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래서 결국 워커 8군사령관의 특별보좌관 이야기는 유산되고 말았다. 만군출신 세력이 항일경력을 지닌 중국군 출신인 나를 그런 자리에 두어서는 속이 편안할리 만무했다.

그런데 8·15전까지만 해도 만군대위에 지나지 않았던 정일권따위

가 어떻게 되어 참모총장이 되었는가?

전쟁이 개시된지 며칠 안되는 6월 29일 맥아더원수는 일본에서 수원(水原)에로 날아왔다. 38도선에서 싸움이 시작되자 궤멸당하고 한강 이남으로 패주하는 국군패잔병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군 전체보다 뉴욕 경관 100명으로 싸우는 편이 낫다〉고 떠벌이기를 주저하지 않은 쳐치준장이 맥아더원수에게 브리핑하면서 한국 육군병력이 며칠동안에 북한군에 격파당하여 4분의 1인 2만 5천명으로 줄어든 사실을 지적했다. 맥아더원수는 참모총장 채병덕에게 사후대책에 대해서 따졌다. 그는 만족할만한 대답을 못했다. 맥아더원수는 이승만박사에게 〈한국은 새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8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정일권이가 채병덕을 대신하여 육해공군 총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이라는 편제에도 없는 직책에 임명된 것이다. 이래서 군부내 파벌간의 계보(系譜)는 일군출신세력에 비해 만군출신세력에게 유리하게 편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정일권에 의해서 워커사령관 특별보좌관자리대신 1군단 참모장으로 돌려진 나는 안동(安東)에 있는 군단본부로 부임했다. 1군단에는 김홍일군단장 영솔하에 수도사단(사단장 김석원)과 8사단(사단장 이정일)이 망라되어 있었다. 김홍일소장은 38도선 일대에서 패주하는 1사, 7사, 수도사 패잔장병들을 수습해서 1군단을 꾸렸던 것이다. 이때 군단에는 수도사단과 강릉(江陵)에서 철수한 8사단이 배속되게 되었다.

나는 바로 이러한 군단의 참모장이라는 직책으로 6·25동란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은근히 군공을 세울 기대를 가슴에 품고서 나는 새로운 직책에 착수했다.

부산까지 쫓기우다

1군단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나는 김홍일군단장과의 관계가 좋았고 호흡이 맞았다고 기억된다. 군단장과 그리고 다른 참모장교들을 통해서 나는 개전이래의 전투정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여러 군인들의 체험담을 듣고 보니 국군이 궤멸당하고 패주해온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북한군의 전투력은 상상외로 강했고 반면에 아군의 전투력은 너무도 취약했던 것이다. 지휘관능력에도 문제가 컸었고 사

병들의 전투의욕이란 도무지 말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워낙 목숨걸고 전쟁에 참가할 목적이 명백치 않았고 따라서 상하의 단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건 또한 지휘관의 대부분은 과거의 일본군, 만군의 하급장교출신자들이었다는 데도 원인이 있었다. 그런 친일분자들의 지휘에 사병들이 복종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군의 맹렬한 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와해되었으며 심지어 소대장, 중대장 등 초급지휘관들을 등뒤에서 사살하고 뿔뿔이 도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대오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석권하는 북한군에 쫓기워 도망해온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군대의 전투력을 생각할 때 물론 물자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는 미군의 대부대투입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군부는 미군이 보복해줄 것을 하늘처럼 믿고 있었다. 그런데 형세를 보니 미군부대도 우리 국군의 운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6·25의 신호와 함께 미 해, 공군의 출동으로 시작한 미군참전은 주일 미 지상군의 투입으로 본격화했다. 맥아더원수는 미 제24사단, 제25사단, 제1기갑사단 등에 발동을 걸어 육속 한국전선에 투입했다. 이것들이 워커중장이 사령관으로 된 주한 미8군을 이루었다.

선진(先陣)으로 파견된 것은 〈스미스특공대〉(Task Force Smith)였다. 일본 큐슈 캠프 우두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 제21연대 1대대장 스미스중령은 44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부산을 거쳐 대전에 도착했다. 특공대에 부과된 임무는 딘소장이 이끄는 제24사단이 도착할 때까지 남진하는 북한군무력을 최대한 저지시켜 남진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스미스중령은 대전 북방 80킬로미터지점에 있는 수원비행장 남쪽 오산(烏山)북쪽 5킬로미터 지역에서 남진하는 북한군부대를 요격 저지할 작전구상을 세웠다. 접전이 시작되자 〈스미스특공대〉는 와해당했다. 440명의 특공대는 겨우 80여명의 패잔병이 평택(平沢)에 진을 치고 있는 제34연대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택도 지탱할 수 없었다. 평택과 천안(天安) 사이의 도로는 도망치는 미군의 내버려진 장비들로 뒤덮혔다.

딘사단장은 별반 싸움다운 싸움도 하지 못하고 천안 남쪽 20킬로미

터까지 도주한 34연대장을 교체시켰지만 사태를 호전시킬 수 없었다. 며칠 안있어 그 자신이 포로가 될줄은 그때 상상도 못했으리라.

대전전투에서 딘소장은 사단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방도조차 없었다. 전 사단이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었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궤멸당했다. 전투는 참혹한 비극으로 끝났다. 전선을 휩쓰는 북한군의 위력 앞에서 넋이 나간 딘소장은 졸병차림으로 도망치던 도중 포로가 되었다. 때는 바로 7월 25일이었다. 내가 한국전선에 뛰어든지 열흘이 지난 뒤에 벌어진 사태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이 북한군의 남진을 멈춰 세우지 못한 것이다.

북한군의 전법은 2,500년 전에 출현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절세의 병성(兵聖)으로 공인된 손자(孫子)의 병법(兵法)을 비롯하여 동서고금의 이름난 그 어떤 군사학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비상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왜 그런고 하니 미군의 군사학은 가장 현대적인 각종 우수한 전법들이 적용된 2차대전을 거쳐 더욱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의 전법을 당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손자는 적의 〈실한 데를 피하고 허한 데를 공격하라〉(避実擊虚)고 했지만 북한군은 대전의 강력한 미군 사단무력을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으로, 전혀 뜻할 수 없었던 시간에 포위하고 미군의 〈허를 치고 실을 깨뜨려〉(擊虚破実)버렸던 것이다. 〈적을 포위하되 반드시 탈로(脱路)를 열어주고 추격하라〉(圍師必闕)고 한 손자의 병법을 북한군은 미군을 포위하여 치면서 탈주로의 길목을 지켜 도망치는 족족 섬멸하는 전법으로 확대했다.

미군이 이처럼 대파되는 형편인즉 그 미군에 의해 편성, 훈련되고 미군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군이 여지없이 격파되어 패주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만하다.

이래서 1950년의 무더운 한여름은 포연 자욱한 한반도위에서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남으로, 남으로 유동하는 계절이었다.

이 무렵 1군단은 안동 철수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군단에 속한 8사단은 병력과 장비에서 별로 큰 손실없이 비교적 전투력을 보존한채 후퇴했고 사단장 이성가는 나와는 원만한 관계인지라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군 대좌였던 김석원이 지휘하는 수도사단은 매사에 말썽거리였다. 김석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철두철미 일본 〈사무라이〉식이었다. 일본도(日本刀)를 휘두르면서 〈내가 여기 있다! 돌격!〉만 고함치면서 〈후퇴하면 총살이다!〉라고 사병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대는 것이었다. 〈사무라이〉류의 용병술(用兵術) 밖에 모르고 현대전에 대처할만한 능력은 통 없으면서도 군부의 원로(元老)로 자처하는 자였다.

하루는 군단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안동 거리마다에 〈김석원장군이 있는 한 안동은 안전하다〉고 쓴 벽보가 도처에 나붙어 있는 것을 보고 군단 정훈장교들이 이것이 될말인가고 하면서 문제삼아야 한다고 흥분해서 야단들 치는 것을 나는 어차피 안동도 내주게 될 형편에서 웃음거리로 될 것밖에 없으니 내버려두라고 그들을 진정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형세는 시시각각으로 불리해져 미 8군사령부에서는 헬리콥터로 작전명령을 공중투하하여 하달해 왔는데 그 내용인즉 바로 이날 야간을 이용하여 안동을 철수하여 다음날 해뜨기전에 낙동강 남안에 방어진을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영어로 된 작전명령을 번역하느라, 그리고 스케일이 맞지 않는 작전지도를 우리 군단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맞추느라 참모진을 동원하여 밤 늦게까지 작업해서 작전지시를 예하 사단들에 하달했다. 그런데 그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때의 작전내용은 8사단이 먼저 철수하여 안동 남쪽 다리를 건너 낙동강 남안기슭에 방어진을 칠 때까지 수도사단이 그를 엄호해 주고 다음 수도사단의 철수를 8사단이 엄호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8사단이 철수하는 데 수도사단의 엄호가 없어 8사단이 많은 손실을 입으면서 하는 수 없이 자체로 엄호하면서 후퇴해야만 했다. 수도사단의 행방은 알길조차 없었다.

소식없던 수도사단은 며칠후에야 찾았는데 그들은 명령도 어기고 연락조차 없이 엄호임무를 포기하고 먼저 슬그머니 도망친 것이었다. 그렇게도 용감무쌍한듯이 허세를 부리던 김석원의 비열한 행동이었다. 군단 참모장교들이 격분해서 군율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지만 나는 다만 전훈(戰訓)으로 예하 부대에 시달하여 교훈삼게 하는 데 그

쳤다.

안동을 내주고 군단본부는 경주(慶州)에 자리잡고 8사단은 자천(慈川), 의성(義城)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이성가사단장이 그 동안의 전투로 심히 피로해서 요양을 하게 되자 군단장은 나에게 8사단을 인수하라고 명령했다. 8사단을 맡은 나는 이성가사단장의 참모진을 고스란히 눌러 앉혔다. 그렇게 10여일 동안 자천계선에서 낮에는 공격명령에 따라 비행기엄호하에 반격하느라고 잠을 못자고 비행기가 없는 밤에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느라고 잠을 못자 사병은 극도로 피로했다. 그러던 어느날 김홍일군단장으로부터 이성가에게 다시 사단을 인계하고 경주로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사단을 넘겨주고 경주에 이르니 김홍일군단장이 하는 말인즉 신성모와 정일권이 찾아와서 모모 정객들이 이승만대통령에게 북한으로 간 최동오의 아들을 사단장을 시키다니 될말인가고 해서 이박사가 파면시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을 알수 없었으나 아무말 없이 대구의 육본으로 갔다. 정일권은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정이 그리 되었으니 당분간 대기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자는 것이었다.

얼마동안 대기하고 있으려니 전선형편은 더욱 악화되어 미군도, 국군도 부산을 둘러싼 협소한 지역에 극도로 압박을 받고 밀려 들었다.

사태는 절망적이었다.

부산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으며 제가끔 살구멍을 찾아 갈팡질팡했다. 고급장교들, 고위급 인사들과 부호들이 밀선(密船)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치느라고 법석이었다. 그러다가 수색에 걸려 포병사령관이던 장모를 비롯해서 몇명은 사형 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미군 고위층을 배경으로 줄을 놓아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처지야말로 한심스러웠다. 부친이 월북했다는 말은 무엇인지? 나머지 가족들은 어찌 되었는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직책도 없이 어떤 운명이 차례질 것인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나는 울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 망명생활 끝에 8·15를 맞아 감격과 희망에 넘쳐 환국할 때 첫발을 딛은 부산에 다시 쫓겨 왔으니 운명의 희롱이 아닌지 어처구니없었다.

대통령의 차중서한(車中書翰)

38도선이 깨지고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육박해 올 때 방송으로 〈서울 사수!〉를 고함치던 이승만대통령은 서울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남으로 피신했다.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는 대통령은 아주 비참했다. 뒤늦게 서울을 탈출한 주한미대사 무쵸는 이승만대통령을 찾아 뒤좇았다. 대전에 이르러서야 대사는 절망에 빠진 이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무쵸대사로서는 이 전쟁이 〈암암리에 미국인에게 넘겨지는 동안 대한민국정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전쟁을 수행하는 견인자로서의 이승만정권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것은 만약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면 이 전쟁에서 〈미국의 정당성〉을 주장할 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를 〈버렸다〉고 불평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는 이대통령을 얼리고 달래면서 무쵸는 전쟁을 수행하는데서 미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냈다. 즉 이승만대통령이나 그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전쟁의 운명을 미 군사전문가들에게 내맡기게 한 것이다.

물론 한국군은 미군정 때부터 사실상 미군에 종속되어 왔고 민국수립 후에는 그것이 몇개의 협정체결로 명문화되었다.

1948년 8월에 체결된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방군을 조직 훈련 장비할 권리를 계속 보유〉하며 〈미군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다고 한 것은 그 예로 된다.

그런데 전쟁마당에서는 더욱 더 무제한한 권력행사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런데로부터 무쵸는 전쟁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전권을 미군측에 넘기도록 이승만에게 요구한 것인데 이대통령도 마침 그것을 바라는 바였던 것이다.

그래서 1950년 7월 15일 남행하는 차안에서 이승만은 맥아더원수 앞으로 서한을 보내여 〈……나는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러한 지휘권은 한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 있어서 귀하 및 귀하가 위임한 기타 사령관에 의해 행사된다〉고 하고 7월 18일 맥아더원수는 회답서한에서 〈용감무쌍한 대한민

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확인함으로써 한국 육해 공군의 일체 지휘권은 미군사령관에게 완전히 이양되게 된 것이다.

이래서 한국군은 미군의 종속물로 되었으며 전쟁은 사실상 미군에 의해서 추진되게 되었다.

군의 이러한 종속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면 정일권이 <육해공군 총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요란스러운 직함을 자랑해도 그는 오직 워커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전령병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이 사람을 사관학교 교장으로 지명한것도 미 군사고문단장이었고 안동 철수작전을 지시한 것도 미 8군사령부였다. 제11사단장으로서 호남지방을 토벌하라는 작전임무도 미 9군단 휘하부대로서 받은 것이며 나를 군단장으로 인준할 때 나를 정치장군이라는 이유로 1선이 아니라 후방 군단장으로 돌려놓았던 것도 미 8군사령부였다.

이렇게 나 자신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군의 인사권과 작전지휘권이 다 미국장군에게 쥐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수보급 역시 미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포탄공급 한가지만 해도 항상 국군은 미군보다 훨씬 적게 공급되었다. 그래서 북한군의 압력을 미군보다 더 받으면서도 미군보다 적은 화력으로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과정에서 국군사병들이 미군의 포화력지원이 미치는 구역으로 도망치는 사실을 자주 체험했던 것이다.

군의 통수체제가 이처럼 철두철미 미군에 장악되고 있는데 대해서 그 당시에는 나 자신부터가 별로 기이하게 느끼지를 못했다. 전쟁의 운명을 미군에게 내맡기고 있는 실정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정상인듯이 인정하고 지냈던 것이었다.

사실상 그 당시로서는 북한군을 이겨야하는데 그러자면 미군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했고 따라서 미군이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것은 작전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통령이 피난길의 차중에서 맥아더원수 앞으로 써보낸 편지거래로서 성립된 군의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이 장차 민족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데 대해서 미처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전쟁을 이유로 한 이 통수권이양협정이 어처구니없게도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되는 오늘까지 그 법적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때 누가 예견이나 할 수 있었던가!

오늘 세계에서 자국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이러한 한국군을 가리켜 미국사람들 자신이 〈와치 독〉(watch dog 번견)이니 〈용병〉(傭兵)이니 하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바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국군에 복무하는 것이 아무리 주관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미국에 의해 편성 훈련 유지되고 미국 장성의 통수권하에서 움직이는 한국군의 좌표는 미국의 국익추구 범위를 벗어나서는 결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며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추구는 한국민의 탈민족주의(脫民族主義)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지난 전쟁시기를 돌이켜 보면 이대통령의 차중서한 한장으로 나 자신도 미국의 값싼 〈용병〉, 〈번견〉이 되어 뛰어다닌 셈이다.

〈뉴 코리아〉작전

일본에 있는 미군무력에서 한두개 사단만 출동시켜도 그리 힘들이지 않고 북한군을 소멸하고 북한 전역을 손쉽게 평정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 미국은 암초에 부딪쳤다. 그 동안 해, 공군 무력의 참전에 뒷이어 한국전선에는 24사단, 25사단, 제1기갑사단, 2사단, 해병 제1사단 등 미군대병력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 남단 한구석 협소한 지역으로 압축봉쇄당하는 형편이 되었다.

전세(戰勢)가 극도로 불리해지자 미군과 한국군 무력은 통털어 부산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낙동강계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려고 포화력을 쏟아 붓고 항공폭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했다. 낙동강 일대에서는 미군이 퍼부은 방대한 폭탄과 포탄으로 강물도 끓어번지고 온 땅이 녹아 흐를 지경이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대항하면서도 북한군의 압력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내다본 도꾜의 맥아더사령부에서는 주한 미 8군사령관 워커중장에게 사

태가 더욱 엄중해질 경우에 대처해서 주한 미군의 일본으로의 철수계획을 준비하게 하는 극비지시를 하달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요인들과 군경 기타 인원들을 36만명 정도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 이전시킬 극비계획을 아울러 준비시켰다.

〈뉴 코리아〉작전이라고 불리운 이 극비계획은 한국정부측에는 시행단계직전까지는 철저히 기밀봉쇄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 비밀이 미리 누설되면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극도로 봉쇄된 이 기밀도 일부 미군고문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극히 국한된 한국군 고위장성 몇명은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계획의 상세한 전모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비슷한 윤곽은 어렴풋이 나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그치긴 했으나 세월이 많이 흘러간 뒤에 백일하에 드러난 미국 비밀문서들에 의하면 〈뉴 코리아〉작전으로 불리웠던 한국 요인들의 철수계획은 당시에 짐작했던 것보다는 몇갑절이나 큰 규모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랬던 것이다.

미 국무성이 공개한 〈미국 외교관계 문서철, 1951년 한국과 중공〉이란 비밀문서에 의하면 1951년 초에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지자 미군무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 코리아〉작전계획은 1951년 7월 6일부 합참(合参)이 보낸 회답형식으로 1951년 8월 30일 미 극동군사령관 릿지웨이대장이 워싱톤 DC의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철수계획 내용으로 상세히 밝혀져있다. 이 계획의 철수인원은 한국정부 관리, 육해공군 현역군인들, 한국군 군속과 경찰인원들, 미 8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들, 공직자들의 직계가족들 기타 종교지도자들과 그 가족들, 전문직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 총합계 155만 7,355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철수대상으로서는 일본도 논의되었다가 태평양상의 도서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최종적으로는 적도이남에 있는 서부사모아군도(群島)의 사바이와 우폴루섬이 내정되었던 것이다. 이 섬들의 기후풍토와 기타 입지조건들이 철수계획 인원수가 능히 자활(自活)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영원히 손을 떼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한반도에서 북한군의 강력한 공세 앞에 좌절된 형편에서 장차 기회를 마련해서 권토중래(捲土重來)할 타산밑에 그 명분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고 해석되는 바이다.

어쨌든 전쟁 첫 단계에 있어서 미군이 심대한 군사적 패배를 당하고서 북한군을 타승한다는 것이 처음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도무지 전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군 당국이 통감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후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전면적 북벌작전도 실패로 그친 데로부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구상을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이 〈뉴 코리아〉작전계획이 현실화되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기막힐 지경이다.

미국은 자국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는 타민족에게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라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비밀계획을 정확히 몰랐거니와 예측할 수 없는 전쟁추이에 그저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열강들에 의해 농락되는 근원을 투시할 수 없었던 나는 다만 약소민족의 설음을 반추(反芻)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제 2 절 토벌대장이 되다

〈견벽청야〉(堅壁清野)의 전술

북한 인민군의 맹렬한 공세로 미군과 한국군은 부산 일대의 좁은 지역으로 몰리웠다. 미군의 군사기술적인 우세, 즉 굉장한 포화력과 항공에 의한 맹폭격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계선의 포위환은 더욱 조여들었으며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었다.

맥아더사령부의 인천상륙작전이 벌어지면서 비로소 전선형편은 풀리기 시작했다. 보급로가 차단되고 포위될 위험에 빠진 북한 인민군은 철수작전에로 전환했다. 후퇴하는 인민군을 쫓아 전 전선에 걸쳐 반격전이 벌어졌다. 군부내에서는 군공을 세울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제가

끔 선봉대장을 맡으려는 경쟁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정일권의 고급부관인 나는 그 직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항일경력자들을 뒷전에 돌리고 한직에 묻어 두는 데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도 1선 지휘관직책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북상하는 1선 지휘관에는 반일운동과 항일전에 참가한 경력자는 이래저래 빠져 버리고 말았다. 김홍일, 이준석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났다.(김홍일씨경우의 구실은 그가 이제 너무 늙어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지도도 잘 못본다. 그러니 젊은 사람과 교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미군고문단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거듭 요구한 뒤에 마감에 차례진 것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간판뿐인 제11사단장의 직책이었다. 11사단은 후방병원들에서 치료하고 있던 장교들을 긁어 모아 지휘관들로 채우고 지방 병사국에서 징모한 신병들로 충원했다. 제11사단은 미 9군단장 쿼터중장 휘하에 배속되었다. 쿼터는 나에게 호남일대의 유격대를 소탕할 데 대한 토벌임무를 주는 것이었다.

나는 11사단을 제일가는 사단으로 꾸릴 것을 결심하였다. 그것은 나를 2류 사단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자들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고 또 직업군인 의식에서 출발한 야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격과 행군에 중점을 둔 부대훈련에 정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한편 당면한 작전명령 수행을 전혀 무시했다가는 어떤 추궁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라 호남일대의 유격대 소탕작전도 추진해야만 했다.

원래 호남지방은 멀리는 동학(東学)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일제시기에는 광주학생운동의 진원(震源)이기도 한 고장이며 가깝게는 여순군인반란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지대이다. 6·25동란이 일어난 후 남진하는 북한 인민군부대가 호남일대를 석권한 터인지라 역사적으로 저항의식이 강했던 이 지대 주민들속에서 좌익세력이 활성화하게 된 것도 능히 이해되는 추세인 것이다. 북한군이 후퇴하고 유엔군이 반격에로 넘어간 지금 이러한 좌익세력이 산악지대에 의지해서 유격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이들의 역량은 대체로 4～5만 정도로 추산되었다.

토벌작전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견벽청야>의 전술을 내걸었다. 그것은 민첩하게 이동하면서 출몰하는 유격대를 따라 한정없는 추격전을 벌이다가는 토벌군에게 피로만 쌓게 할 뿐아니라 오히려 유격대의 유인매복전에 걸려 아군의 피해가 전과(戦果)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거점들을 근거지로 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점차 주변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피아(彼我)의 접전을 될수록 피하고 부대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심 유격대로 들어간 원주민 청년들이 희생없이 귀가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되기를 바랐다. 토벌대나 유격대나 결국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받들고 나아갈 청년들인데 무엇때문에 서로 맞서 유혈참극을 벌이겠는가. 그래서 나는 사단의 전투력 강화에 내실(内実)을 기하고저 사격과 행군을 기본으로 한 훈련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의 정신상태는 매우 착잡했다. 인간으로서 나 최덕신의 성품은 추(醜)한 면과 함께 인간성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이중 어떤 측면이 더 강하게 표출되었겠는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믿고 있던 사실은 군사의 최고가치가 유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이 전쟁에서 한 동포들끼리 서로 죽일내기를 한다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도 전쟁에서 자신의 군사지식을 발휘하여 무공을 세워보자고도 생각했으니 이 최덕신이라는 하나의 인간속에는 모순된 두가지 생각이 병존해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배속된 대전차(対戦車) 대대장인 젊은 장교가 사단장실에 찾아 들어와서 느닷없이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잔뜩 찌프린 낯에는 억제할 수 없는 살기와 흥분이 발산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살피고 나서 조용히 물었다. <꼭 휴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지. 그러나 무슨 연고인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없겠는지?>

한동안 망설이다가 내뱉듯이 털어놓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사연인즉 그의 고향에서 인민군대의 진격후 마을사람들의 손에 가족중에서 희생이 났다는 것이다. 좌우 충돌이 격심했던 당시에 흔히 있을 수 있

는 비극의 한토막이었다. 좌익이라고 죽이고 반대로 우익반동이라고 살인하여 한마을안에서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정세변화에 따라 이래 복수하고 다시 저래 복수하고 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복수관계가 악순환하여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된 것이다.

이 젊은 장교의 경우도 국군장교의 가족이라 해서 희생된 것인지 어떤지 똑똑치는 않으나 아뭏든 가족이 희생된 소식을 듣고 피의 복수를 결행하자는 심산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귀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휴가도 좋고, 복수심이 나는 것도 인정상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큰 안목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자! 귀관이 이제 가서 기어이 피를 보겠는가? 그렇게 되면 당장 분풀이는 될지언정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원수관계는 계속 파생될 것이 아닌가! 그들도 한마을 사람이고 족보를 따지면 이럭저럭 친척관계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한마을에서 살아가야 할 처지에 서로 원한을 누적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일시적 감정으로는 후련하겠지만 귀관 자신의 마음인들 편할 수 있는가? 특히 귀관은 장차 큰 목표를 내다보고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시적 감정에 포로되어 장래를 그르칠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을 해야 하겠는가? 나는 귀관이 깊이 생각하고 처신하기를 부탁하오!〉

이렇게 설복하는 나의 말에 그는 묵묵 부답이었다. 어쨌든 집에 가보겠다고 하면서 그는 떠났다.

나는 내가 한 말에 그가 납득을 했는지 자신이 없었다. 노기와 고통스러운 표정 그대로 뛰쳐나간 그가 고향에 가서 그 어떤 사태를 빚어낼지 저으기 걱정스러웠다. 살기를 풍기고 떠났던 그는 얼마후 귀대했으며 고향에 별일없이 다녀왔다고 보고하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기 직책과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당시 하루에도 별별일이 속출하는 전시환경인지라 그의 문제를 오래 계속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어느덧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퍽 후일의 이야기다.

오랜 해외근무에서 귀국한 나는 우연한 기회에 왕년의 그 젊은 장교와 재회한 일이 있다. 그 때는 이미 그가 나의 부하였던 젊은 위관급

장교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감당하는 소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과거사를 회상하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술회하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복수의 일념만이 머리속에 꽉 차 있던 나에게 사단장님의 충고가 들어올 까닭이 있읍니까? 휴가를 승인하자 나는 곧장 고향으로 달려 갔지요. 가면서 나는 어떻게 돼서인지 사단장님의 충고를 되새겨 볼 여유가 생겼지요.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고향에 다달았을 때 아닌게아니라 분위기가 뒤숭숭했지요. 다들 나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었읍니다.

이미 냉정을 되찾은 나는 아무런 내색도 안하고 가사를 처리해 나갔읍니다. 마침내 나는 관계자들을 불러 과거사를 물로 흘러 보내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떠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울고불고 한바탕 했지요…….

나는 답답한 심정으로 부대로 돌아오면서 민족이 겪는 불행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읍니다.

그 때 만약 사단장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경거망동(輕擧妄動)했더라면 이 양○직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지 모를 일입니다〉

나는 옛날 상관으로 불러주는 그의 회고담을 흐뭇한 기분으로 들었으며 깊이 감동되었던 것이다. 나는 온후하고 사려깊은 의젓한 한 남자를 홀린듯이 오래 바라보았다.

이것은 불쾌지수만 치달아오르던 전시에 있었던 한 비극적 사건의 후일담이다.

거창(居昌)사건과 나의 입장

사람의 한생에는 특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게 마련이다. 추억이란 아름답고 감미로울수도 있고 또는 비감적이거나 숭엄한 것일수도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잊을 수 없으며 또 잊어서는 안될 괴롭고 안타까운 악몽(惡夢)같은 추억이 있다. 그것은 한때 세론을 분분케 했던 거창(居昌)양민학살에 얽힌 추억이다.

그 거창사건은 바로 이 사람이 토벌대장으로 남원(南原)에 사령부를 두고 있을 때 예하부대에서 저지른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끔찍스러

운 집단살인 범죄사건이다.

반격전을 벌이며 북상하는 미 9군단에 배속되어 따라갔던 9연대가 다시 11사단에 복귀하면서 연대본부를 진주(晋州)에 두고 경상남도 서부 산악지대를 관할하게 되었다.

1950년 12월 5일 새벽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神院面)일대에 유격대가 출몰하면서 경찰지서(支署)가 습격을 당하고 30여명의 경관이 살상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경남 계엄사령부의 요청으로 내가 지휘하는 제11사단(화랑부대) 제9연대 3대대장 한동석(韓東錫) 소령이하 약 800명의 병력을 거창군에 주둔케 했다.

거창군에서는 국민회 청년단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군(軍)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각 면마다 조직하고 그 위원회들을 통해 집집마다 4~5차례에 걸쳐 군내에서 쌀 600석 가량을 걷어 바쳤다. 장작도 각 면에 할당하여 300여평이나 읍에 쌓아 놓고 무우, 고추, 김치, 간장, 된장, 마늘 같은 부식물도 약 900만원어치를 거출해서 진상했으며 엽연초(葉煙草)매상자 미곡매상자들로부터 희사금이란 명목으로 적지않은 돈을 긁어내어 바쳤다.

그런데 주둔부대는 〈작전상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북상면(北上面)의 1,200여호 인가를 불살라 버리고 그 불사른 집에서 나온 농우를 마구 잡아 먹고 백미를 군인들이 두 대의 화물자동차로 시장에 실어내다가 팔아 먹었다.

이렇게 극심한 민폐(民弊)를 끼치고 행패질을 한 것은 그래도 약과였다. 3대대의 일부는 1951년 2월 10일 신원면에 진주하여 대현(大峴) 와룡(臥龍) 중유(中楡) 등 6개 부락의 주민들이 〈유격대와 내통했다〉는 경찰보고가 있다고 700여호의 민가를 몽땅 불살라 버리고 마을 청년 109명을 색출하여 성탐(成呑)골짜기로 끌고가서 3명만 남기고 기관총으로 학살했다.

이러고도 성차지 않아 6개 부락에 남아있던 주민 1,000여명을 신원국민학교 마당에 몰아넣고 주둔군의 장교 몇명과 신원지서 주임과 거창경찰서 사찰계형사 등이 그중에서 군 경 및 공무원 가족들 약 500명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율원(栗院)국민학교에

수용했다가 박산(朴山)골짜기로 끌고가서 2개 중대 병력으로 2시간에 걸쳐 사격하여 몰살시켰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휘발유를 뿌려 태운 다음 옆에 서있던 산을 폭파시켜 묻어 버렸던 것이다. 그들중에는 70세의 늙은이들, 3～4세의 어린이들까지 끼어 있었다. 실로 귀축도 곡할 끔찍한 참변이었다.

이상 사실은 후에 알게 된 것이고 그 당시는 다만 출몰하는 유격대를 토벌한 전과로서만 사단본부에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이 경남 경찰국장으로부터 내무부장관 조병옥에게 공식 보고되어 마침내 정치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1951년 3월 30일 국회에서는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단이 거창으로 출발했다. 한편 행정부에서도 국회와 합동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대령을 국방부장관 특명조사관으로, 치안국 경무관 장영복(張永福)을 내무부장관 특명조사관으로 하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거창으로 보냈다.

그런데 김종원은 조사관으로 나올 때 벌써 국방부장관 신성모와 모의했고 또 9연대장 오익경(吳益慶)대령으로부터 간청을 받아 사건을 최소한의 범위로 무마시키려는 계략을 꾸몄던 것이다.

김종원은 국군사병들을 유격대로 가장시켜 미리 거창군 남상면과 신원면 사이의 험한 산정에 매복시켜 놓았다가 조사단의 차가 나타나면 그 주변에 따발총을 난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꿍꿍이속을 모른 국회의원들은 매복지점에 이르자 총탄이 날아오는 바람에 파랗게 질려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우성쳤다. 김종원은 유격대가 나타났으니 더는 전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원면 현지로 갈 것을 일단 단념하고 거창서(居昌署)로 차를 되돌려 세웠다.

조사단일행은 불의습격을 받은 황망한 정신상태로 거창경찰서에서 증인을 불러 조사를 끝내고 말았다.

이때 거창서 사찰주임 유봉순(兪鳳淳)은 약삭빨랐다. 그는 조사단원들이 만날 증인들을 사촉해서 〈부락민 200여명이 사살되었으나 모두 유격대와 내통한 자들이었고 그중에는 늙은이와 어린것들이 없었다〉고 허위진술하게 했던 것이다.

나는 사단장으로서 휘하 법무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태를 조사케 하였더니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서를 제기해 왔다.

①신원면 일대의 각 부락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적정에 대하여 함구(緘口)할 뿐아니라 식사 기타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비참한 민족사를 연출했음

②적성분자라고 대거 학살한 주민들중에는 적성분자도 간혹 있거니와 대부분이 양민이며 심지어 경찰관가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무차별적인 사격에 주민들은 무한한 공포심을 품고 있으며 군에 대한 신뢰가 전무한 현상임

③신원면지구 주둔부대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대단히 나쁘며 특히 부녀자에 대한 강간사건 및 주민에 대한 물품강요 강탈 등 심지어는 주민의 소유재산을 약탈하여 주민에게 오히려 강매하는 처사 등에 대하여 국민은 격분하고 있는 현상임

④1951년 3월 10일경 신원면 고정리(菰亭里) 및 대현리에서 사살한 주민의 시체를 제9연대 한소령은 부하 100여명을 출동시켜 그중 약 40명은 고지에 은밀히 배치하여 지방인의 출입을 엄계케 하고 약 100명정도의 인원으로써 현지에 방치된 양민의 시체를 현지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계곡에 가져다 은밀히 암장하였음

이 작업도중 국회의원과 지방유지 등이 현지를 시찰코자 한 바 현지에 배치되고 있는 경계병의 따발총성에 의하여 동 일행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함.

나는 이 보고를 한자의 수정첨삭도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국방부에 보고했다. 신성모는 나의 보고를 묵살하고 헌병사령 최경록을 비롯하여 네사람을 데리고 현지를 조사했다고 하면서 〈양민학살이란 사실무근이며 양민이 아니라 유격대를 토벌한 것〉이라고 이승만에게 보고를 했다. 이것은 이승만에게 귀맛이 당기는 말이었다. 이승만은 신성모의 이 허위보고를 국민의 여론이나 국회의 결의보다 더 믿었던 것이다.

이래서 사건은 음모자들이 원하는대로 〈별치않은 것〉으로 낙착된듯이 보였다.

그런데 외신기자들이 사건의 냄새를 맡고 신원면의 현지취재를 하여 이 만행이 전파를 통해서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는 〈사회정의〉니 〈정부의 도덕성〉이니 하면서 진상규명을 다시 주장하고 궁지에 빠진 내무부장관 조병옥은 빨리 결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오히려 노발대발하여 〈당신네들은 국방장관이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성모를 두둔하면서 〈정부의 장관들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잘되는 법이요. 거창사건으로 인해 내무 국방 법무 3부 장관들은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 까닭에 대한민국의 체면이 국제적으로 손상되었으니 3부 장관은 즉시 사임하시오〉하는 것이었다.

이승만행정이 얼마나 지독한 일인독재정부였는가가 여실하다 할 것이다.

이래서 3부 장관이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신성모는 자기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정일권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려 음모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인데 하루는 정일권이 부르기에 가보았더니 그는 정보국장 이한림(李翰林)을 만나라는 것이었다. 이한림은 나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면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사건무마조로 나누어 주라는 지시였다. 명령인지라 받기는 했으나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돈을 정보국장이 수교한만큼 사단의 작전정보비조로 해석하기로 하고 정보참모에게 관리하게 하여 해당 항목에 지출케 했다.

사태가 이쯤 되다 보니 이승만행정부도 언제까지나 〈눈가리고 아웅〉할 수 없어 1951년 12월 12일 군사재판을 열었다. 연대장 오익경 대대장 한동석이 각각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김종원은 3년징역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그 여파로 정일권이 참모총장자리를 내놓았고 나 역시 사단장직을 면하게 되었다.

이래서 거창사건은 만 1년을 넘긴 후 표면적으로는 수습되었다.

물론 나는 내가 사단장직을 내놓게 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한 일은 없다. 오히려 작전상 실책, 부하통솔 등을 잘못한 지휘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

그때로부터 퍽 세월이 흘렀다. 망각의 세계로 파묻혀 버릴 거창의 참변을 이제 새삼스러이 다시 들추어내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과연 거창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을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까!

나는 때때로 이런 의혹으로 밤잠을 설치며 모대긴다.

연대장이나 대대장을 얼마동안 체형에 처한 것으로 해결될 문제일까? 김종원은 불과 석달이 지나 이승만의 특사로 출옥하여 치안국장으로 다시 등용되고 오익경, 한동석 등도 뒷이어 출옥하여 대로를 활보했다.

또 따지고 보면 거창사건은 공개된 하나의 실례일뿐 사실은 전화(戰火)에 휩싸인 한반도 전역에서 크고 작은 거창사건이 수없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4·19의거 이후 국회조사단의 보고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자가 경남에 2,892명 경북에 2,200명 전남에 524명 전북에 1,028명 제주에 1,878명이라 한다.

실로 동란의 전과정에 수천 수만의 무고한 생령(生靈)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으니 이 땅의 거리와 마을, 골짜기와 숲속, 들판과 강기슭에서 떠돌며 헤매는 이 원혼(冤魂)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처절무쌍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으며 오늘도 또다시 그러한 비극을 재연하려고 서두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반역도배들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는 미결로 남아 있을 것이다.

가족의 운명을 두고

유엔군의 서울 입성(入城)소식을 듣고서도 나는 사단의 작전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 전란후 서울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운명이 몹시 궁금했다. 나는 부관에게 부탁하여 가족들의 형편을 알아보게 했다.

부관을 따라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동안 겪은 사연을 듣고 가족들의 신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예상한대로 부친과 장인은 월북한 뒤였다.

원래 나는 부친과 장인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분들의 정치적 신념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다. 두 분은 다 철저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지켜왔고 임정(臨政)안에서도 중도파였다. 남북이 분열된 여건에서는 협상파에 속해 왔다.

중국에 망명하고 있을 당시 임정내부의 정치세력분포도를 보면 김구주석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남의사(藍衣社)〉계통의 김약산세력, 미군

정보계통(OSS)의 이범석, 무정부주의자인 유림, 공산주의자 김성숙 등 좌우파세력들과 김규식, 유동열, 홍만호, 최동오, 김붕준(金朋濬)등 중도파 세력이 한 울타리안에서 조국광복을 목표로 뭉치기는 했으나 여러가지 점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내분 알력을 극복하고저 조정역을 맡아 애쓴 것이 중도파세력이었다고 기억한다.

이러한 중도파의 생리는 8·15후 좌우충돌이 격화되고 남북대립이 민족의 영구분열에로, 동족상잔의 내란에로 번져갈 위험 앞에서 남북협상에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부친과 장인이 김구, 김규식선생들의 남북협상 주장에 동조해 나선 것도 우연치 않다. 이러한 전력(前歷)이 작용해서 이번의 북행길에 나서게 된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부친의 월북이 국군 사단장이라는 나의 현 위치에는 부합될 수 없는 것이다. 부친의 정치적 신조를 따르는 한 나의 군인생활은 끝장이다. 별수없이 나는 두 분이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피랍(被拉)된 것으로 묘사해야 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긴다 해도 누이동생 종화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군대가 서울에 입성한 후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종화는 좌익계열 청년단체인지 부녀단체인지 가담해서 활동한 모양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그렇게 지냈던 종화는 인민군이 철수하고 유엔군이 입성하자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월북인사의 딸이며 공산부역자(附逆者)라는 딱지를 붙이고 보면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종화자신으로서는 인민군대가 들어와도 그랬고 유엔군이 들어와도 그랬고 도망쳐야 할 절박한 죄의식이 없었으며 도망칠 곳도 없었다.

동란의 시기에는 흔히 이런 어리뻥뻥한 입장일수록 봉변당하기 십상이다. 진짜로 열성적인 운동가라면 만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닥쳐오는 불리한 형세를 앉아 기다릴 까닭 없으며 미리 피신하거나 지하로 숨어 버렸을 것이다. 엉거주춤해서 〈설마 나야 뭐…〉하면서 희생당하는 수가 실지 많았다. 영장도 없이 재판은 고사하고 현장에서 즉결 처단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개중에는 사감(私感)이 작용한 경우

도 허다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종화가 경찰 유치장신세를 지게 된 것만 해도 불행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화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기연(奇緣)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오라비가 비록 국군의 사단장이었으나 미국유학을 떠난후 소식을 모르는 터였고 그래도 이름있는 임정요인이었던 부친은 월북한 뒤라 살아날 희망은 매우 희미했다. 낙심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을 종화의 처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신심(身心) 다 극도로 피로해서 감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종화는 어렴풋이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찬찬히 바라보니 꽤 높은 직급의 장교가 감방안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눈에 익어 벌떡 일어나 앉은 종화는 순간 생에 대한 희망이 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동선(東善)아버지 아니세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 그 장교는 의아한 눈으로 처녀를 바라보고

〈너, 누구냐？〉고 되물었다.

〈저 종화예요！ 흑, 흑……〉

〈아니 네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되어 경찰관들에게 벼락이 내리고 국군사단장의 누이동생을 당장 석방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져서 종화는 구사일생으로 귀가했다는 것이었다.

그 장교로 말하면 중국에서부터 두 집안이 잘 알고 지내온 광복군 고급참모였던 이준석장군이었다. 이준석씨는 내가 미국으로 유학갈 때 3사단장을 넘겨 받았고 이번 유엔군 서울입성과 함께 수도위수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씨는 먼저 애무한 사람들이 공연히 희생되는 것이 걱정되어 경찰서 순시부터 하면서 수감자들을 검열해 나가던참이었다.

사연을 듣고서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종화를 생각해서도 가족들을 서울에 두어둘 수는 없었다. 정세 전망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급변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전쟁판에 가족들을 끌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내나 이준석씨가 가족들을 지키고 있

을 수도 없다. 그래서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지대로서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당분간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가정을 안전지대에 안착시킬 수 있은 것은 그래도 당시 행세할 수 있었던 사단장자리에 있었던 <덕분>이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반서민들이야 전란의 중하를 지고서 갖은 재난과 고통을 다 겪고 있었으나 마음대로 피난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한집안 혈육간에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서로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것이 비단 우리 집만이 아닐 것이다. 한가정이 남북으로 갈라진 기구한 운명이 결코 어느 특정한 가정에만 강요된 것은 아닌 것이다. 38도선이 생겨서부터 그러했고 더구나 전란을 겪으면서 더욱 더 많은 가정들에서 생이별의 비극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불행한 민족사의 진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3 절 <판문점의 용사>

<무슨 대표냐?>

1952년 하반기부터 휴전담판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휴회중에 있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는 유엔군측 한국군 대표는 이한림이 제 9 사단장으로 진출하면서 공석(空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1952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한국전쟁을 종결시킬 것을 공약하고 당선된 아이젠하우워가 그해 겨울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돌아가면서부터 휴전담판회의 재개기운이 진하게 성숙되었다. 이런속에서 1953년 3월 공석으로 있던 한국군 대표도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자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는 거창사건으로 사단장직에서 해임된 후 육본에서 대기근무를 하다가 육군대학 부총장직, 보병학교 교장직을 거쳐 1953년 1월부터 한국군 연락장교단의 성원으로 도꾜에 주재하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군 대표로는 제 1 대 백선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형근(李亨根) 윤재흥(尹載興) 이한림이 있어 나는 제 5 대째로 맡게 된 것이다.

이 국군 대표라는 직책은 원래 유엔군 총사령관이 임명하는 것으로서 오직 유엔군측의 지령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일체 한국정부측과는 연계도 취할 수 없게 단속되어 왔으므로 이름이 한국대표이지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러한 관례가 마음에 거슬렸다. 나의 선임자들이 해온 것처럼 명색은 한국군대표이면서도 자기 정부의 지령도 받지 못하고 회의에 참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두커니 자라나 차지할 바에야 그것이 무슨 한국의 대표로 되겠는가?! 나는 그렇게 허수아비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미군측의 휴전담판에 대해 반발해온 이승만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다.

당시 대통령은 진해 별장에서 묵고 있었다. 비행기편으로 진해에 날아갔다. 대통령 비서진 가운데서 장기봉(張基鳳)을 전화로 찾아 대통령 면접알선을 부탁했다. 장비서는 우리 가정일을 도와준 박현욱씨를 통해 전부터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쾌히 승낙했다.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고 밤새 궁리했다.

다음날 장비서의 주선으로 대통령 응접실에서 이박사를 만났다.

〈최덕신소장은 판문점회담에 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각하를 만나뵙고저 왔읍니다.〉

〈무슨 대표야?〉

〈대표 임명권은 클라크장군이 가지고 있다해도 저는 한국군 신분을 가진 한국인이올시다. 따라서 대표로 나가 일하기 전에 각하의 하교(下教)를 받고자 합니다〉

순간 이박사의 굳어진 안색이 풀리면서 앉으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마주앉자 이박사는 〈휴전담판에는 마땅히 자네같은 한국인이 나가야 한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공포로는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휴전이 성립되자면 중공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근 반시간 동안이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숨을 돌리느라고 잠시 말을 멈춘 기회에 나는 입을 열었다.

〈각하의 주장은 첫째로 왜 미국사람이 수석대표냐? 한국군인이 응당해야 한다. 이북측에서는 남일(南日)이 하지 않는가? 하는 뜻으로 압니다.

수석대표 문제는 이 시기에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지금

껏 미국인들이 맡아 왔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각하가 표시해 왔은즉 지금까지의 문제를 그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제 한국측이 수석대표를 한다는 것은 실현성도 없거니와 이북측이 응하지 않을 것이고 회담을 파탄시킬 구실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박사는 이에 묵묵 부답이었다.

사실 이승만대통령은 휴전담판문제들에 대해 〈눈 먼놈이 앞장선다〉는 격으로 왕왕 미국측보다는 엉뚱하게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미국측에 심술을 부리며 애먹이기 일쑤였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 문제에 언급했다.

〈포로문제는 인도상의 견지에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포로들은 돌려보내지 않도록 각하의 뜻대로 싸우겠읍니다〉

〈세째문제, 중공군은 반드시 철수완료해야 휴전이 성립된다는 각하의 견해를 명심하겠읍니다〉

내 말이 끝나자 이박사는 〈자네가 잘 싸워 보게! 이기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할 줄 알게!〉라고 하는 것이였다.

면접은 뜻대로 성공한 셈이다. 나의 말이 이박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진해에서 돌아와 문산리에 나가보니 이수영대령이 적아간의 상병병(傷病兵)교환 연락장교로 분주한 형편에 있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말해주고 휴전담판 정형을 알아보니 회담재개는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것이었다. 시간여유가 있음을 알고 나는 도꾜로 날아갔다. 클라크총사령관에게 면접신청을 하니 쉽게 만나주었다.

그와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내가 이승만대통령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클라크총사령관과의 담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비록 당신이 임명한 대표의 한 사람이기는 하나 한국군 장교로서 한국정부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알겠다. 과거의 한국군 대표들은 한국의 정부나 국방부와는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부터 귀관은 귀국정부에 보고할 수 있고 지시를 받아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당신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곤난에 봉착하면 나는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감사히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내가 한국대표로서 한국의 입장을 가지고 활동할 권한을 준 것으로 인식하겠다〉

이상과 같은 클라크장군과의 면담내용을 이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대통령은 나의 보고내용에 대해 반신반의(半信半疑)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후 클라크장군이 이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보고내용이 확인되었을 것이고 실지 휴전담판회의 과정을 통해 나의 활동 사실로써 재확인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후 이승만대통령은 나의 면담요청이 있을 때마다 쾌히 만나 주었던 것이다.

4월 초에 마침내 나는 처음으로 휴전담판회담에 참가하게 되었다. 유엔측 수석대표 헤리슨중장은 참모회의에서 그날의 안건과 발표할 성명내용을 알려주었다. 마침 10시 30분에 헬리콥터로 떠났다. 임진강 상공을 지나자 헤리슨중장은 탱크부대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부대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11시 정각 직전에 쌍방대표들이 회담장에 들어서고 서로 인사없이 자리를 잡았다. 녹색보를 덮은 긴 테이블 가운데 유엔기와 북측 공화국기가 마주 놓여 있었다.

맞은편 중심에 남일대장이 앉고 그 우측으로 나와 정면에 중공군 대표가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다 인민군 소장들이 차지했다. 이 편은 헤리슨중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미 해군제독과 미 육군장성이, 그리고 좌측으로는 나 최덕신, 미 공군장성이 앉았다.

헤리슨중장 뒤에는 언더우드중위가 한국어 통역을 중국계 미군 오중위가 중어 통역을 맡아서 앉아 있다. 상대편 남일대장 뒤에는 좌우로 영어와 중어 통역을 다 한국인이 맡아서 앉아 있다.

저 편은 중공군 대표를 내놓고는 다 북한사람들이고 다 황색인종인데 이 편은 나를 내놓고는 다 미군장교들이며 백인종들이다.

회담에서는 헤리슨중장이 영어로 발언하면 언더우드중위가 한국어로 통역하고 이어 오중위가 중어로 통역한다. 저 편 수석대표의 발언은 당당하게 한국어로 진행되고 그것을 영어, 중어 순서로 북한장교들이 통

역한다.

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민족감정에 심히 거슬린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

3개국 말을 다 알아 듣는 나로서는 같은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지루하기도 했고 짜증스러웠다. 그래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어야만 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자꾸 치밀어올라 마음이 괴로웠다.

나의 이러한 심정을 이수영대령과 나누었더니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겪은 사실을 침통하게 술회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측 연락장교로서 이수영대령이 처음으로 상대측 연락장교와 접촉했을 때 톡톡히 망신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편 연락장교와 마주서서 발언할 때 규정대로 영어로 발언을 해야만 했다. 그것을 받아서 언더우드중위가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것이다.

이 언더우드중위로 말하면 미국인선교사로서 영어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그 교장으로 있었던 언더우드박사의 손자였다.

언더우드박사의 3세의 한국어통역이 끝나자 북한군 연락장교는 이수영을 향하여 〈당신은 조선사람인데 왜 조선말을 안하고 외국말로 하는가? 조선말을 모르는가?!〉고 일침(一針)을 놓았다는 것이다. 대답에 궁한 이수영은 얼결에 응수한다는 것이 〈우리는 자유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해도 자유다〉라고 토해 버렸다고 했다.

그렇게 말해 놓고도 스스로 어찌나 옹색했던지! 그리고 이쪽을 향하여 조소(嘲笑)하는듯한 연민(憐憫)의 표정으로 바라보는 북한 연락장교의 시선이 이마에 얼마나 따갑게 안겨왔던지 얼굴은 모닥불을 끼얹은 것처럼 화끈 달아올랐고 등골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이 흘렀다는 것이다. 도망치듯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민족적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이대령의 말을 들으니 나까지 금시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세계의 자유로운 언어구사라니 말이 좋아 〈자유〉지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민족적 굴욕을 의미하는 표현인가! 같은 민족끼리 마주 대하면서 자기 민족어로 의사소통을 못하고 외국말인 영어로만 말하게 규정해놓은 것이 〈자유〉라니 참으로 얼빠진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분개하면서도 내가 이수영대령만을 나무랄 수 없었던 것은 나도 그의 경우와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을까 말까 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아무리 적대적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어를 쓰는 동포를 상대로 해서 명색은 국군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군장교의 영어발언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한마디 말조차 못하는 판이니 민족적 자부심을 상실한 점에서는 이수영대령이나 나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는 즉 미군이 우리 국군을 (한국인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가지 예라 말할 수가 있겠다.

나는 이 민족적 수치감의 반사(反射)로 가슴속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어디에 배출할지 몰라 모대길 뿐이었다.

헤리슨과의 설전(舌戰)

내가 휴전담판회담 유엔군측 한국군대표로 참가한 이래 회담참석을 거부하여 세상에 커다란 소문을 낼 때까지 수석대표 헤리슨중장과는 크게 두번 충돌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군대표란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단지 장식물과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그러니 나의 선임자들 누구도 감히 미군수석대표에게 한국정부측의 의사를 개진할 생각조차 못했으며 심지어 이대통령을 만나는 일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비밀누설을 꺼려 판문점에서 서울로 전화도 못하게 단속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사정 앞에서 민족적 수치감을 느끼면서 밸이 뒤이는듯 했다. 게다가 나는 군인밸이라고 할까 그 누구앞에서도 이유없이 굽신거리기가 싫었다.

그래서 나는 이치가 맞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맞서 나설 작정이었다. 이런데로부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포로취급문제를 가지고 적대 쌍방이 담판장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전날까지 완고하게 종전자세를 견지하면서 대북한공세를 취해오던 헤리슨수석대표가 참모회의에서 자세변경을 할 새 안건을 들고 나가겠다고 통고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따졌다.

〈이 안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은 것인가?〉

〈그것은 클라크총사령관이 할 일이고 우리는 지시대로 할 뿐이다〉

〈이 안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것 같지 않다. 나는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시간여유를 좀 달라! 그 사이에 보고하겠다〉

헤리슨은 저으기 놀라서 당황한 눈치였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더니 전화를 걸고 와서 새 제안 제출은 하루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새로운 제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던 남일대장이 화를 내게 되었다. 그날 회담도 전진없이 끝났다.

나는 이승만박사를 만나서 그날에 있은 일을 죄다 보고하고 이 문제 때문에 클라크장군이 찾아올 것이라고 알렸다.

그후 클라크장군이 이박사를 만나 설복하려 했으나 이박사가 완강히 반발했다.

휴전담판은 난항을 거듭했다. 4일째 되는 5월 16일 상급의 지시라 하면서 3일간의 휴회를 제의했고 다시 또 연기했다.

나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유엔군사령부 고위층의 동정을 살폈다. 매일 아침마다 헤리슨에게 전화를 걸어 워싱톤으로부터의 지시 유무를 알아보군 했다.

이러저러 한주일 이상을 휴회하다가 5월 25일 회담을 재개하게 되어 그 전날 서울로 클라크장군과 동행해갔다.

비행기안에서 그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비행장에 내리면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겠는데 그들과의 인터뷰는 내가 하겠다〉

〈장군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가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수석대표에게도 아직 알리지 않았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겠다〉

〈그 내용이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어떤가?〉

〈세계여론이 휴전을 고대하고 있다. 이것을 반대하면 고립된다〉

〈그런 정치문제에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 정부에 보고하려고 할 뿐이다〉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이대통령에게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말았다.

나는 여의도비행장에서 내려 유엔대표단이 자리잡고 있는 문산리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경무대로 전화를 걸어 클라크장군이 워싱톤의 지령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알렸다. 클라크장군은 문산리에 도착하여 헤리슨중장과 협의했으며 이박사는 만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식사후 헤리슨중장은 머피대령을 불러 오늘 참모회의는 9시 45분에 하겠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늘 8시 정각에 하던 것을 늦추는 것이 이상해서 8시에 헤리슨중장의 막사를 방문했더니 그는 한가하게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따지었다.

〈참모회의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 제안내용이란 것을 알 수 없겠는가〉

〈안된다. 주무참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

〈그 제안이 우리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어떤가?〉

〈휴전에 대한 국제여론이 아주 강하다. 반대할순 없다〉

우리의 입씨름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고위 정치가들의 소관사이고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나는 다만 실무자로서 책임수행상 우리 정부에 사전보고해야 하는만큼 알아야겠다〉

〈귀관은 그것을 참모회의에서 알게 될 것이다〉

아무리 떼를 써보고 꾀를 써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거절 당하고 나와서 기다리자니 지루하고 초조했다.

경무대에 전화를 걸었다. 알아보니 클라크장군이 10시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시간약속을 휴전담판시간 직전으로 작정한 것이 더욱 수상했다.

그때 나의 대표부는 이호(李澔)육군준장, 김창규 공군준장, 김일병 해군소장으로 보강되어 있었는데 그들과 대책을 상논했으나 이렇다할 묘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중 9시 45분이 되어 참모회의에 참가했다. 다른 때 같으면 대표들 앞에는 그날의 안건대강이 놓여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 초조한 기분에 빠졌다. 헤리슨장군은 회의를 개회하자 마자 머피대령에게 안건을 낭독시켰다. 영어로 어찌나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지 아직도 영어를 알아듣는 데 익숙지 못한 나로서는 미처 뜻을 해득할 재간이 없었다. 겨우 포로문제와 관련해서 5월 16일까지 버티어 오던 〈단서〉조항, 즉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조항이 한국군 포로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但書)조항을 철회한다는 구절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헤리슨에게 대들었다.

당신네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해 계속 상대방과 싸워왔으며 또 나도 미리 양보하지 말라고 제의해 온 것인데 이건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달라, 정부에 보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헤리슨은 〈노!〉를 연발했다. 〈오늘부터는 비밀회담으로 들어간다. 도청당할 수 있으니 전화도 안된다. 안전이 누설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까지 통제하는 것이었다.

나는 격해서 책상을 두드리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내 천막에 들어와 보니 10시가 막 지났을 때였다.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즉시 경무대에 전화를 거니 신태영(申泰英)국방장관이 받았다. 참모회의 상황을 대충 보고하고 나의 휴전담판회의 불참결심을 전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데 잠시후 신장관이 전화를 걸어 왔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최소장이 회의에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때가 마침 클라크장군이 이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후에 책임은 혼자 지더라도 내 결심으로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

10시 30분경 헤리슨중장이 다른 때와는 달리 나의 천막으로 일부러 찾아와서 함께 가자는 것이다. 나는 〈노!〉라고 일단 선포한 불참태도를 고집했다. 그러나 천막에 남아 있으려니 초조감과 궁금감을 건잡을 수 없었다. 말을 안듣는 이수영대령을 억지로 내몰다시피 해서 회담장 정형을 알아보게 했다. 잠시후 헤리슨에게서 전화가 왔다. 헬리콥터를 보냈으니 나오라는 것이다. 나는 완강하게 또다시 〈노!〉라고 버티었다.

이렇게 헤리슨중장과의 입씨름은 휴전담판회담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워싱톤의 새 지령을 끝내 철회시킬 수 없었다.

〈자네에게 상을 줘야겠어!〉

회담불참선포를 하고 막사에 앉아있을 때 판문점에서는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헤리슨중장이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둘러싼 기자들은 벌써 국군대표 최덕신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연방 질문을 퍼부었다.

헤리슨은 〈여기로 나올 때 최장군은 전화를 걸고 있었다. 지금 헬리콥터를 보냈으니까 그는 뒤따라 곧 올 것이다〉라고 얼버무려 버렸다.

그러나 11시가 다 되어도 나 최덕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내 자리를 공석으로 남긴채 회담을 시작했다.

판문점으로부터 순식간에 온 세상을 향해 전파가 날아갔다.

〈한국군대표 회담에 불참!〉

〈유엔군측 수석대표 포로문제에서 새로운 안건 제안!〉

〈한국대표는 이에 보이코트!〉

충격적인 표현들이 전파를 타고 우주공간으로 연속 퍼져나갔다.

이 최덕신이 세계적 화제의 인물로 부상한 셈이다.

헤리슨중장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북한측에서는 연구하겠다 해서 그날 회의는 일단 휴회로 들어갔다.

이상의 회담상황을 이수영연락장교로부터 보고받은 후 나는 곧 경무대로 들어갔다. 따스한 날씨였다. 경무대 정원은 포연이 자욱한 이 강토의 황량한 모습과는 달리 한가롭고 안온한 분위기였다.

이대통령은 변영태(卞榮泰)외무, 신태영국방과 함께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 등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보고하는 나를 보는지 어떤지 눈을 감은듯한 대통령은 불쑥 말하였다.

〈자네 오늘 회담에 나갔지?〉

〈안나갔읍니다〉

〈응?!〉

〈안나가겠다고 신국방장관에게 보고했읍니다〉

〈내가 나가라고 했지!〉

〈그렇지요. 그러나 자신의 결심으로 안나갔읍니다〉

〈그럼, 명령 불복종이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국군장교도 안나갔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아시면 각하도 나가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긴장해 있는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내가 자네를 벌줄 것이 아니라 상을 줘야겠어!〉라고 은근하고 다정하게 치하해 주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의 가슴은 성공의 기쁨으로 울렁거렸다.

이윽고 대통령은 나를 품에 안다시피하여 응접실로 대동해 가면서 연방 나를 애무하듯 치하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긴장감이 일시에 녹아내리는듯 했다. 나의 민족감정을 거슬리게 하던 미군당국에 대한 나의 자그마한 소극적 반발이 내가 속으로 은근히 기대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승만대통령의 총애를 획득하는데로 직결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 그토록 대통령의 기분을 만족시키게 된 것인지 나는 몰랐다.

후에 대통령측근 소식통에 의하면 내가 해리슨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클라크장군을 상대로 아슬아슬한 정치적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 클라크장군의 말을 들으니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패전이란 말인가?〉

〈패전은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지금은 휴전해야 한다〉

〈그러면 야전군사령관 테일리장군에게 물어보자! 휴전하자는데 당신은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항복하자는 것인데 이젠 별수 없다. 그런즉 나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니 당신들의 설명을 문서로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비서 오너라! 타이프 가져오너라! 하면서 수선을 떠는 바람에 당황실색한 클라크장군과 테일리장군은 부랴부랴 일어나면서 일선에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꽁무니를 뺐다는 것이다.

이대통령의 이와 같은 저항에 무던히 애를 먹은 미군측은 계속 여러가지로 위협도 하고 얼리기도 하였으나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이다. 미군측이 볼 때에 이승만대통령의 고집불통은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했지만 그런 허세가 미국을 적지 않게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승만대통령에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이 절대로 한국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난처하게 만드는 심술을 부려서 그 어떤 담보를 받아내려고 노회(老獪)한 술수를 썼던 것이다. 그는 북진통일을 외치고 휴전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관제 반미집회를 자주 벌이는 외에도 몇가지 압력방법을 썼다.

첫째로 미군측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위협한 것이다. 이승만은 미군측이 휴전하면 유엔군 휘하에서 한국군을 철수시켜 북한과 단독으로 싸우겠다고 자주 말해왔다.

둘째로는 휴전담판회의에서 국군대표를 철수시켜 담판자체를 깨뜨려보자고 했다. 그 역할을 바로 내가 담당한 셈이다.

세째로는 이른바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자유석방하는 것이다.

이 세째 수에 대해서는 이승만대통령이 은근히 〈모종의 조치〉라고만 비추었기 때문에 미국측은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확실히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나는 반공포로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휴전담판회의 한국군 대표로 나가게 되면서 이승만을 만났을 때 그의 속심을 눈치챈 바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참모회의에서 포로석방문제로 헤리슨으로부터 수모받은 데 대해 군인으로서 벨풀이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헤리슨과 설전 끝에 퇴장한후 며칠 지나서(6월초) 이 문제를 가지고 헌병총사령관 원용덕, 내무부장관 진헌식(陳憲植), 공보처장 갈홍기(葛弘基)와 서울 종로 뒤골목에 있는 한 요리집에서 모의를 했다.

모의가 끝난 후 원(元)과 갈(葛)은 그냥 앉아 기다리게 하고 이 사람과 진헌식이 이승만에게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경무대로 들어갔다.

그때는 집무시간이 훨씬 지난 7시경이나 되었건만 이승만 자신이 마침 현관까지 나왔다.

진(陳)이 먼저 말했다.

〈각하! 반공포로 석방문제를 의논해봤읍니다. 미군이 포로를 관리한

다고 하지만 실지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은 우리 헌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만 하면 얼마든지 석방시킬 수 있겠읍니다〉

이승만은 몹시 만족한듯 했다. 하지만 선뜻 입을 떼지 않았다.

진이 계속 말했다.

〈미국사람에게도 통고하시면 안됩니다. 국방장관에게도 비밀에 부쳐 두어야 합니다. 각하께서 신임하시는 사람에게 지시하시면 석방은 문제 없겠읍니다〉

이승만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와 진을 번갈아 보더니 마침 누가 들을세라 소곤거리듯 말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 시키면 좋을까?〉

〈원사령관에게 시키면 되겠읍니다〉

〈음!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내일 들어오게 해!〉

〈몇시쯤이 좋겠읍니까?〉

〈아침 8시에 오라고 하지〉

경무대에서 물러나온 나와 진은 원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 요리집으로 다시 들어가 숙의(熟議)를 거듭했다.

다음날 원용덕은 의기양양해서 〈금일부로 육 해 공군의 헌병은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중장의 지휘하에 들어간다〉는 문서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서 〈가(可) 만(晩)〉이라고 수표를 받았다.

그후 원(元)은 각군 헌병감에게 이 문서를 보이고 6월 18일 계획대로 반공포로 27,000명을 석방시키고 진헌식은 관하 경찰에게 지시하여 석방된 포로를 감추어 주도록 했다.

이 돌발사태가 벌어지자 회담장소에서 북한측 수석대표가 노발대발한 것은 더 말할 것 없고 헤리슨중장은 옹색한 처지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고 하면서 미군측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느라 땀을 뺐다.

아연실색한 아이젠하우워는 이승만을 만나자고 초청했으나 바쁘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6월 25일 국무성 극동담당차관보 월터 로벨츠를 특사로 한국에 파견했다.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문제로 해서 휴전담판이 파탄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승리할 가망이

없는 인기없는 전쟁으로 되었으며 한국전선은 미국장병들의 목숨을 한정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수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밑빠진 독처럼 방대한 물량을 삼켜 버리군 했다. 미국민들은 자기의 아들과 남편들이 이 무서운 함정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전쟁종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제여론도 평화를 주장했다.

이래서 한때 이른바 〈아이젠하우워공세〉니 뭐니 하면서 한국침략전에 혈안이 되었던 아이젠하우워도 〈만약 당선되면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국민적 여망에 편승하여 당선된만큼 휴전협정 성립에도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당시 미국으로서는 휴전자체가 곧 한반도로부터의 미군철수를 규제하지 않으며 남한지역에서 친미정권을 유지하고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보유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위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극동전략을 펴나가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휴전이면 성립시키자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요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사정이 달랐다. 이대통령은 정치적 처지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박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극히 낮았다. 독재자의 권좌가 항상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형편에서 이박사는 민족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북진통일의 구호로 오도하며 미국에 대한 종속관계를 독자적 자세를 취하는듯한 제스춰로써 위장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한국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안보를 담보해줄 일련의 요구조건을 받아내려는 저의에서 미국의 휴전방침에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해온 것이다.

쌍방의 이러한 정책적 입장으로부터 출발해서 클라크장군과 로벧츠특사는 이대통령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이대통령은 결국 이 기회에 정치적 흥정을 벌여 한국군의 병력증강과 무장력강화, 한미호상방위조약체결, 경제원조 등 일련의 요구조건들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휴전작업을 더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분석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나는 이대통령으로부터

7월 27일 문산리에서 진행하는 휴전협정 조인식에 참석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나는 거기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꼭 나가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버티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박사는 〈자네가 안가면 미국사람들이 약속한걸 안믿어! 그 사람들에게 3개월간은 휴전협정을 지켜주고 방해 안한다고 약속했으니 그리 알고 나가게!〉라고 내몰다시피 하는 것이었다. 눈치를 보니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불참선언을 한 기왕의 자세가 계면쩍은지라 〈옵서버의 신분〉으로 참가하는 시늉을 했던 것이다.

조인하는 장소에 가본즉 참전국가 대표들이 다 나와 있었다. 클라크 대장 바로 뒤에 마련된 내 좌석을 차지하고 있노라니까 클라크장군이 극동방면 육해공군 사령관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16종이나 되는 문서에 서명하는 시간이 퍼그나 걸렸다. 서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던 클라크장군은 아무말 없이 맨먼저 이 사람과 악수를 나눈 후 퇴장했다.

모든 의식절차가 끝나자 기자들이 나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치며 감상을 묻는 것이었다. 〈오늘 나는 옵서버자격으로 사인장면을 옵서버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그들속을 헤쳐 나갔다.

그후 이승만은 나를 〈판문점의 용사〉라 했다.

〈에버리디작전〉

담판이 시작되어 2년하고 17일만에 휴전협정이 성립되었다.

그동안 휴전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저항해온 이승만대통령의 자세는 외형상 얼핏 보면 반미적인 양상을 띠는듯 했지만 그것은 본질상 미국의 극동정책을 수행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승만대통령의 그 모든 반발이 그 어느 것도 미국의 극동전략에서 그 어떤 궤도수정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이 주장한 북진통일, 중공군철수, 북한군의 무장해제 등 현실성 없는 요구들이 다 한국전쟁에서 사실상의 주역을 가로맡아 온 미군측이 목표해온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도 미군측으로서는 그 때문에 휴전협정 교섭자체가 파탄될까봐 우려했을 따름이지 그들을 북한측에 넘겨줄 생각

은 없었던 것이다.

또 이승만대통령이 떼질을 쓰다시피 해서 마지못해 응하는체 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의 체결이나 한국군 병력의 증강과 그의 장비현대화 등도 미국이 사실상 원하고 있던 사항들이다. 미국은 이것들을 통하여 한반도 남부에 강력한 군사교두보, 전진기지를 확보하여 전쟁전의 정세하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승만대통령의 행동은, 그리고 그 보조역을 담당했던 나의 행동 역시 큰 테두리에서 관찰하면 미국의 극동전략을 전진시키는 범위내의 것이었을 뿐이다.

다만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한 것은 이승만대통령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군의 통수권을 환원하여 독자적 행동을 하겠다는 위협이었다. 미군측은 그것이 결국 이대통령의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염려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에버리디(Ever-ready)작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에버리디작전〉이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작전명으로서 결국 그 취지는 미국의 근본정책 수행상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승만박사를 제거하고 보다 더 철저한 친미적인 인사를 한국정권에 앉히게 하는 일종의 쿠데타계획인 것이다. 이 계획은 1952년에 이승만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해서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 감금하고 개헌을 강행함으로써 정치위기를 극도로 첨예화시켰을 때 트루만행정부가 한편으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경고를 말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병력을 출동하여 이승만대통령을 강제로 축출하려고 구상했던 계획을 더욱 보강한 강경작전계획인 것이다.

이 계획은 도꾜의 극동사령부 클라크장군의 명령에 따라 맥스웰 테일러 주한 미8군사령관이 세운 작전계획으로서 이대통령이 만약 실지로 한국군을 유엔군 휘하에서 철수시키는 것과 같은 돌발사태에 대처하는 비상조치를 예견하고 있었다.

이 〈에버리디작전〉 계획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예견하고 그 모든 경우에 대처할 준비가 취해지고 있다.

첫째로 한국군이 유엔군에 불복하는 경우 유엔군이 중요도시주변의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이동하며 해군과 공군은 경계태세를 취하게 하고 또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보요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는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부대를 철수시키고 한국보안대를 무장해제하여 믿을만한 유엔군으로 대치하며 주민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세째로 극단적인 경우 한국군과 주민들이 유엔군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다.

1953년 5월 27일 클라크총사령관이 합동참모부에 보고한 그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될 대책의 윤곽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대통령을 서울이나 기타 지방에 초청형식으로 유인해 낸 다음 유엔군사령관이 부산에 들어가서 이승만대통령의 독재적 행동에 동조한 5~10명의 중요인물들을 체포하고 한국군 참모총장을 통해 계엄령 통제권을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대통령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감금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새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한국군이나 유엔군의 직접 지휘하에 군사정부를 수립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획서 1976／373 (1953년 7월 5일)〉이라는 문서로 수록된 이 작전계획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무성의 관리들이 검토하고 덜레스국무장관과 윌슨국방장관이 검토하였다. 결국 두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명령을 내려 클라크총사령관에게 〈중대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승만대통령 축출계획을 승인했던 것이다. 전문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한국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이 미국국방성에 호출되어 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 비상조치는 이승만대통령이 최종단계에서 유엔군측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역력히 말해주는 것이다.

이 〈에버리디작전〉이야말로 8·15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여온 전기간 한국정권의 존재방식을 규제하고 있는 실질적인

힘의 소재를 밝혀주고 있다.

이 작전계획은 비단 1952년이나 1953년의 전쟁기간에만 실재한 것이 아니다. 4·19의거때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를 강박 실현한 주한 미대사의 역할도, 5·16군사쿠데타의 실현과 박정희대통령을 사살한 12·26사태도 다 이 〈에버리디작전〉의 실재를 확증해 주는 것 같다.

그건 그렇다 치고 1953년 당시 만약에 이승만대통령이 더 계속 완고하게 행동하여 이 〈에버리디작전〉이 실지로 실현되었더라면 이 최덕신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니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모르고 이승만대통령의 치하에 감동되어 우쭐거리고 다니던 그때의 내 발밑이 실지는 위험한 살얼음판이었던 것이다.

휴전이 실현되어 도꾜 사령부의 연락장교단의 일원으로서 한직을 차지하고 있던 나는 1선 지휘관으로 진출할 의향을 대통령에게 비쳤다.

그래서 나는 군단장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미8군사령부의 인준단계에서 최덕신은 〈정치장성〉이기 때문에 1선인 춘천(春川)에 있는 제2군단에는 보낼 수 없다 해서 미8군의 예비대로 있던 제1군단을 맡게 되었다.

육군중장으로 군단장직을 맡아 하는 동안 나는 이승만대통령의 특명으로 자주 외교활동에 나서다가 월남공사로 정식 부임하게 되어 마침내 군복을 벗게 되었던 것이다.

6·25동란은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강요했다. 그것은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심대한 민족적 참변이었다.

3년여의 처절한 전란을 치르었지만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은 끝장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남북간의 대결분위기만 격화되었고 한반도는 그 어느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화약고로 전변되었다.

6·25동란이 있은지도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민족이 걸어온 험난한 노정을 더듬어 볼때 6·25동란이 우리 민족사의 전개과정에 끼친 작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통감하게 된다.

제 4 절 6·25를 다시 생각한다

6·25가 남긴 심각한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첫째로 전쟁으로써는 우리의 민족문제의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둘째로 외세의 작용을 탈피(脫皮)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활로는 결코 열릴 수 없다는 것이며 세째로, 민족이 나아갈 정도(正道)를 개척하자면 숭고한 민족애에 기초한 전민족적 단합이 긴절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서방세계에서 유포된 관제선전에 포로된 나머지 6·25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없었다.

6·25동란이 터지자마자 미국과 한국의 관변측 보도는 요란스럽게 북한군의 남침설을 퍼뜨렸으며 서방세계에서는 그것이 정설처럼 통용되어 왔다. 전쟁의 운명에 대한 관측에서도 서방세계에서는 미군이 참전한 것으로써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으며 북한군은 쉽게 격파당하고 북한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이다.

이 사람 역시 이러한 관측에 포로되었으며 미군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민족의 장래와 자신의 운명문제를 이러한 시각(視角)에서 관측하고 전망했고 모색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심각한 오판(誤判)을 가져오게 했다.

첫째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6·25동란의 발발원인에 대한 견해였다.

6·25와 관련해서 누가 그날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에 대해서 오래 논난되어 왔는데 서방세계에서는 북의 선공남침설(先攻南侵說)을 정설처럼 통용해왔던 것이다. 물론 북한을 위시해서 공산진영에서는 남쪽으로부터의 선공북침설(先攻北侵說)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해왔다.

내가 북으로부터의 선공남침설을 믿게 된 까닭은 북한군이 개전(開戰) 3일만에 더 정확히 말하면 단 63시간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계속 파죽시세로 밀고 남진하여 단숨에 남한 일대를 석권(席捲)하여 낙동강(洛東江)계선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데 있었다. 이것은 바로 북한군의

남침계획이 미리부터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제선전의 영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따져본다면 이것은 북한에 의한 선공남침설의 물증(物証)으로서는 극히 박약한 논거가 아닐 수 없다. 싸움에서 승패는 누가 힘을 잘 썼는가에 달려 있으며 특히 누가 투지가 왕성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승리자가 반드시 먼저 쳤다는 증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개전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된 사실이 북한남침설의 근거로는 될 수 없다.

축구경기나 배구시합처럼 쌍방이 인정하는 심판이 있어서 6·25당시 38도선에서 어느 편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를 지켜보지 않은 이상 이 문제는 쌍방의 주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나는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행해지는 정치〉라고 갈파한 근세 군사학의 비조(鼻祖)라 하는 클라우제빗츠의 말을 상기하게 된다. 결국 6·25동란의 발발원인은 동란전후시기를 포괄하는 쌍방의 정책적 표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으로 볼때 공산주의세력 주도하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이치라 하겠다. 하지만 주관적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객관적 여건이 그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시의 실정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무력통일을 시도하여 선공 남침할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남북의 군사력 대비에서나 실지 현대전을 치른 경험으로 보나 먼저 싸움을 걸 형편은 아니었다. 도대체 정규군무력으로 편성된지 2년밖에 안되는 8만정도의 병력과 빈약한 장비와 경제력을 가지고 강대한 미국을 배경으로 한 4년 이상의 건군역사를 가진 10여만 병력의 한국군을 상대로 먼저 도전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박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흔히 북한의 배후에 있다고 하는 소련이나 중공이 당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달가와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의 여러 계통의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자료들도 확증한 사실이다.

이외에도 8·15후 6·25전까지의 사이에 38도선 일대에서 일어난 빈번한 무장충돌사건들에서 언제나 북한측이 피동적 입장에 있었다는 것

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당국은 정책표방에서도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협상과 완전자주독립을 주장했으며 일체 외군의 철수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해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6·25동란의 방화자가 북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억지가 작용하는 무리한 강변(強弁)이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쪽으로부터의 북침선공설의 사실적 근거 유무를 확인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6·25는 앞뒤 연관도 없이 불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6·25전에 한국군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라면 미 군사고문단의 통제밑에서 한국군이 6·25를 앞두고 북침준비로서 예비전쟁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온 것이 상식화된 사실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국방장관 신성모는 〈헤랄트 트리뷴〉지가 1950년 1월 1일자(字)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군대는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는 워싱톤으로부터 명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미국무성의 고문 덜레스는 1950년 6월 17일 서울에 달려와 〈기회가 성숙되었으니 북한에 즉시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고 이승만을 전쟁에로 내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이 먼저 침입했다고 역선전을 하면서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당신들이 두주일간만 지탱해 낸다면 모든 것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요. 왜 그런고 하니 이 기간에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다는 여론을 조성시켜 가지고 유엔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케 하고 그 명의로 육해공군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었던 김효석(金孝錫)의 말로 이 사람이 전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더듬어보니 미국의 저명한 기자이며 작가인 스톤의 견해가 생각난다. 그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비사〉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전쟁 발발이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후 1년이 경과하는 과정에 이것은 대단히 불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간에 많은 전후(前後) 모순된 사실이 드러났고…보다 더 기묘한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리고저 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실제 한국전쟁

개시의 진상이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극동에 있어서 전쟁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 의한 고의적이고 음모적인 침략의 결과였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를 더욱 힘있게 시사해주는 것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6·25를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볼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6·25 전쟁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48년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의 과잉생산공황은 1949년에 들어와서는 1930년의 파국적인 공황에 비견할 위기를 몰아왔다. 이 상황을 당시 영국의 유력지 〈에코노미스트〉는 〈미국은 경제공황의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필요한만큼 전쟁이 날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던 것이다. 바로 6·25의 포성은 격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단번에 날려 보냈던 것이다. 전쟁기간에 미 8군사령관으로 된 밴프리트대장이 〈한국전쟁은 하나의 축복이었다. 그것은 꼭 알맞는 시기에 알맞는 좋은 장소에서 아주 알맞는 전쟁이었다〉(a right war at a right place and a right time)고 탄성을 올린 것도 얼마나 미국이 전쟁을 한국에서 열망했는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을 서두르게 한 당시의 정세배경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은 1949년 9월 소련이 원폭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원폭독점을 상실하게 된 것과 1949년 10월 중공군이 북경에 입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한 사실이다. 미국의 고위정책요로(要路)에서 한반도 경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불리하게 기울어지기전에 손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6·25를 앞둔 1년전부터 미국에 유학중이어서 전쟁발발 당시의 상황을 직접 체험할 기회는 없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6·25를 둘러싼 역사적 사료들에 접하게 되고 민족이 처한 기구한 운명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 관찰하게 되면서 관제선전에 포로되었던 기왕의 시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視角)에서 6·25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오랜 지기(知己)인 이성가씨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이 술회한 바에 의해서도 6·25가 미리 준비된 사변이었음을 강조해주고 있

다. 당시 강릉(江陵)에 본부를 두고 있던 8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이성가씨는 〈당시 우리는 긴급사태에 대처하여 외출을 금지시키고 6월 25일 새벽 전투에 돌입했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제17연대 소속 작전지휘담당 정치장교 한수한중위는 더욱 실감있게 이렇게 말했다.

〈6월 24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연대장교들의 외출이 금지되었다. 우리는 대기상태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긴장된 기분으로 그날 밤을 자지 않고 지새웠다. 그리고 25일 새벽 사령부로부터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개시하라는 비밀명령이 우리에게 하달되었다〉고 했다.

이래서 25일 새벽 마침내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진공이 개시되었고 해주 금천 철원 일대에서는 38도선을 돌파하여 10리 내지 20리나 북상진격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측이 반격해 나온 데 대해 당연한 대응이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엄연한 제반 사실들이 입증하는 것처럼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먹겠다고 계속 으르렁대며 빈번히 무장도발을 일으켜왔고 전면적 공격의 위험이 다가오는 절박한 정황에서 북한군이 멍청히 있을 수 없었으며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은 정당방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묶여있던 6·25동란에 관한 극비문서들이 미국에서 정보자유법에 의해 30년만에 공개됨으로써 6·25의 진상이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인정된다. 게다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간 것만은 아니다. 한국민의 의식구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특히 광주의 참극을 겪으면서 한국민의 대미관(対美観)은 급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6·25동란의 진상을 새로운 시점(視点)에서 관찰하여 기왕의 관제선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세론의 추세를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이 6·25동란에 대해 잘못 판단한 사실은 다음으로 전쟁이 미군에 의한 북한군의 궤멸로 끝나리라는 관측이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승리를 장담했고 서방세계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영향 밑에서 살아온 나 역시 전쟁의 결과가 달리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심대한 오판이었음을 만천하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의 패전을 인정한 데서 명백히 되었다. 유엔군총사령관 클라크장군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전쟁에서 패했다. 역사상 승리하지 못한 최초의 불명예의 미군사령관이란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비통하게 술회했던 것이다.

전쟁 3년 동안에 미국은 2차대전때에 사용했던 전비의 3배를 이 전쟁에서 탕진했다. 16개국 연합군과 한국군 200만명, 미군 109만명이 동원되었으나 미국은 이길 수 없었다. 인구 1,200만에 불과한 북한을 상대로 수억의 인구를 포괄하며 방대한 병력과 물량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의 승패란 병력이나 군사기술적인 우세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준다. 북한군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수호하기 위해 외래 침략세력을 격퇴한다는 숭고한 정신상태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싸웠다. 하지만 유엔군에게는 이 전쟁에서 목숨걸고 싸워야 할 대의명분이 없었으며 신념이 없었다. 정신상태에서 벌써 그들은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국군의 지휘계통, 수사기관, 정보기관, 군수계통, 헌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통은 일군, 만군 출신의 친일분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그런 군대가 부하를 통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웠던 것이며 당연히 패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6·25동란의 전망을 잘못 판단한 것은 민족의 장래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방향설정에서도 오판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미군의 강대한 무력에 의해 북한군이 궤멸될 것이고 북한평정이 실현되리라는 전제하에 민족의 활로가 있고 자신의 생존방식이 있다고만 생각했던 데서 나의 인생행로는 운명지어졌던 것이다.

전쟁을 더 계속할 수 없게 된 형편에서 마지못해 휴전협정에 조인하고서도 미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매우 꺼려했다. 포화는 멎었으나 미국고위층은 마치 초상을 당한것 같은 분위기에 싸였다. 휴전이 성립된 그날 테일러 8군사령관은 예하부대에 대해 〈금후 48시간 빠를 폐쇄하고 온갖 알콜음료를 금지한다〉고 시달하면서 그 이유로서 〈지금은 축배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용기있는 병사들이라면 한국에서 임무를 끝냈다고 만족을 느끼기에 앞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

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휴전은 전쟁의 종결은 아닌 것이다〉라고 들고 나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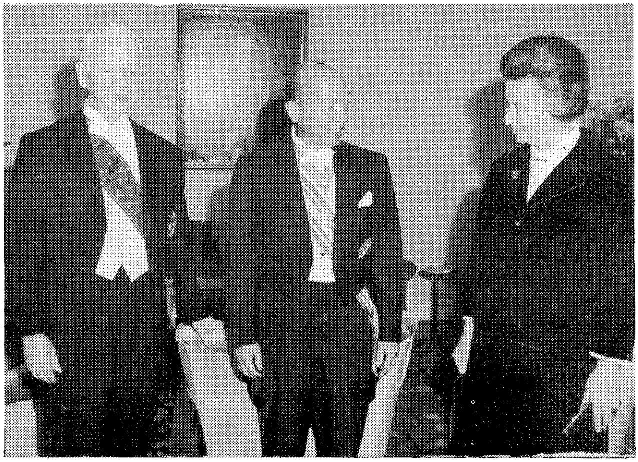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이러한 완고한 자세때문에 조국통일은 성취되지 않고 있으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일로에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그 〈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명백한 일이다. 대미의존의 테두리에서 민족의 자결권이 행사되리라고 기대했던 나의 생각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휴전협정에 사인을 한 유엔군총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대장도 1978년 4월 17일 사몰하여 우리와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있다. 하건만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약속해 줄 아무런 담보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휴전상태하의 남한에서는 독재권력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벌어진 6·25의 참변은 이렇듯 우리 민족에게 지금까지도 불행과 재난을 지속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장 나의 외교생활



서독대사시절의 저자

1956년 4월 나는 군(軍)직을 떠나 관(官)직에 들어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월공사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군에서 예편되었다.

사람의 한생이란 자의(自意)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때도 실감했다.

해방된 조국을 찾아서 1946년 부산에 상륙한 후 이 사람이 보고 듣는 일들이 너무도 뜻밖이어서 환멸을 느끼고 한때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생각하는 바 있어 국군에 입대하여 10년 세월을 지내왔지만 그 첫날부터 일만군(日滿軍) 출신 장교들의 압력이 뒤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이 무렵 나를 끔찍히 믿어 주는 이박사의 간곡한 권유를 차마 물리칠 수 없어 이 사람은 군복을 벗고 그이의 요구대로 외교관생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사람으로 말하면 군복을 벗기전에도 이러저러하게 외교활동을 한 바 있다. 판문점회담에 명색으로나마 한국군대표로 참석했던 연고로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제7차 유엔총회 특별회의에 참석했고 이어서 제8차 총회에도 한국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참가했었다. 그 후에도 군복을 입은채 친선사절단장으로서 동남아 제국(諸国)을 수차에 걸쳐 순방한 바 있다.

때문에 이 사람이 1956년 월남공사로 간 것은 말하자면 이때부터 직업적 외교관이 되어서 이 부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라 하겠다.

그후 나는 월남대사, 외무부장관, 주서독대사를 거쳐 1967년에 천도교 교령(教領)으로 취임할 때까지 만 11년 동안을 쭉 외교생활을 했다. 군복을 입고 한 것까지 치면 14년 동안을 외교분야에서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간 한국의 내외정세는 참으로 복잡다단했다.

한국의 혈맹(血盟)이라는 미국이 6·25 동란 후 자국내에서 심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빠지고 다른 서구 동맹국들과의 모순이 격화되어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가는 속에서 한국에서는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4·19의거가 있었는가 하면 이를 짓뭉개버린 5·16 군사쿠데타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한정책도 한때는 위험에 처한듯 했고 <왕조>를 여는가 했던 이승만정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허정(許政) 과도정권이 나타

났다가 장면(張勉) 정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박정희군사정권으로 바뀌었다.

이런 격심한 정권파동(政權波動) 속에서 어제의 고관들이 오늘은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오늘의 재벌이 내일은 파산지경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참말로 사람들이 인생고해(人生苦海)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1년 5개월 동안의 외무부장관시절을 내놓고는 줄곧 고국을 멀리 떠나 이국땅에서 보냈다. 그래서 이렇다할 화(禍)를 입은 바 없이 한국사회에서는 보기 드물만큼 4대에 걸쳐 정권에 복무하는 몸이 되었다. 하지만 나자신으로서는 이 사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아시아와 미주 및 구라파를 두루 편력(遍歷)하다나니 지금 생각하면 깊은 감회에 잠기게 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보람있게 느끼는 일보다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은 말할것 도 없다. 허나 나의 한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인지라 부끄러운대로 기억을 더듬어보려 한다.

제 1 절 새〈왕조〉의 공신(功臣)이 되려

〈아시아민족반공연맹〉결성의 길에서

1953년 제 8 차 유엔총회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이런 기회에 견문이나 넓히자는 생각에서 총회가 끝난 후에도 유엔주재 한국대사 임병직(林炳稷)과 아울러 그냥 뉴욕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급히 귀국하라는 전문을 받았다.

무슨 일인가 의아하게 여기면서 서울로 황급히 돌아와 경무대를 찾아갔더니 나의 귀국인사를 받고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곧 장총통을 방문하려고 해.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같이 가려고〉

순간 나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처음에는 곧이들리지가 않았다. 사실 나는 이때만 해도 이박사로부터 〈판문점용사〉라고 칭찬을 받고 그의 신임으로 유엔총회에까지 나갔던만큼 그야말로 앞으로 입신출세하기 위해

서도 그에게 더욱 잘 보이도록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인데 막상 그를 직접 수행하여 대만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내심으로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영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장개석총통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1936년 중국에서 중앙군관학교(황포군관학교의 후신)을 졸업할 때 이 학교의 교장이었고 나는 그로부터 직접 〈근학장장〉(勤学奨章)까지 받은 바 있었다. 때문에 나의 감동은 그만큼 더 컸다.

나의 이런 감동은 대통령비서실로 나와서 더욱 격해져 흥분할 지경이었다. 어느 한 비서의 말에 의하면 수행원으로 처음에는 B장군이 예견되었었는데 이박사가 안되겠다고 해서 Y장군으로 바꿨더니 그 사람도 안되겠다면서 이승만자신의 지명으로 이 사람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경무대를 물러나온 나는 어떻게 그분을 〈모셔야〉 그분의 높은 신임에 부응도 하고 나 자신의 위엄도 한층 더 돋보일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해 보았다.

이리저리 생각하던 끝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면 한 나라의 원수인데 경무대경찰서는 있어도 시종무관(侍従武官)이 없다. 그런즉 그분의 시종무관이 된셈치고 행동하자〉 이렇게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는 군복위에 흔히 군참모들이 어깨에 걸치는 금빛 〈술〉을 구해서 느리고 그 옛날 장개석으로부터 수여받은 후 그날 그때까지 옷장밑에 처박아 두었던 〈근학장장〉을 끄집어내어 가슴에 달고 1953년 11월 27일 이승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으로 나갔다.

이승만은 3부 요인을 비롯한 고관장성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극동미군사령관 〈클라크〉의 전용비행기를 타고 정각 10시에 공항을 출발했다. 그는 자신의 대만방문을 극비에 부치게 하면서 관계부문에도 비행기가 이륙해서 한시간이상 지난 후에 보도하도록 엄명하는 것이었다. 아마 중공이 인접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는 것 같았다. 대만까지 미공군이 직접 공중보호를 해주었다.

대북(台北)에 도착하니 이박사에 대한 장총통의 환대는 융숭했다. 이승만은 3박하고 〈한중공동성명〉을 발표한후 4일만에 귀국했다.

11월 30일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있은 일이다. 이승만이 나를 찾는다기에 그의 앞으로 갔더니 그는 다짜고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공동성명을 보았나?〉

〈네 보았읍니다〉

〈그래, 자네 보기엔 어떤가. 미국사람들이 반공에 철저한 것 같아?〉

무슨 영문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 어물어물하다가 대답했다.

〈그야 어느 나라보다도 반공에 철저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겠읍니까〉

〈아니야, 그 사람들만 믿고 있을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직접 해보자고 해〉

〈무엇을 말씀입니까?〉

〈음, 동남아시아의 반공인사들을 우리 한국에서 규합하자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공동성명에도 발표한 것처럼 동남아시아에 집단반공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 그러자면 이 지역 여러 나라에 우리 사절단을 보내야 하겠어. 그러니 자네가 그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게나〉

나는 이 말을 듣자 반공에 투철한 이박사가 국내에서 뿐아니라 이제는 국외에까지 손을 뻗쳐 아시아반공사업을 주도하려 나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노인이 입으로는 무슨 〈민권〉이요 뭐요 하지만 머리속에는 자신이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예(後裔)라는 왕족사상이 꽉 들어차 종신집권을 하고 나아가서는 새 〈왕조〉라도 열어 놓을 심산에서 어떤 국제적 배경을 꾸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퍼뜩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까짓 이승만의 진속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다. 나의 눈앞에는 출세의 길이 확 열린 것만 같았다.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 앞으로 아시아제국을 순방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박사가 아시아반공체제를 구축하는 데 단단히 일역(一役) 함으로써 그가 새 〈왕조〉를 수립하는 데 〈공신〉이 되자는 생각에서 야이계주(夜以繼晝)로 나흘을 꼬박 바쳐 계획서를 만들었다.

이승만에게 가져다 바쳤더니 그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수고했네. 우리가 잘만 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어〉 하더니 다음날로 연세대학 총장 죠지·백(백낙준·白楽濬)박사에게 친선사절단장을 위촉한 것이었다.

그래서 단장의 이승만이 망명시절 〈하와이〉에서부터 인연이 깊다는 이범녕(李範寧), 경무대비서 황규면(黃圭冕) 그리고 나와 외무부 서기 이렇게 5명을 일행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그해도 저물어가는 12월 10일 동남아 순방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약 한달 동안 순방하고 돌아와서 단장이 이박사에게 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사람이 똑똑히 알 수 없었지만 소문에 의하면 단장이 독실한 기독교 교인인데다가 양식(良識)있는 교육자였던 탓인지 이 나라들의 반공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고 그 나라 통치자들이 내치(內治)를 잘하지 못하면서 그에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을 덮어놓고 공산당으로 몰면서 독재를 하는 통에 사회에 신의란 찾아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공산주의자들의 발호(跋扈)를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이 노인의 마음에 들 이(理)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이승만은 그후부터 백박사를 매우 소원(疎遠)하게 대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승만이 반공연맹사업을 단념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54년 2월과 4월에도 이범녕과 이 사람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동남아시아에 다시 파견하여 반공체제수립을 집요하게 계속 공작했다.

나는 이때 대북에 먼저 들려서 동남아시아 일대에 산재해 있는 화교유지들의 명단을 대만정부로부터 소개받아 가지고 말레이시아, 월남, 태국 등을 차례로 순방했는데 이 나라들에 가서는 한국의 외교적 지반이 없다고 해서 의례히 그 나라들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부터 찾아 갔고 그 다음에 대만정부에서 소개받은 화교들을 만나서 이들을 길잡이로 그 나라 요인들을 만나군 했다.

그래서 마침내 그해 6월 15일부터 3일간 진해(鎭海)에서 아시아민족반공대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월남, 비율빈, 태국, 류뀨, 마카오, 홍콩 등 5개국과 3개 지역에서 대표 31명이 참석했다.

이승만은 이 대회를 처음 구상으로는 각국 수뇌자급들로 꾸릴 작정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외상회의로 하려한 것이 그것마저 안되어서 민

간인들로 겨우 실현했다. 그러나 민간인이란 것도 이 나라들이 대회를 주최하려고 접어드는 이승만의 뒤에 미국의 입김이 서려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맞대고 거부할 수 없어 마지못해 동의하는체 했을 뿐이고 실지로는 그다 관심이 없는 데로부터 2류 3류급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보냈고 태국 같이 보잘 것 없는 선박회사의 주인 따위를 파견한 나라까지 있어 대회가 내건 간판에 비해서 너무도 맥빠진 감이 들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회 첫날 환영사에서 반공연맹 사업만 잘 틀어쥐고 나가면 아시아의 전도가, 특히 대한민국의 국운이 크게 틀 것같이 역설했다. 더우기 바로 이날 한국통일문제와 인도지나 휴전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제네바정치회담이 결렬되어서 그는 거의 광적(狂的)으로 보일만큼 반공을 고취했다.

당시 나는 그를 따라 새 이〈왕조〉를 세우는 데 〈공신〉이 되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던 판이라 그의 연설에 몹시 고무되어 그후에도 계속 그의 요구에 따라 동남아시아나라들을 역방(歷訪)했으며 1956년 3월 9일 〈마니라〉에서 제 2 회 대회가 열렸을 때에는 한국대표단의 한사람으로 참석하여 아시아반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열심히 강조했다.

그후 나는 월남공사로 나가게 되면서 반공연맹사업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박사도 아시아반공체제를 계속 강화해 보려고 애는 썼지만 난항(難航)만 거듭했고 마침내는 반공연맹내에서의 그의 주도적 지위마저 잃고 말았다.

처음에 그토록 기고만장(気高万丈)하던 이박사가 몇해도 못가서 이런 끝이 된 것은 나도 그후 많은 시일이 지나서야 느끼게 된 일이지만 이승만이 일제시기 해외에서 반일독립운동을 한다고 할 때부터 미국에 빌붙으면서 공산주의라면 덮어놓고 반대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8·15후 미국의 비호밑에 한국권좌에까지 앉고 멸공하겠다고 동란을 일으켰다가 패한 후에도 의연히 미국의 뒷받침을 받다 보니 극도로 자존자대(自尊自大)해지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더욱 감정적으로 독선적으로 되어 국제사회에서까지 혐오하게 된 데 기인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박사는 당시 일본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을 〈용공국가〉라 하고 일본의 연맹가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만과 내내 맞서서 성원국가의 화합을 이루는 데 늘 저해를 주었었다. 당시 반공연

맹이 주요한 공작대상국으로 삼았던 인도의 〈네루〉, 비율빈의 〈퀴리노〉 같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고집불통의 극우파〉라 보고 경원한 것도 이런 데서 온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을 업고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결성해서 새〈왕조〉를 수립하는 국제적 배경으로 이용하려한 이승만의 과대망상증이나 그를 〈받들고〉 이승만〈왕조〉의 〈공신〉이 되려다가 헛물만 켠 나자신의 우(愚)를 고소(苦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렵 나에게 있어서는 반공이 벌써 단순한 〈호신부〉나 〈처세술〉로서가 아니라 〈출세의 방편〉으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반공〉의 늪에 한걸음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자유당정부의 생억지

휴전후 새 〈왕조〉의 지반을 꾸리려는 이승만은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다. 그는 밖으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결성하고 그것을 주도하려 했을 뿐 아니라 안으로는 종신집권의 헌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돌적(猪突的)으로 나섰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라고 하면 국가의 기본법이라 해서 그 수정에는 국회내 특별다수의 동의를 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소위 〈4사5입〉이란 수학적 방법으로 국회내 특별다수를 날조해 가지고 개헌을 해서 종신집권을 실현하려 한 것이었다.

사실 이승만은 1952년에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펴고 일찌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폭압적 방법으로 〈발췌개헌〉(拔萃改憲)을 감행하여 자신의 정권욕을 실현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국회를 틀어쥘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승만의 배경이었던 자유당이 주로 원외(院外)세력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휴전이 되면서부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내에 과반수 이상의 자유당세력을 부식하여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자고 마음먹고 전후 첫 선거인 1954년 5월 20일 총선거때부터 짜고 나섰다.

자유당은 입후보자 추천에서 앞으로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을 서약하는 자들만을 공천하고 권력과 금력을 총동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자유당 의석수가 개헌선(改憲線)에 미달한 것이었다.

이런데로부터 자유당은 국회의석의 3분의 2선을 목표로 무소속의원 포섭공작을 전개했다. 결과 6월 10일 국회세력은 자유당 131석 민국당 15석, 국민회 2석, 국민당 2석, 무소속 53석으로 되었다.

여기서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重任制限)을 철폐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성안한 후 136명의 찬성서명을 얻어 9월 6일 정식 국회에 제안했다.

한편 이승만은 〈만일 개헌안을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보호할 충심(忠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국회에 맹목적 굴종을 강요하고 야당의원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이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1954년 11월 1일 제안된지 70여일만에 자유당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여야간의 백열적 논쟁이 약 1주일간 계속되었다. 쟁론의 초점은 물론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가 이박사에게 종신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거니 아니라거니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제1군단 사령부 소재지인 경기도 가평(加平)에 있으면서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던 나는 이박사가 내치를 잘해서 국민이 그의 영도를 지지만 한다면야 그가 대통령으로 몇번 취임하든 그 회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때 〈루즈벨트〉가 4선까지 하지 않았던가. 요는 얼마나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통치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당이 이박사를 잘 받들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 신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27일 오후 방청자 3,000여명의 주시속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는 가(可) 135표, 부(否) 60표, 무효 1표, 기권 6표, 결석 1명으로 당일 의장직무를 맡아 본 자유당의 최순주(崔淳周)부의장도 침통한 표정으로 〈부결〉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틀림없이 통과되리라고 예측했던 개헌안이 아슬아슬하게 1표차로 부결된 것이다. 이승만의 3선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승만정권이 몰락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 자신도 서운한 감이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유당에서는 원내 총무의 명의로 전날의 부의장 선언을 뒤집어엎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최부의장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것 같이 선포한 것은 의사과정의 잘못된 산출방법의 보고에 의하여 착오선포한 것이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의 정확한 수치는 135·33……인데 자연인(自然人)을 정수(整数)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원리에 의하여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다〉

정말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후에 들은 즉 27일 개헌안이 부결되자 자유당의 모사(謀士)로 이름난 장경근(張暻根)이 서울대학 수학교수 최윤식(崔允植)을 대동하고 경무대에 들어가 4사5입의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하자 이승만이 〈살 구멍〉을 찾은듯이 좋아하고 자유당 간부들이 그날 밤 이기붕(李起鵬)의 집에 모여 구수응의(鳩首凝議)했다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국민들의 울분과 반감은 물 끓듯 하고 정가(政街)는 혼란의 와중(渦中)에 빠진 것처럼 되었다. 분개한 민국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호헌동지회(護憲同志会)〉라는 교섭단체를 결성하고 신당운동을 전개하여 후에 민주당을 내오고 자유당도 내분이 격심하여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는 소란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의취(意趣)에 맹종하는 자유당과 정부의 고위층은 더욱 〈승리〉에 도취하여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이승만을 군주처럼 떠받들었다. 지폐와 은전(銀銭)에까지 그의 초상을 그려넣는가 하면 도처에 이승만의 초상화, 사진을 내걸었고 이승만이 한번 지방에 행차하게 되면 그곳 지방관리들을 시켜 사람들을 50리, 60리 밖에서까지 동원하여 환영케 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자유당정부는 각지에 송수탑(頌寿塔)을 건립하고 이승만의 호(号)를 떠붙인 우남(雩南)공원, 우남교, 우남로, 우남정 등등을 만들어 냈으며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이승만의 동상을 세우는가

하면 서울시의 명칭마저 우남시로 고치려 했다.

이승만의 총애를 받고 그의 3선개헌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던 나였지만 정권에 집착하는 나머지 유례없는 생억지를 쓰며 전제군주같이 행세하려 드는 그를 보고 나는 혐오감이라 할까 실망이라 할까 종래 느껴보지 못한 일종 야릇한 감이 나는 것을 억지할 수 없었다.

월남공사로 가다

그러던 중 1956년 4월 초 어느 날 나는 이승만의 부름을 받고 경무대로 갔다.

그는 나를 보자 〈오! 제네랄 최〉하는 것이었다. 이박사는 기분이 좋을 때에는 늘 영어로 씨부대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날도 아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지 첫마디부터 영어로 말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는 것이었다.

〈자네가 좀 동남아시아에 가 있어야겠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곳에 우리가 믿을만한 발판이 없단 말이야〉

그의 말에 의하면 반공연맹〈마닐라〉회의까지 했지만 동남아시아에 한국의 지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계속 공작을 해서 연대성을 강화하고 반공체제를 튼튼히 굳혀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남아시아에 아직 튼튼한 발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자네 생각엔 어디에다 그것을 하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가?〉

〈태국의 "방콕" 같은 데가 좋기는 하겠읍니다만 지금 형편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공" 같은 데가 어떨까 생각됩니다. 각하〉

〈사이공! 좋아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영사관을 하나 내볼까〉

〈영사관보다는 대사관이나 공사관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관을 우선 내오도록 해보세〉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군단장을 1년하고 퇴역하기가 아쉰 감이 들어서였다.

〈각하! 저는 퇴역할 나이가 되자면 아직 멀었읍니다. 좀 더 군복을 입고 싶습니다〉

〈일없네. 꼭 군인생활을 더 하고 싶다면야 월남에 갔다 와서도 할 수 있잖나. 자네야 월남과 인연도 있고 하니 월남에 나가 보도록 하세〉

이 노인은 내가 반공연맹사업관계로 수차 월남을 방문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았다.

휴전회담에 참가하면서부터 이박사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 온 이 사람은 그의 4사5입 개헌에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그이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사이공〉에 갈 결심으로 1956년 4월말 오랜 군인생활을 그만 두고 이택근(李択根)중령을 무관으로 대동하고서 초대 월남공사로 갔다.

〈사이공〉에 도착한 나는 불란서로 출국해 갔다는 사람의 개인사택(私宅)을 구입해서 한국공사관으로 쓰기로 했다.

그후 이 사람은 공사로 있으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1957년 〈고•딘•디엠〉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있은 일이다.

천주교도인 〈고〉대통령이 노기남〈盧基南〉대주교의 알선으로 미사에서 장면부통령을 만났었다. 나도 월남공사로서 그 미사 장소에 갔었다.

그런데 그후 〈고•딘•디엠〉이 장면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풍설이 정가에 쫙 퍼졌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를 알아본즉 경무대 호위책임자 곽영주(郭永周)가 발설한 것이었다.

당시 곽영주의 말이라면 이박사가 무조건 신임했다. 장관도 자유당 당무위원도 그의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였다. 사람들이 그를 〈부부통령〉(副副統領)〉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장면은 매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니와 “고„대통령은 이박사를 존경하는 분으로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진부(真否)를 가려주었다.

그후 1959년 초에 이박사가 월남을 방문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면서 이 사람은 주월대사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해 10월 11일 〈사이공〉에서 일어난 소요와 관련해서 또 〈고〉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이날 아침 3시경에 일부 군인들이 〈고•딘•디엠〉정권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었는데 한국대사관은 월남대통령관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관저를 건너다 볼 수 있었다.

그날 반란군이 방송국과 중앙전신전화국을 점령하고 정부군이 패한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당시 〈사이공〉주재 미국대사와 외국기자들까지 다 〈고•딘•디엠〉정권이 반란군에 의해 붕괴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나는 월남대통령관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를 종일토록 직접 목격하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무전으로 실상을 서울에 보고했는데 이 소요는 3시간만에 진압되었다.

서울에서는 내외기자들이 나의 보고에 기초해서 보도하게 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고〉대통령의 위신이 사실이상으로 와전되지 않았다.

〈고•딘•디엠〉은 이때 있은 일로 해서 이 사람에게 각별한 호의를 가졌던것 같았다.

제 2 절 정권파동을 타고

4·19와 〈매카나기〉의 축하연

1959년 10월 〈고〉대통령을 반대하는 〈사이공〉소요를 목격한 나는 그것이 비록 진압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의 일 같이 생각되지 않았다. 이박사가 4사5입 개헌 같은 생억지 공작을 예사로 벌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썩 좋지 못한채 그의 요청으로 〈사이공〉에 온 이 사람의 가슴 한 구석에는 〈이박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 그가 만일 잘못되는 날에는 나도 무사할 수 없다〉는 공포심, 위구심(危懼心)이 늘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이승만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요 그의 신임으로 〈사이공〉에 왔다는 것을 온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의 봄은 전통적으로 정치의 계절인데 1960년 봄에는 제 4 대 대통령과 제 5 대 부통령 선거가 예견되고 있었으니 나는 한국의 정정(政情)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유념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속에서 2월 3일 정부에서 선거일을 3월 15일로 공고하자 나

는 한층 더 긴장하였다. 이 무렵에 벌써 자유당과 정부 당국자들은 민의야 어떻든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기붕〉에게 압도적 영예를 헌상(献上)하기에만 급급하면서 비정(非情)한 선거계략을 마구 꾸며내고 있었다.

〈사이공〉에 있으면서 〈매스•콤〉을 통해 내가 알 수 있은 것만 해도 미국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이 2월 15일 밤에 심장마비로 급서(急逝)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출마 후보 추가등록의 길을 열어 달라고 제의했는데 정부에서는 거부한 것이었다.

자유당과 정부는 또 민주당의 장면의 도전을 받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2월 28일 대구에서 장면이 선거유세를 한다니까 연설장소에 군중의 운집(雲集)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침 그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정상(正常)출근시키고 학생들도 전원 등교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내무장관 최인규(崔仁圭)는 전국 군수 서장에게 ①4할사전투표 ②3인조 9인조 공개투표 ③완장부대에 의한 투표소확보 ④민주당참관인의 매수축출 등 이른바 부정선거 4개원칙을 강행하라고 지령했다.

나는 정말 모골이 송연(竦然)해지는 것을 느끼었다. 아무리 선거전이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야 있는가 하는 감이었다. 한국에서 무슨 변이 꼭 터질것만 같았다.

그런데 예상한 바대로 3월 16일 〈사이공〉방송이 전날 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민주당이 그날로 선거무효를 선언했고 저녁 7시 항구도시, 마산(馬山)에서는 수백명의 청소년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했는데 경찰발포로 80여명이 사상되었다고 전하는 것이었다.

예기하지 않는 바 아니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떨리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선거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국민축제일로 되어야 할 것인데 발포로 인해서 살인참극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한국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통탄할 일이었다.

그 다음날인가 이승만이 총투표수의 89%를 얻고 이기붕도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되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날의 마산유혈사건이 〈공산오렬의 소행〉이었다는 것이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4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다.

전날 마산에서 학생시위가 있었을 때 실종되었던 소년 김주렬(金朱烈)군의 시체가 눈에 최루탄(催淚弾)이 박힌채 낚시꾼에 의해 부두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마산시민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드디어 터졌구나〉했다.

그런데 4월 19일 오정때 대사관 무관 정대령이 대사실로 황급히 찾아 들어와서 말하는 것이었다.

〈대사님 서울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3·15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답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는 지난날 목격한 〈사이공〉소요가 선히 떠올랐다.

나는 이때부터 외신보도에 더 주의를 돌리었다.

그런데 듣자니까 미국무장관 〈크리스천 허터〉가 공식성명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데모가 최근의 선거에 대해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안될 억압적 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의 표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승만의 실정(失政)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것이었다.

더욱 놀랜 것은 4월 20일 아침에 〈매카나기〉주한미국대사는 이승만을 만나서 〈만일 대통령이 획기적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 같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미국이 내놓고 하는 일종의 위협이었다.

나는 이승만정권의 운명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국의 사태를 더욱 주시했다.

이승만은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케 한다, 허정 변영태와 시국수습책을 협의한다,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 사퇴를 성명케 한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자유당총재직마저 사퇴한다고 선언해 나섰다.

이것은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남에게 밀어 붙이고 자신의 권좌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인의 속셈으로 짐작되었다.

4월 25일 오후 대학교수들까지 가두시위에 나섰다. 26일에는 50만

서울시민이 거리로 나와 온 장안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파고다〉 공원에 서있던 이승만의 동상이 밧줄에 목을 묶이어 거리 거리로 끌려 다녔다.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때 광화문통 네거리에 한 소대 가량의 군인이 출동되어 시위대가 경무대쪽으로 가지 못하게 성벽처럼 막았다.

군중속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신사 하나가 〈우리들을 쏘아 죽이시오. 동포들을 다 쏘아 죽이시오〉하고 병사앞으로 다가섰다.

이때 소대장처럼 보이는 군인이 경상도 사투리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요. 거 무슨 말씀입네까…섭섭합니데이. 우리도 같은 핏줄기의 군인입니데이. 여러분에게 총을 쏘라면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 이 아스팔트땅을 쏘지요데이. 아저씨요 삽가시이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위대열속에서 〈국군 만세〉〈국군 만세〉하고 함성이 울랐다.

군대의 총은 〈안쏘는 총〉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시위군중과 병사는 뜻을 같이한 전우와 같았다. 시위대열은 경무대로 육박해 갔다.

이런 속에서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성명했다는 것이다.

한때 새〈왕조〉를 세우는가 싶던 이승만 전제가 민권을 요구하여 노도와 같이 일어난 국민의 항거앞에 마침내 붕괴된 것이다.

이승만이 1954년 5·20 선거후 특유한 술수(術数)로 전횡만 더 심하게 부리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정치수복(政治寿福)을 바란것이 숨길 수 없는 나의 심정이었다.

나는 그가 건재해야 나의 장래도 밝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몰락은 나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나로 하여금 민중을 정시(正視)하게 하였다. 나는 〈지극히 약해도 못이기는 것이 백성이요〉(至弱而不可勝者民)〈지극히 어리석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다〉(至愚而不可欺者民)라고한 옛말의 뜻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부언하려는 것은 이승만대통령의 하야를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이 주한 미국대사 〈매카나기〉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승만관(李承晩観)에 관한 문제로서 이왕 4·19 이야

기를 하던 끝인만큼 이에 대해서 내가 듣고 느낀 바를 오늘의 시점에서 밝혀두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상 싶어 몇마디 덧붙여 둘까 한다.

상술한 데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는 권좌에 어떻게하나 눌러 앉아 있으려고 끝까지 아득바득 애쓰다가 할 수 없어서 물러난 것이다. 아니 물러났다기 보다 쫓겨 났다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기뻐서 〈매카나기〉대사는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낸 그날 저녁으로 미대사관에서 축하연까지 베풀었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좀 지나친 일 같기도 하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위대한 애국자〉요 〈한국의 국부〉요 하면서 이승만을 내세우던 그가 이박사의 하야를 섭섭하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축하연까지 열고 기뻐하다니 선뜻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미국의 대한정책의 양면성(兩面性)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전략을 위해서 휴전후 이승만의 권위를 부쩍 높여 주려고 그로 하여금 밖으로는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형성하게 하고 안으로는 3선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후 이승만은 〈국부〉라는 환상에 빠져 독선과 아집(我執)이 날로 우심해졌다.

특히 그는 대일관계에 있어서 완고했다. 그는 일본이 역사적 전비(前非)를 공식사과하고 한국에 겸허하게 대하면서 지난날의 침략적 근성을 버릴 뿐 아니라 앞으로 공산주의세력의 신장에 대항할 것을 맹세하지 않는 이상 국교를 정상화하기 곤난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었다.

게다가 이 무렵 이승만은 80고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80세라 해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이승만의 경우 몹시 노쇠하여 정사(政事)에 대한 창의력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자존(自尊) 자고자대(自高自大)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도 반말로 훈유(訓諭)하는 것이 상례였다. 어찌다가 잘못을 저지른 장관에 대해서는 〈피덩이 같다〉느니 뭐니 하고 참을 수 없는 하대를 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장관의 얼굴을

분간 못해 〈자네가 누구더라〉하고 물은 적도 있었다.

이승만이 장관을 상대로 내린 정책지시라고 하면 가령 농림부장관에게는 〈쌀값 오르지 않게 해〉, 내무부장관에게는 〈공산당이 없도록 해〉 하는 식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이 원만히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독재가도를 더욱 치닫고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그가 오래 집권하면 할수록 그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유리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미국의 대한정책도 따라서 저해된다고 미국은 보게 된 것이다.

때문에 〈아이젠하우워〉는 이미 1959년 여름에 이승만과도 친분관계가 있는 〈월터 저드〉 공화당 하원의원을 한국에 보내서 이승만에게 한국의 청장년층에게 신망이 높은 젊은 후임자를 물색해서 정권을 넘겨주고 대통령자리에서 은퇴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집권욕에 있어서 초인적인 뚝심을 갖고 있는 이 노인은 〈저드〉의 충고이자 〈아이젠하우워〉의 권고를 일소(一笑)에 부치고 말았다.

〈아이젠하우워〉의 이승만관을 더 따져 올라가 보면 〈에버리디〉 (ever ready—항상준비)작전으로 6·25동란때 벌써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일까지 있었지만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에서 〈왕조〉를 세우려는 그를 지원도 해주었는데 1958년 경부터는 결정적으로 〈이 노인을 가지고서는 안되겠다〉고 보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판국에 4·19가 터지니까 미국측에서는 이 의거를 한국 국민의 〈정당한 불만〉(Justifiable grievance)의 표시로 묘사하고 이승만에게 〈획기적 수술〉을 단행하라고 요청도 하고 하나의 외국공관으로서는 너무도 간섭적이어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성명도 낸 것이었다.

그리고 또 후에 안 일이지만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승만이 〈이정권 퇴진하라〉고 외치는 시위군중의 함성을 들으면서 48시간 이내에 자신의 사임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을 〈매카나기〉가 〈유혈사태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압력을 가한 것이었다.

바로 이렇게 미국은 자기의 아시아전략을 위해서 이승만을 퇴진시키려고 몇해째 별러오던 터에 그가 하야함으로써 자국의 요망이 실현되고

대한정책의 위기를 일단 면하게 되니까 이것이 기뻐서 〈매카나기〉는 그토록 축하연까지 베풀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쾌재(快哉)〉를 부르며 노래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한국대통령이란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따른 현지정책을 집행하는 하수인(下手人)이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그를 바꾸어 앉힐 수 있다고 하는 말의 참뜻을 나는 4·19때 실감했다.

또한 이는 결코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도 한다.

임지로 그냥 돌아가시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구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주외대사들은 일단 새 정권의 신임을 묻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즉 사표를 형식상으로나마 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4·19후 허정과도정권이 나왔을 때 이승만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주외대사들은 이박사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더러 미국에 이러저러한 연고들을 가지고 있었던 데로부터 사표고 뭐고 없이 거의 다 미국으로 도주했다.

나는 이박사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근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남과 같이 미국에 신통한 배경이 없었다. 그들처럼 갈려고 해도 갈 곳이 없었다. 돌아갈 곳은 오직 고국 뿐이었다.

나는 〈정권은 바뀌었어도 대한민국은 그대로 있지 않는가. 주권국가인 대학민국의 직업적 외교관으로서 원칙적 도리를 지키자〉하는 배짱에서 신임을 묻기도 했다.

나는 허정씨가 외무부장관이지만 과도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수영(李寿栄) 외무부차관에게 나의 거취(去就)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문의했다.

〈대사님이 귀국하면 이승만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분인데다가 거창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무슨 사태에 빠지게 될지 모르니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이것을 그의 호의로 받아들이면서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후 민주당정권이 서자 나는 곧 대사직의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

다. 9월 하순 사표가 접수되었다고 〈사이공〉에 알려 왔기에 나는 귀국 인사차 〈고〉대통령을 방문했더니 그는 환송만찬까지 베풀어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최대사께서 본국에 가시면 난처한 일이라도 있지 않겠읍니까〉

〈알 수는 없읍니다만 그래도 일단 돌아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이공„대학에 한국어반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시지 말고 여기서 그것을 맡아 보아주시면 어떻겠읍니까〉

나는 속으로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군인기질이라 할까 〈당할 일은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번은 귀국해서 정무보고도 해야 하겠읍니다. 사정을 보아서 올 수 있다면 그후에라도 오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나는 〈고〉대통령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10월 17일 이 나라 부통령을 비롯하여 외무부장관 국방장관대리 등의 배웅을 받으면서 서울로 향해 〈사이공〉을 떠났다.

도중 홍콩을 거쳐 대북에 들렸을 때 대만주재 월남대사로부터 자기나라 〈고〉대통령의 전문을 전하기 위해 여관으로 나를 찾아오겠다는 전화가 왔다. 잠시후 그가 가지고 온 전문을 본즉 〈귀정부에서 귀하를 우리나라 주재 대사로 유임시킨다고 하니 사이공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한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전보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직접지시가 필요하고 또 이미 서울 가까이까지 온 것만큼 외무부앞으로 확인전보를 쳤다.

〈"고„대통령의 전보를 접하였읍니다. 소관을 유임시켰다고 하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이 없으면 원 일자대로 서울에 도착하겠읍니다〉

그후 확신이 없어서 나는 예정된 날 서울로 갔다. 김포공항에는 외무부직원이라곤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다. 나와 함께 월남에 가 있다가 국방부 의전담당관으로 전임한 이택근중령이 강명훈중장과 함께 마중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장면총리를 찾아갔다.

그는 나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고 월남의 〈고•딘•디엠〉대통령이 최대

사를 제 2 공화국에서도 월남대사로 계속 유임시켜 주기 바란다고 정중히 부탁해 왔다고 하면서 〈임지로 그냥 돌아가십시오〉하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그가 〈살 구멍을 열어주는 사람〉같이 느껴졌다.

며칠후 제15차 유엔총회에서 돌아온 정일형외무부장관을 만났다.

인사를 하고 사연을 말한즉 첫마디로 〈그런 일은 총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하고 나의 재출국(再出国)을 승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 대한 정일형의 사감(私感)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정일형은 1950년 5월 국회의원선거 때 나의 가친과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해서 가친이 3만표를 얻었지만 당국의 압력으로 당선을 포기하는 바람에 9천표를 얻고서 선량(選良)이 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총리 장면의 의사를 몽탕 깔아뭉갤 수가 없었던지 며칠 있다가 승인해주어서 나는 그해 10월 하순 월남대사직에 유임하는 형식으로 다시 〈사이공〉으로 갔다.

회고하건대 이 사람이 〈사이공〉에 대사로 나간 것은 이승만의 개인적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자신도 그의 신임에 보답하려고 꽤 많이 마음을 썼다. 그만큼 이 사람과 이승만과의 관계는 깊었다.

무슨 군신(君臣)간의 봉건적 의리처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계로 보아 나는 이승만과 함께 관직에서 물러났어야 옳았을 것이다.

허나 나는 〈주권국가인 한국의 직업적 외교관〉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허정, 장면 양정권에 계속 복무했다.

돌이켜 보면 당시 한국을 주권국가인양 생각한 것도 가소로운 일이거니와 〈직업적 외교관〉 운운한 것도 화려한 관직에 대한 자신의 소승적(小乘的) 입장을 변호한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

군사정권을 지지하다

〈사이공〉으로 돌아온 나는 이전과 같이 주간 정무보고를 정상적으로 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승만대통령 앞으로 보내던 영문보고를 이번에는 국문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것 뿐이다.

영문으로 하던 보고를 국문으로 낸 데 대해서는 여기서 한마디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상 싶다.

본래 나는 1956년 4월 월남공사로 부임하자 정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이승만대통령 앞으로 냈다. 국문으로 타이프까지 쳐서 보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세번 네번 내도 서울로부터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알아본즉 이승만 앞으로 보내오는 문서는 일체 그의 부인 프란체스카여사가 대통령비서격으로 먼저 뜯어보고 영문(英文)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녀는 우리 국문을 모르니까) 아예 대통령에게 올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도 영문으로 보고를 냈다. 즉시 회신이 왔다. 이때부터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문으로 보고하였다.

생각하면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이었다. 미군정시기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 맥아더의 포고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민국수립후 정부에 내는 보고가 영문아니면 통하지 않는 판이니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이 나라가 단단한 병집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주외공사라 하면서 이런 명명백백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프란체스카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출세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정무보고를 열성껏 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민주당정권이 서니까 제 격식대로 외무부장관 앞으로 국문보고를 낸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 정일형장관에게 경원당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한 것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10월달에 서울에 갔다가 민주당정부 조각때 신구파 사이에 불미한 파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좀처럼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왕조를 세우려던 이승만정권도 무너졌는데 장면정권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자중하자〉하는 생각이 자꾸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무에 안착하지 못하고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1961년 5월 16일 낮에 월남방송이 긴급보도를 전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아침 9시부터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중장 명의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외무부에 전보를 쳤다. 아무런 회신도 없었

다.

그런데 마침 함병선(咸炳善)중장이 군사시찰차 월남에 와 있었다. 함중장은 이 사람이 제2연대장으로 있을 때 연대 군수참모였다. 사람을 띄워서 그를 불러왔다.

〈함중장! 서울 정세이야기나 좀 들려 주십시오〉

〈군사혁명 말씀이시군요〉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이 바뀌고도 의장으로는 장도영육군참모총장 이름이 그냥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현역 육군참모총장 명의가 〈혁명〉조직의 〈장〉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의아심을 품었던 나는 우선 이렇게 물었다.

〈장총장은 그저 간판인것 같습니다. 배후실력자는 박정희소장이랍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나왔다는 것은 전군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소〉

〈8기생이 주동입니다〉

8기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육사교장 때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혁명군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듯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철수하지 않겠구만!〉

〈철수라니요. 그들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민생고를 해결하는 과업을 성취해야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함중장은 이미 〈군사혁명〉의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온 것 같았다.

〈음……하지만 미국측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서 혁명을 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일념에서지요. 그들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읍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이 사람은 본시 군사쿠데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동하는 바 있었다.

그것은 우선 구정객들이 부패한 데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던 터에 젊은 군인들이 이를 일소하고 참신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구정객들이 얼마나 썩은 정치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모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들이 요정에서 진 외상술값이 억대(億台)를 넘는다는 한가지 사실만 보아도 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날 그날의 끼니를 못이어 초췌한 모습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데 그들은 〈국민의 선량〉이라고 해서 혹은 〈민주정부의 고관〉이라고 해서 정치를 요정과 치마바람 아래서 제멋대로 요리하고 외상값은 다음에 거두어 들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을 셈으로 갖가지 구실을 붙여 고급요정에 파묻혀 가지고 주지육림(酒池肉林)을 구가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망국지폐풍(亡国之弊風)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된 것은 다음으로 젊은 군인들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다 하게 정립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그 어떤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민주주의적인 것을 지향하는듯한 것이 〈축멸양왜(逐滅洋倭)〉, 〈제폭구민(除暴救民)〉을 주장하는 천도교 사상과 일맥 통하는 것 같아 호감이 갔다.

이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된 것은 또한 쿠데타의 주동이 육사8기생들이요 특히 그 주동인물이라고 인정되는 장도영, 박정희가 이전에 나의 부하이거나 제자였기 때문이다.

내가 군사정권을 지지하게 된 가장 크고도 직접적인 요인은 아마 이것인지도 모르겠다.

장도영은 내가 제3여단장을 할 때 제5연대장이었고 박정희는 내가 육사교장을 할 때 대위로서 생도대 중대장이었다.

박정희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그를 친일파 민족반역자라 하지만 5·16 당시 나로서는 그가 만군 출신으로 남노당(南労党)에 관계했다가 여순사건 때 동지들을 밀고한 바 있다는 사실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 그는 만주군 출신이라 해도 친일파치고는 졸자였고 여순사건 때 누구를 밀고했다는 사실도 이 무렵에 와서는 거의 망각되고 있었다.

도리어 그는 군인들 속에서 똑똑하고 비교적 청렴한 축인 데 〈숙군〉후 불우한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당시 그와 마찬가지로 불우한 형편에 있으면서 부패한 구정객들과 고급장성을 증오하는 일부 젊은 군인들이 서로 엉켜서 박정희를 업고 거사를 모의한 것 같았다.

때문에 나는 그만한 사람까지 친일파로 배척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되지 않는 한 친일파들과 손잡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을 고무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5월 하순에 나는 군의 선배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장도영 의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신(私信)을 보냈다.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고 산중의 범이 시가지에 나와서는 맥을 추지 못하는 법이다. 군인들이 나와서 어지러운 서울거리를 청소하고 군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자면 민정이양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인즉, 그 절차는 윤보선(尹潽善)대통령을 중심으로 각계층 국민의 대표를 망라시켜 만드는 것이 좋을 줄로 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인들의 요구가 무시될 이(理)는 없을 것이다. 군인들이 서투르게 하다가는 사회만 시끄럽게 만들 수 있다.

물론 회신을 기다렸던 바는 아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고국의 정정(政情)에 대해서 궁금증만 더 커지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무엇보다도 군사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5·16후에 나온 〈뉴욕 타임즈〉를 들추어 보았는데 5월 19일자 신문에 〈"볼즈,,차관은 미국이 한국의 새 군사지도자들을 승인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대사관은 장총리가 사임하기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혁명위원회와 일을 처리했으며 앞으로는 분명 그렇게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나는 군사쿠데타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6월 말경 나는 군사정권으로부터 비율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나라들에 친선사절단을 이끌고 가라는 훈령을 받게 되었다.

친선사절단장과 점괘(占卦)

군사정권의 훈령을 받은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반가웠다. 숱한 사람들이 쿠데타후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이고 부정축재자처리법에 걸렸는데 나에게는 친선사절단장이 되어 일역(一役)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아닌가 해서였다.

사실 이때 군사정권에 대한 국제적 반향은 좋지 못했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한국에서의 군사쿠데타의 당위성을 우방과 중립국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미주와 구라파 아프리카 중근동 동남아 등 5개 지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면서 이 사람에게 동남아지역을 담당케 한 것은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태도를 명백히 한 것과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이승만정권 때 이 지역을 자주 나다닌 일이 있고 또 이 시기 이 사람의 부임지 〈사이공〉이 동남아지역의 중심인 데다가 내가 대사신분이지만 오랜 군인으로서 그들의 선배로 된다는 사정 등이 감안되어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싶었다.

그 사유는 어쨌든 나는 군사정권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한몫하리라 마음먹고 사절단장으로서 떠날 준비를 서둘고 있었는데 서울로부터 첫 훈령에는 없었던 대만과 일본도 방문하라는 추가훈령을 보내온 것이었다.

이것을 받고 보니 일본에 갈 바 치고는 아예 서울까지 가서 군사정권 당국자들도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6월 말에 곧바로 서울로 갔다. 가자마자 장도영이 연금되고 7월 3일에는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들어앉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는 장도영의 이름으로 된 사절단장의 신임장을 박정희의 이름으로 고쳐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최고회의 의장실로 박정희를 찾아갔다. 그는 〈선배님〉하면서 반가이 나를 맞아주고 〈군사혁명〉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데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김종필도 만나보려고 중앙정보부장실을 찾아갔다. 승리자연하는 그에게

인사말을 했더니 그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하고 동남아제국들과의 친선을 기하는 데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래서 나는 그들이 〈선배〉로 대해주는 데 흐뭇한 심정마저 느끼면서 군사정권에서 정해주는대로 조남철(趙南哲) 김준엽(金俊燁)외에 외무부 사무관 1명을 수행원으로 대동하고 7월 상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우리 일행은 일본을 거쳐 대만 비율빈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월남 태국 캄보디아 버마 세일론 라오스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 15개국을 순방했다.

이 역정(歷程)에서 이름있는 정치가 외교가를 허다하게 만났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도의 〈네루〉수상이었다.

나는 일행과 함께 인도 외무비서장이 안내하는대로 처음에 한 조그마한 방에 들어갔다. 서울 큰 병원의 환자대기실만하다 할까 넓이도 그렇고 의자도 모양없이 만든 나무벤취였다.

나는 우리를 잠시 여기서 쉬게 했다가 〈네루〉의 방으로 데려가려는 것으로 짐작했다. 그리면서도 속으로는 만리타국에서 찾아 온 〈국빈〉을 어떻게 이런 초라한 곳으로 인도하는가 하고 다소 불만스러운 감마저 없지 않았다.

그런데 한 5분 있으니까 그 방의 안쪽 문을 열고 웃는 낯으로 〈네루〉수상이 나오면서 어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있던 방이 외빈 대기실이었으며 〈네루〉수상에게는 따로 응접실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사무실 역시 우리 나라의 국민학교 교장실을 연상하면 될만큼 극히 간소했다. 방안에는 커다란 테블이 하나 있을 뿐이고 벽에도 아무런 장식이 없었다.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하는 의자나 〈네루〉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모두 딱딱한 나무의자였다. 해가 찌는듯이 무더웠지만 선풍기도 없었다. 〈네루〉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흰 무명으로 만든 반양복식 인도복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이 소박한 〈네루〉수상의 생활태도에 자신 모르게 감동되었다.

나는 서서히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역사적 배경과 그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한·인(韓·印)국교관계설정을 요청했다.

〈국토가 양단된 나라들과의 국교문제는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다. 당

장 대사급관계를 설정하면 영구분단을 조장하고 한반도통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 무역대표부를 두고 있는데 곧 영사관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니 남한에서도 무역대표부를 두었다가 북한과 같은 날자에 같은 급의 영사관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오스트라리아 총리 겸 외무장관 〈멘찌스〉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의 하나이다.

그는 우리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는 것을 20분동안만 만나자고 간청을 해서 겨우 면회했는데,

〈무슨 일로 당신들은 나를 만나자고 오셨소〉

하고 첫 마디부터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나는 〈웰(Well)〉하고 대답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우리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신같은 대정치가의 고견을 들으려 왔읍니다〉

〈당신같은 대정치가〉라는 말이 나의 입에서 떨어지자 그의 쌀쌀하던 표정은 삽시간에 누그러지고 말씨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도 당신들을 지지해 왔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들이 군대를 가지고 합헌정권을 뒤집어 엎지 않았소〉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읍니다〉하고 나는 한국의 실정을 설명했다.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듯도 하오. 허나 나의 의견을 듣고저 한다니 말하겠소만 그 시기는 언제가 되든지간에 당신들은 민정이양하겠다는 것을 꼭 세상에 선언하시오〉

의회민주주의를 〈모토〉로 하는 그는 한국군인들이 아무리 국정의 혼란이 나라의 〈공산화〉 위협을 가져온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손 치더라도 의회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여기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루울〉을 파괴한 데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자세였다.

〈당신네 정권은 장면씨가 어떤 좌익적인 집단에 700달러를 기증했다고 해서 그분을 반국가적 용공분자로 몰아 10년 징역형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아주 비리비정한 일이오. 세계여론도 나쁘오. 장면씨는 나와 같

은 당신네 총리였소. 나는 1년에 500만달러를 특별판공비(辦公費)로 마음대로 쓰고 있소〉

이러는 사이에 처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우리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토록 냉정하던 그는 우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문밖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도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정(情)과 열(熱)에서 받은 인상을 잊을 수 없다.

끝으로 이때의 친선방문과 관련하여 〈에피소드〉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 일행이 방문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홍콩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내일 같이 떠나기로 하고 홍콩총영사관에 인사차 3명의 수행원들은 가고 이 사람 혼자 호텔에 남아 있었다. 저녁에 회식(会食)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홍콩에 거주하는 저명인사 한분이 내방해 왔다. 잠시 담소(談笑)한 후 그분이 호텔뒤에 옛 불당(仏堂)이 있는데 함께 구경가자는 것이었다.

가서 본즉 우리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불당이었는데 한 곳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동행한 분이 〈한번 쳐보시죠〉하는 것이었다.

나는 점괘 따위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 숙부되는 사람 한분이 맹인으로 서울에서 점괘를 봐주는 것을 본 일이 있어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의 권유를 다짜고짜로 거절하는 것도 민망스러워서 여수(旅愁)를 풀 겸 장난삼아 괘통을 흔들고 점괘 하나를 뽑았다.

〈당신은 북쪽으로 가는 것을 삼가하시오〉 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튿날 북쪽인 서울로 떠나야 할 이 사람으로서는 듣지 않는 것만 못했다.

그들이 말하는 북쪽이란 물론 중공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 약속시간이 되어 돌아와서 총영사관을 다녀온 수행원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들의 안색도 그닥지 밝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읍니까. 안색들이 좋지 않은데……〉

〈아이고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단장님! 단장님을 모시고 서울까지 가야 하겠는데 총영사관에 보내온 이 전보 좀 보십시오〉

그들이 내놓은 전보를 보니 〈단장은 임지로 가고 기타 성원들만 서울로 오라〉는 것이었다.

〈아. 이래서……그렇다면 근심 말게〉

물론 우연한 일이지만 점괘가 맞아 떨어지는 데 나는 놀라면서 내심 반가운 생각으로 불당에서 점괘를 뽑은 이야기를 쫙 했다.

〈그렇습니까 잘 되었읍니다. 단장님 운수가 트는 것 아닙니까〉

수행원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지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다. 모두 귓맛 있는 소리들이었다.

〈하하하…… 아무튼 정부의 훈령대로 합시다〉

나는 정부훈령에 따르는것이 점괘에 따르는 것으로 되고 앞으로 무슨 행운(幸運)이라도 얻을 것만 같아서 여간 마음이 놓이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 그들을 전송한 후 이 사람은 〈사이공〉으로 귀임했다.

약 달반이 지난 10월 11일 서울에서 전보가 왔다.

〈귀 대사는 외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으니 출발준비를 바람〉

10월 15일 또 전보가 왔다.

〈17일까지 서울도착 요망〉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4·19후 돌아왔을 때에는 외무부직원이라곤 그림자도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원경(李源京) 차관 이하 외무부 고급직원 전원이 나와 있었다.

나는 무척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義)보다 이(利)에 밝은 인정세태를 보는 것 같아 얄미운 감도 없지 않았다.

〈텍사스〉작전

나는 여기서 내가 외무부장관시절에 겪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박정희가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집권초기 벌써 지역감정에서 사람들을 잔악하게 체포구금한 사실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하려 한다.

본래 박정희로 말하면 5·16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

은 한개 소장(少將)이었다. 이승만정권 때 핵심세력권내에 한번도 들어가본 일이 없었으며 영어회화도 변변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그는 〈에집트〉의 〈낫세르〉가 〈나기브〉장군을 이용하듯이 군사쿠데타를 일부 젊은 군인들과 모의할 때부터 장도영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려는 심산이었다.

장도영은 평북도 용천 출신으로 일제에게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8·15후 귀국하여 창군사업에 참가하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다가 미국에 가서 참모대학을 졸업하고 〈매그루터〉 미군사령관의 안중에 들어 1961년 2월 육군참모총장에 기용된 사람이다.

때문에 장도영을 내세우기만 하면 쿠데타가 거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도 좋고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의심을 살 염려도 적었던 것이다.

또 박정희와의 개인적 관계를 놓고 보아도 두 사람 사이에는 각별한 관계가 있어 박정희는 장도영에게 그야말로 결초보은(結草報恩)해야할 은혜를 세번씩이나 입은 바 있었다.

박정희가 여순사건후 숙군작업이 벌어져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을 언도받았을 때 만군출신 동료들의 구명운동으로 옥(獄)살이를 면하고 출감은 했지만 호구지책이 없어 곤란해하는 것을 정보국장이 된 장도영이 정보과의 무보수문관으로 채용하고 과원들의 모금(募金)과 정보비에서 일부를 쪼겨 박정희에게 생계비로 지급해 주었다.

6·25동란이 일어났을 때 〈군인사법(軍人事法)〉에는 〈전과로 파면된 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장교로 복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장도영이 장교부족을 구실로 하여 당시의 복직심사위원장 황헌친(黃憲親)과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의 협조를 얻어서 박정희가 파면될 때의 계급인 소령으로 복직시켜 주었다.

또 민주당정권 때 예편되게 되어있는 그를 제 2군 사령관이었던 장도영이 육군참모총장 최경록(崔慶綠)에게 요청해서 제 2군 부사령관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박정희와 장도영의 인간적 유대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장도영을 업고 나선 것은 그 무슨 운명적인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박정희가 이때 실지 장도영을 어떻게 업었는가.

이 사람은 〈주체세력〉에 속했던 대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1961년 5월 10일 박정희가 장도영참모총장을 방문하고 쿠데타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협력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그는 냉냉했다.

〈나는 협력할 수 없소〉

〈그러면 묵인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셔도 협력해 주신 것이나 다름없이 숨은 공적으로 여기겠읍니다〉

〈아니요 나는 협력도 할 수 없고 묵인도 할 수 없소. 그러나 밀고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겁한 것은 안하겠소〉

〈잘 알았읍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지도자로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총장각하!〉

엿새후 16일 새벽 3시를 기해 거사한 박정희가 5시에 군사혁명위원회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고 방송하고 9시에 육군본부로 장도영을 찾아갔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읍니다. 처음 계획에서 총장각하를 모시고 거사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순간에 있어서도 각하의 지도를 받아 혼란된 국정을 바로 잡을 결심은 변함이 없읍니다. 각하께서도 저희들의 미충(微衷)을 이해하시고 앞장서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인 나는 혁명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 없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오〉

〈아니 그만큼 귀띔해 드렸으면 아시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정권에 충고하는 정도로 하고 철수하시오〉

〈각하 유혈을 피하기 위해서도 각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를 위해서 계엄령을 빨리 선포할 필요가 있읍니다.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요. 합법적인 수속은 대통령과 협의해서 선포해야 하오〉

박정희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비상계엄령 포고령을 일방적으로

장도영의 이름으로 방송케 했다.

한편 장도영은 박정희가 물러간 후에도 계엄사령관직 수락을 주저하다가 윤보선(尹潽善)의 권고도 있어 그날 오후 4시 30분에야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계엄포고령에 관한 방송을 들으면서 수락했다.

이렇게 되자 박정희는 쿠데타를 어떻게하나 성사시키기 위해서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면서 그 의장직을 장도영에게 주고 또 5월 20일 첫 혁명내각을 조직하면서 그 수반직도 장도영에게 겸하게 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속심은 행동과 달랐다. 장도영의 군사쿠데타에 대한 미온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몹시 가증스러웠다. 지난날 그로부터 큰 신세를 졌지만 집권을 위해서 장도영을 거세(去勢)할 것을 결심한 박정희는 그에게서 우선 육군참모총장의 군모를 벗기기로 하고 쿠데타 돌풍(突風)이 뜸해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겸직〉을 일체 금지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에 김종오(金鍾五) 내각수반에 송요찬(宋堯讚)을 각각 기용했다.

이것으로도 불만스러웠던 박정희는 7월 2일 장도영을 자택에 연금하고 다음날 스스로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했으며 7월 9일 새벽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했다는 죄명으로 그를 마포형무소에 수감했다.

장도영을 거세하려는 박정희의 집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동향 동창이라 하여 장도영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18명의 평안도출신 현역장교들도 함께 수감했다. 내가 기억나는 사람들만 꼽아 보아도 공수단장 박치옥(朴致玉)대령 헌병감 문재준 (文在駿)대령 외 방자명(方滋明) 이희영(李熙永) 송찬호(宋讚鎬) 김석율(金錫律) 안용학(安用鶴) 이성훈(李星薰)등이었다.

세칭 〈장도영일파 반혁명사건〉이 이것이다. 이것은 장도영일파의 〈반혁명사건〉이라 하지만 기실은 박정희가 서북출신의 비박정희 반김종필계를 몰락시킨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텍사스〉작전이라 일컬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정희는 그후 최고회의 내에서 김동하(金東河) 박림항(朴林恒)등 함경도출신을 제거하고 최고회의를 영남일색으로 꾸리기 위해 〈알래스카〉

작전이란 것을 꾸미었고 전라도 출신을 배척하는 〈하와이〉작전도 했다.

이와 같이 박정희는 집권초기부터 자기의 통치기반을 꾸리는 데 지역감정을 발산하여 비정한 만행을 거침없이 자행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도 경상도 출신만 중용(重用)한다고 해서 서울에서는 〈창녀들까지도 경상도 출신이 아니면 해먹을 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더라〉고 꼬집기도 했다.

나는 당시 이런 말의 진의를 다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다시 생각해 볼 때 동감이 가지 않는 바 아니다. 그는 자기의 통치지반을 굳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입에 칼을 물고 나섰었다. 그것은 5·16 직후 요란스럽게 벌인 군사재판놀음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런고 하니 박정희가 말한 바대로 군사쿠데타가 민주당정권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주로 민주당 관계자가 체포되고 처벌되었어야 할 것이며 또 군사정권이 〈4·19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면 4·19의거의 대상으로 되었던 자유당 관계자가 처벌되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유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간부급 인물이 몇몇 체포는 되었었지만 대부분 1년 이내로 형(刑)집행이 정지되거나 석방되었다. 그리고 반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세력들 혁신세력들이 체포되어 중형을 받고 처형되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이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건에서 이들을 그대로 두면 군사정권의 전도가 평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박정희는 〈혁명공약〉을 간판으로 내걸고 그 그늘 밑에서 개인독재를 위해 전세기 (前世紀)적인 만행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외세에 빌붙어 민족의 존엄을 파는 가증스러운 망동을 감행했다.

나는 박정희정권의 외무부장관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 이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이를 체험했다.

제 3 절 유엔연단에서

수치감만 느끼다

〈사이공〉에서 귀국한 나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를 방문했다.

그는 나를 보고 〈선배님께 주일대사를 부탁할까 외무부장관을 맡길까 하다가 장관쪽으로 정했읍니다〉하는 것이었다. 이래서 나는 김홍일씨의 후임으로 대한민국의 제 9 대 외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외무부에 가보니 박정희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그의 방미일정을 토의하느라 한창 법석이었다.

〈자유세계〉에서 정객이라는 사람들은 백악관의 초청을 받는 것을 그야말로 군주로부터 작위(爵位)를 수여받는 것 만큼이나 경사로운 일로 여기는 풍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5·16후 장도영이 〈케네디〉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방미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서 백악관의 반응이 전혀 없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판이었는데 박정희에게 그해 11월중으로 방미하라는 〈케네디〉의 특별초청장이 날아왔으니 더더욱 소란을 피울만도 했던 것이다.

이때 이 사람이 보기에 박정희는 미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심(誠心)〉을 보이려고 몹시 애쓰는 것 같았다. 그는 방미하기에 앞서 미국제 〈오토바이〉 240대를 수입하게 했다. 일본제가 값도 싸고 운임도 적게 드는 것이었지만 미국에서 사오게 했다. 또 전매청(專売庁)에서 사용할 권연(巻煙)제조기 400대를 600만 달러나 더 비싸게 미국회사에 주문하게 했다. 지어 그는 〈워싱톤〉으로 출발하는 전날 밤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자기의 방미여행을 축하하는 모임까지 성대히 벌이게 했다.

이런 일대 경축분위기 속에서 박정희는 1961년 11월 11일 KAL 특별기편으로 유양수(柳陽洙 최고회의 외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나, 천병규(千炳圭 재무부장관), 엄영달(厳永達 외무부아주과장) 등 수행원 13명을 대동하고 미국을 향해서 김포공항을 떠났다.

도중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일본황군 출신이라 박정희가 궁성(宮城)을 향해서 정중한 자세로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비행장에 나와 있던 일본기자들까지도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를 쳐다보는데 그는 또 자못 위엄있는 어조로 〈국교정상화를 위해서 한국은 일본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황도정신(皇道精神)〉이 갑자기 소생되어 그러는지 그때 박정희의 손마저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한국정부 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보기가 딱했다.

그날 저녁 〈이께다(池田勇人)〉 일본수상이 환영만찬회를 베풀었을 때에도 가관이었다.

축배도 대체 끝나고 환담이 벌어지려 할 무렵 박정희가 술잔을 들고 좌석에서 불쑥 일어나는 것이었다.

왜 저러는가? 저 양반이 예절을 몰라 그러는가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연회장의 한편 구석에 앉아 있는 한 백발노인 앞에 가서 공손히 허리굽혀 인사하고 술잔을 두손으로 받쳐들면서 축배를 하자는 것이었다.

좌석으로 보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인물 같지는 않은데 하도 박정희의 거동이 신중해서 알아본즉 그 노인은 박정희가 일본 외무성에 특별히 요청해서 초대한 이전 만주군관학교 교장이라는 것이었다.

일찌기 만주군관학교에서 배운 박정희가 〈스승〉을 잊지 못하는 그 태도는 일본사람들에게 〈갸륵한〉 인상을 주었을는지 모르나 그런 꼬락서니를 보게 되는 이 사람의 눈에서는 불이 날 지경이었다. 지난날 아시아대륙을 침략한 일제의 초병이요 만주광야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우리의 수많은 반일애국운동자들을 〈비적〉으로 몰고 〈토벌〉하는 데 앞장선 놈의 하나가 바로 그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를 체면도 없이 허리를 굽혀 떠받들다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도꾜에 체류한 짧은 기간에 그를 수행한 내가 한국정부의 장관으로서 수치감을 느낀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다.

다음날 일본수상관저에서 〈이께다〉와의 회담때에도 그랬다. 근 두시간 동안 계속된 이 회담에는 처음에 한국측에서 이 사람, 일본측에서 〈고사까(小坂善太郎)〉외무상이 배석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박정희가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 통역도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회담은 단독 정상회담처럼 되고 말았다.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이께다〉가 박정희의 팔을 끼고 나오면서 희색이 만면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읍니다. 아주 잘 되었읍니다〉하고 연신 손을 들며 흔드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는 이 사람에게도 따로 귀띔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께다〉가 도대체 무엇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통 알 수 없었는데 기자회견 때 박정희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서 한일회담에서 걸리고 있던 문제들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런즉 일본으로서는 한국재침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일본수상으로서 기뻐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수치스러웠다는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니다. 〈이께다〉가 단독회담에서 일본말을 구사한 박정희에 대해서 빈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서울을 떠나오면서 생각되는 바가 있어 일본말을 잘하는 외무부 아주과장을 대동하고 〈의장님! 일어에 썩 능한 통역관 한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일본에 가서는 공식석상에서 일어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미리 제언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께다〉와의 단독회담에서 어떻게나 일어를 유창하게 했던지 〈이께다〉가 〈박의장각하는 우리 동북지방이나 가고시마 출신의 일본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일어를 할 줄 안다〉고 반감탄(半感歎) 반빈정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이께다〉의 주둥아리를 짓뭉개놓고 싶었다.

박정희는 12일 밤 〈하네다〉공항을 떠나 〈시애틀〉 〈시카고〉를 거쳐 14일 새벽 〈워싱톤〉에 도착했다. 비행장에서 환영의식이 있어 미국측에서는 〈죤슨〉부통령 〈러스크〉국무장관 〈버거〉주한미대사가 단상(壇上)에 올랐다. 이런 경우 외교상 관례대로 한다면 우리도 박정희 다음에 응당 외무부장관인 이 사람이 서고 주미대사 정일권이 올라야 하겠는데 이 사람 대신 유양수가 최고회의 외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오르고 나는 단하(壇下)에 서게 되었다. 그것도 단하에서나마 제 1 석이 아니었다. 경호책임을 지고 선발대로 온 김재춘(金在春)이 〈최고위원〉이랍시고 나의 앞에 섰다.

당시 군사정권하에서 관서서열(官署序列)이 대통령 1번, 최고회의의장 2번으로부터 시작되어 최고회의부의장 내각수반 대법원장 최고회의분과위원장, 최고회의최고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중앙정보부장, 각 부장관순으로 되어 외무부장관인 이 사람은 37번이었으니까 부득이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끼리의 모임이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미국요인들 앞이다보니 외무부장관을 홀시해서라기보다 정권을 갓쥔 풋내기 군인들이라 공인된 외교질서 하나 변변히 가릴 줄 모른다고 냉소하는 것 같아서 그때 당혹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워싱톤〉에 도착한 박정희는 기자단앞에서 한국에서 미군은 무기한 주둔할 필요가 있다 하고 한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미국군비가 요구된다고 했다.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두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한국의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설명하고 1963년 여름에 민정이양할 것을 거듭 약속했으며 〈케네디〉는 박(朴)의 민정복귀 약속에 만족을 표시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협력을 확약했다.

박정희는 11월 18일 〈워싱톤〉을 출발하여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하와이〉를 거쳐 11월 25일 귀국했다.

이 사람은 유엔총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박정희일행과 떨어졌다.

유엔에서의 망동

박정희 일행과 헤어진 나는 제16차 유엔총회에 참가하는 정일권(주미대사) 이수영(유엔주재대사) 김준엽(고대교수) 김동환(주미대사관 공사) 등 한국대표단과 합류했다.

한국대표단은 1958년 제13차 총회 이래 주로 통한(統韓)문제를 가지고 유엔접촉을 해왔지만 제16차 총회에서는 한국군사정권의 당위성을 밝히는 데 역점(力点)을 두기로 했다. 그것은 제16차 총회가 군사정권으로서는 처음으로 참가하는 총회라는 사정도 있거니와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 나 자신은 군사정권이 현대정치사에 커다란 〈패턴〉을 그리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 그런고하니 1952년

〈낫셀〉의 에집트쿠데타 1958년 〈아유브 칸〉의 파키스탄쿠데타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혁명 1960년 〈시리아〉쿠데타 등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연설문이 영문으로 준비된 것이었지만 유엔연단에 나가서도 침착하게 낭독할 수 있었다. 그 요지는 대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한국에서 민주당정권은 너무도 약체였다. 내부에 추악한 파쟁이 많아 국내가 소란했고 학생들은 지어 판문점에서 이북과 접촉할 것을 요구해 나서기까지 했다.

자유진영의 성원의 하나인 한국은 반공전선에서 뒤흔들리게 되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은 일어났다. 군인들에게는 정권욕이 없다. 그들은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를 일소하면 민정을 복귀시키고 군(軍)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연설에 대해서는 예기한 바대로 공산권내 국가들과 제 3 세계의 많은 나라 대표들이 반대했고 일부 친미적인 나라 대표들이 공감하는듯 했다. 그중에서도 〈오스트라리아〉대표가 적극 지지해 주었다. 아마 5·16직후에 이 사람이 친선사절단장으로서 그 나라를 찾아간 일이 있어 〈멘찌스〉총리가 특별히 관심을 돌린 것 같았다.

다음 해 1962년 가을 이 사람은 제17차 유엔총회에도 참석했다. 일행은 수석대표인 이 사람 외에 정일권 이수영 김용우(金用雨 전국방장관) 이동원(李東元 대통령비서실장) 이용희(李用熙 서울대학교수) 등 11명이었다.

이번에는 관례적으로 들고 나갔던 통한문제를 다시 가지고 나가기로 했다.

제16차 총회 후 1년어간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새로 설정한 나라가 20여개나 더 늘어나서 외국대표들과 접촉하기가 퍽 편했다.

제17차 총회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대표단이 〈스티분슨〉을 수석으로 하는 미국대표단과 전원회의를 가졌을 때 있은 일이다.

〈스티분슨〉이란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아이젠하우워〉와 대결했다가 패한 것을 〈아이젠하우워〉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유엔 미국대표

단 단장으로 임명한 거물급 인사였다.

나는 〈스티븐슨〉에게 〈북한이 두번씩이나 유엔을 무시했으니 이번 총회에서는 조건부안을 아예 내지 말자〉고 했다.

이것은 제15차 유엔총회 때 미국대표의 제의로 유엔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북한을 한국문제토의에 초청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제16차 총회에서도 희랍과 태국 대표들의 제의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북한이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나온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미국대표는 나의 제의에 선뜻 동의하지 않으면서 북한도 초청하자는 것이 미국무성의 방침인만큼 한국에서 그렇게 하기를 꼭 원한다면 미국무성과 다시 의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미국무성으로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를 찾아가 나의 주장을 말한즉 처음에는 차관보도 유엔대표부에 밀더니 내가 하도 요청하니까 나중에는 고집하지 않고 〈당지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고 지령해 주어서 결국 조건부로 북한을 초청한다는 결의안을 전복시키고 말았다. 〈이미 두번씩이나 무시하는 북한을 세번씩 초청할 필요는 없다. 이북은 유엔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었다.

나는 나의 주장이 통과되자 이것을 제17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거둔 〈큰 성과〉라고 자부했다.

돌이켜보면 자괴지감(自愧之感)을 금할 수 없다. 반공사상으로 가득차 있던 나는 당시 유엔마당에서 미국대표들보다도 더 이북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통일을 반대한 셈이다.

이래서 오늘 나는 염치도 모르던 탕아(蕩児)처럼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

제 4 절 한일외상회담

영광과 오욕

나는 1962년 가을 제17차 유엔총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그해 봄에 한

일외상회담에 참가하여 한일회담예비회의를 한 바 있다.

한일회담은 10여년을 끌어오면서도 잘 타결되지 않아서 1962년에 들면서부터는 현안문제들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절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쌍방의 견해차이가 너무도 심해서 양측이 다 실무적으로 절충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빠를 수 있다고 보고 양국 외상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1962년 3월 12일부터 이 사람과 〈고사까〉일본외상 사이의 정치회담이 일본외무성에서 열리게 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이 사람과 배의환(裵義煥 주일대사) 문철순(文哲淳 외무부정무국장) 최영택(崔英沢 주일대표부 참사관) 엄영달(외무부 아주과장) 외에 고문으로 최규하(崔圭夏) 이한기(李漢基)가 참가했다.

이 사람은 일찌기 중국대륙에서 항일하고 버마전선과 중국 광동성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바도 있지만 정식으로 일본정부대표와 마주앉아 일제가 지난날 저지른 죄과를 논단하면서 회담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영광스럽게 느껴져 곧장 가슴에 그 무엇이 흔근히 젖어드는 것 같았다.

나는 한국대표로서 책무를 다하자고 마음먹었다.

회의에서는 우선 양측의 인사교환이 있은 다음 의제(議題)에 관해서 합의를 보고 곧 토의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쌍방의 입장이 대립되어 17일까지 2차의 공식회의와 3차의 비공식회의를 가졌지만 타결의 여지를 종시 찾지 못하고 말았다.

특히 논의가 많았던 것은 청구권문제였다.

일본측은 순청구권조(純請求權条)로는 5천만 달러도 되지 않게 제시하고 이것과 합쳐서 무상원조와 경제차관 등의 조로 3억 달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안내겠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노릇이었다.

사실 일본은 이때 소위 대동아전쟁시기 저희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에서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점령기간 그 나라들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율빈〉에는 배상금 5억 4천만달러 차관 2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에는 배

상금 4억 달러 경제협력 5천만 달러 〈버마〉에는 배상금 2억 달러 차관 5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런데 근 반세기동안이나 점령하고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깡그리 빼앗아간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본은 배상금이란 말조차 쓰려 하지 않고 〈무상원조〉니 〈경제차관〉이니 하는 따위의 말로 돌려서 표현하려 했다.

그들의 이런 작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일본에 비열해서는 안되며 자비심을 베풀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일제를 반대해서 끝까지 싸웠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지나간 36년동안 우리 민족이 입었던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손실 그리고 선열(先烈)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국제관례에 따르는 이상 일본은 과거를 흔연히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에 배상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금액의 다과(多寡)는 문제가 아니다. 배상금을 일정하게 물어야 한국민의 혼(魂)을 달랠 수 있고 한일관계가 참말로 평등 호혜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배상금은 내지 않고 무상원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조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더우기 차관은 빚이다. 우리가 빚을 받으러 왔다가 빚을 지고 갈 수야 없지 않는가〉

독도(独島)문제도 주요하게 토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확고했다.

일본측은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고문들 중에도 이한기교수 같은 분은 제소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일본의 체면을 〈국제재판소에 세워주고 그대신 청구권문제를 더 유리하게 해결해보자〉고 제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독도문제를 한일회담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넌센스라 할 수 있다. 독도야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영토인데 무엇때문에 그들과 흥정한단 말인가. 그것은 울릉도나 제주도가 한국의 부속도서라고 새삼스럽게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이런 자세를 〈민족주의적 완고성〉이라 하고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민족주의적 완고성〉이란 낱말로 저희들의 비굴한 대일자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 사고자체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의 반영이라고 감지했다.

이래서 한일회담을 타개하기 위한 양국외상회담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때 한일회담에 임하는 일본측의 고자세를 반대하는 한국민중의 기세는 대단했다. 한국정부는 마땅히 일본을 반대하는 이런 민기(民気)에 의거하면서 일본에 강하게 대해야 할 것이었는데 도리어 고조(高潮)된 민기를 폭력으로 억누르고 일본의 눈치만 슬슬 살피다보니 일본측으로부터 경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이 나로서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다.

더우기 내가 분격한 것은 이 사람이 외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회담에 참석했던 배의환대사가 일본 외무성을 일부러 찾아가서 한국정부의 의사는 최외무가 아니라 김종필 〈라인〉으로 오는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주관해야 할 외무부장관을 앉혀놓고 따로 변칙적으로 KCIA부장을 통한다고 하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또 그해 11월 〈김—오히라 메모〉란것이 덜컥 발표되는 것이 아닌가.

하긴 나도 김종필이 KCIA를 창설한 직후부터 한국정계에서 실력자로 되려면 한일회담을 주도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서 한몫 해야 한다면서 한일관계 타결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내가 〈고사까〉외상과 정치회담을 하게 되었을 때 주일대표부 참사관 최영택을 수원의 한사람으로 참가시킨 것도 그를 시켜 우리 일행을 감시시키기 위해서 김종필이 박아 넣은 것이었다.

그래서 김종필은 한일외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후에도 최역택을 계속 주일대표부 참사관으로 앉혀두고 일본의 우익정객의 거물인 〈기시 노브스께(岸信介)〉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같은 사람들에게 부단히 접근시키면서 이들을 통해 일본정부에 작용해왔다.

그러나 나는 11월에 김종필이 직접 〈오히라〉외상을 만나서 청구권문제를 토의하고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 재정차관으로 2억 달러를

제공하고 1억 달러 이상의 민간차관도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을 줄은 정말 몰랐다.

1961년에 있은 <박—이께다>회담을 보아도 그렇고 1962년의 <김—오히라>회담을 보아도 그렇고 내가 외무부장관이란 자리에 앉고는 있지만 정치중추에서 소외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불쾌해서 나는 196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박정희에게 외무부장관 사임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1963년 이해는 박정희가 민정이양을 약속한 해였던 것이다. 연초부터 정가가 긴장하고 세론도 분분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의 사임의사가 곧 접수되지 않고 있었는데 세태는 날이 갈수록 뒤숭숭해지기만했다.

박정희가 민정불참을 언명한 <2·18선언>이 나오고 이를 다시 확인한 <2·27선서>가 나왔다. 3월 8일에는 김동하 박림항 등이 군사정권을 전복할 음모를 꾸미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3월 15일에는 현역군인들이 <군정연장> <정치활동전면금지>를 요구하여 시위를 했다. 현역군인의 시위란 민국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는 판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군사정권의 신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혼탁된 정세에 대처하여 3월 14일 각의를 열고 비상계엄령 선포문제까지 토의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각료전원이 사의를 표시했다.

그런데 다음날 3월 15일 그중에서 나와 몇사람의 사표만 접수되었고 후에 안 일이지만 이것도 전날 오후 배의환대사가 일본에서 돌아와 박정희에게 최덕신을 외무부장관 자리에 그대로 두어서는 일본정부가 불편해 한다고 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나 개인으로 말하면 연초에 이미 사의를 표시한 바 있어 장관직에 미련을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원리적으로 따져서 한국정부의 장관으로서 한국국민의 뿌리 깊은 대일감정을 대변한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누구나 응당한 일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각료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서는 한일문제의 정치적 타결을 꾀하는 양국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따위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하는 울분으로 가슴이 미어지는듯 했고 나의 청순한 민족적 양심마저 모욕당하는 것만 같아 통분한 생각을 억지할 수 없었다.

반공을 국시로 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며 민족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기에 일루(一縷)의 기대를 가지고 인간적 의리도 체면도 버리면서 군사정권에 협력해 나섰던 나는 그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내가 설 자리를 새로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즉 나는 외무부장관을 맡았던 1년 5개월 사이에 영광과 오욕을 함께 체험한 셈이다.

한일회담의 타결

그러면 한일회담은 그후 어떻게 타결되게 되었는가.

나는 한일국교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박정희 김종필이 취한 자세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 분만(憤懣)이 끓어 넘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원래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맥아더〉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주선하에 예비회담으로 시작되어 1965년 6월 22일 14년만에 타결되었다.

이 사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를 타결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적극적이었다. 다시말해서 한일회담은 미국의 일관한 압력밑에 추진되었단 말이다.

때문에 한일회담의 타결과정은 미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의 대한전략 나아가서는 대아시아전략의 실현과정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전략은 한국을 아시아의 군사교두보 전초기지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런데 1950년 당시 아시아에서는 중공이 중국대륙을 석권(席捲)하고 소련과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했으며 월남에서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6·25동란을 도발했으나 참패

를 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에서도 사태가 복잡하게 조성되어 동북아시아는 마치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세계적 중심지처럼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미국이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확산되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진압하자면 경제군사적으로 대외원조를 더 많이 해야만 했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수지에서 적자를 계속 내고 달러위기는 날로 우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미국은 2차대전 후 부활된 손아래 동맹국들, 서독과 일본을 이용할 계략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게 한국에 진출할 길을 터주고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케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더는 한편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제휴(提携)케 할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날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식민지지배로 실적을 쌓은 군국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형편에서 미국에 종속되게 된다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한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 일본의 적화(赤化)를 막는 완충지대(緩衝地帯)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신식민주의적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에서 미국의 제의를 쌍수로 환영하는 터였다.

한편 한국정권은 미국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받아무는 체질이지만 한일국교를 정상화한다 할 때 너무도 뿌리 깊은 국민들의 대일감정이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큰 청구권으로 국민의 흥분된 자존심을 달래보려고 끌어왔을 뿐이었다.

때문에 한일회담이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대한(対韓)전략, 더 크게는 대아(対亜)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한미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러기에 처음에는 미국이 한일 양국민을 자극하여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반제반미투쟁으로 전환시킬까봐 한일회담에 직접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배후에서 조종만 했었는데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체 사정이 워낙 위급하게 되니까 노골적으로 나서서 한일양국에 압력을 가하게 된 것이다.

1961년 6월 21일 미일정상회담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 회담에서 〈이께다〉가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뭐니뭐니해도 한국은 "오구니누시노미꼬도"(大国主命—일본신화에 나오는 신의 하나)이래 일본에게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가깝고 일본의 존망을 규제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부산(釜山)이 적화(赤化)되는 경우 일본의 치안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남한의 반공체제에 대해서 일본은 중대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미국도 같은 의견일 줄 안다〉고 하자 〈케네디〉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아시아 자유진영나라들의 정치체제가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까지 민심을 틀어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그런 태도로 한국에 임하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미국도 한일국교정상화를 다그치도록 한국에 권유할 생각이다. 동시에 한국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정부를 민주주의적으로 위장시키려고 한다. 일본도 그런 줄 알고 국교정상화를 추진시켜 주기 바란다〉

이것은 〈타프트—까쯔라 비밀협정〉의 재판이라 하겠다.

〈이께다〉는 이런 밀약에 따라서 1961년 11월 12일 박정희를 만나 한일회담에서 나서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원칙적 선을 그었으며 박정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했고 김종필은 〈제2의 이완용이란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회담을 타결하겠다〉고 외치고 나선 것이었다.

이것은 지난날의 을사오적을 방불케 한다.

때문에 1961년 11월 〈김—오히라 메모〉가 발표되자 국민들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조국수호국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학생들은 〈박정권 타도〉를 부르짖으면서 3·24, 6·3시위를 벌였으나 박정희는 이를 무력으로 탄압했다.

한편 1965년 2월 미국무장관 〈러스크〉가 도꾜를 거쳐 서울에 와서 한일회담을 6월까지 타결하라고 강요한 데 따라 한일양국의 당국자들은 6월 5일부터 실무자들을 일본 〈하꼬네(箱根)〉의 한 호텔에 밀어넣고 철야작업으로 협정문을 작성케 한 후 6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한 것이다.

1945년 8월 전쟁에서 패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배들이 저희들의 본국

으로 쫓겨가면서 〈두고 보라 20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더니 우연한 일치라고 할까 꼭 스무해만에 두번째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1905년 〈타프트―가쯔라 비밀협정〉이 1910년 을사조약체결로 연결되어 한일합방이 실현되었다면 1961년 〈케네디―이께다회담〉은 1965년 한일협정체결로 이어져 일본의 한국재침을 실현케 했다고 보는 바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미일은 역사적으로 이해관계만 있다면 서로 꼬리를 얼키고 사이좋게 우리의 피를 빨고 뼈를 갉아먹어 온 두 마리의 승냥이와 이리였다고 말하고 싶다.

제5절 서독대사 시절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 할까

외무부장관직을 그만둔 나는 퇴임인사차 박정희를 만났다. 그는 좀 어색해 하는상 싶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읍니까. 선배님〉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앉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응균(申應均)대사가 하바드에 간다니 그 뒷자리에나 갔으면 합니다〉

〈좋겠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얼마간 기다려 보십시오〉

당시 신응균은 주서독대사였다. 〈하바드〉대학은 9월 개학인 데다가 그는 몇달만 더 〈본〉에 있으면 관례상 독일훈장을 받게 되니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나의 후임으로 장관이 된 김용식(金溶植)은 선례에 따라 이 사람을 〈대기대사〉(待期大使)로라도 대우해 줄 수 있었건만 전혀 관심을 돌려주지 않아 나는 무직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나는 한달에 4만원씩 쳐서 반년분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으로 1년반동안 외무부장관 공관을 쓰면서 내버려두었던 사택(私宅)을 수리하다 보니 나중에는 생활비마저 옹색하게 되었다. 궁여지책으로 군직과 관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만큼 연금수속이라도 해볼까 해서 제기했는데 총무처 이석제(李錫濟)가 연한부족으로 안되겠다고 떡 자르는 것이었다.

이래서 5개월동안에 퇴직금을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1963년 9월에 서독대사로 부임했다.

아닌게 아니라 이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보라고 권유했다. 서울 중구는 정일형의 선거구인데 1950년도에 가친이 당한 일을 감안하여 말하자면 〈복수〉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었을 뿐더러 의정단상(議政壇上)을 서울 동대문시장 마당 만큼도 여기지 않는 국회의 기풍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또 어떤 친구는 미국유학을 권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현직(顯職)에서 좌천(左遷)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유학〉이란 명분으로 출국시키는 풍이 있었다. 허나 나이 50이 넘어 새삼스럽게 무슨 연구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썩 당기는 일이 못되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안하겠다 유학도 싫다 하고 서독대사직을 택한 데는 그 무슨 곡절이라도 있었는가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굳이 그 이유를 밝힌다면 마침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된다는 사정과 함께 한일외상회담에 참가했다가 오욕을 당한 것이 풀리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거만을 피우는 일본놈들에게 굽실거리는 일부 친일매국족속들의 꼬락서니가 영 보기 싫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고 싶긴 한데 말이 통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1933—36년에 중국에서 중앙군관학교를 다니면서 독일어를 전습하고 졸업후 한때 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 소속인 번역처에서 독일어 번역과 통역을 담당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연 외에 한가지 더 부언한다면 서독은 당시 벌써 〈라인강반의 기적〉을 낳고 전쟁의 폐허속에서 경제기술적으로 부흥발전한 나라로 세상에 알려져 있던만큼 〈원교근공〉이라 할까 먼곳에 있는 위력한 나라, 서독에서 경제적 원조와 기술적 지원을 받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일본의 재침을 막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이 사람의 의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독에 가니 과연 부흥하는 기상으로 온 나라가 차넘쳐 있는 것 같았

다.

한국대사관에는 내가 외무부에 있을 때 계획조정관이었던 김영주(金永周)가 공사로 있어 반가웠다. 그런데 그는 대사관에서 서독정부에 내는 공식문건에 이 사람이 장성임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서독에서는 "제네랄„이라는 계급칭호를 쓰지 마십시오. 민주국가에서는 군사칭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오스트라리아〉대사를 만났는데 그는 내가 주월공사 때 〈사이공〉에 공사로 와있던 구면인사로서 1961년에 내가 친선사절단장으로 〈오스트라리아〉에 갔을 때 〈멘찌스〉총리에게 안내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대사님은 "제네랄„계급칭호를 쓸 수 있어 좋으시겠읍니다. 나는 중령밖에 되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어느 말이 사실인가 하고 그후 살펴보니까 〈오스트라리아〉대사의 말이 옳았다. 독일사람들은 군인을 좋아하고 특히 장성을 존경하는 것 같았다.

그후부터 이 사람도 공식문건에는 꼭 장성계급임을 밝히도록 했다.

이것은 내가 서독에 부임한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삽화(揷話)라 할 수 있는데 1967년 4월 천도교 교령에 취임하면서 대사직을 사임하고 그해 9월 귀국할 때까지 만 4년간의 서독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것으로 회상되는 것은 두가지이다.

당혹감

그 하나는 양국수반의 호상방문이 실현된 것이다. 1964년 12월 6일 박정희가 부인 육영수여사, 장기영(張基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동원(외무부장관) 박충훈(朴忠勲 상공부장관) 김동환(金東煥 국회외무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오(金鍾五 육군참모총장) 등 13명을 대동하고 1주일간 서독을 방문했고 이의 답방(答訪)으로 1967년 3월 2일부터 8일까지 〈뤼프케〉대통령의 방한이 있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한 대사가 주재국수반과 자국원수의 상호방문을 실현케 하면 대사로서의 임무를 최고수준에서 수행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내가 직무를 잘했다고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방독했을 때 느낀 당혹감(当惑感)에 대한 것이다.

그때 독일측에서 한독콤뮤니케 초안을 준비하면서 한국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내용인즉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권으로 인정하면서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한 총선거로 남북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흔히 통한(統韓)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수원들에게 미국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가고 당황해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마저 꺼려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결국 공동성명은 〈양국수뇌는 분단된 국토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양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재확인했다〉는 표현으로 어물쩍하고 말았다.

이 사람도 한국정권이 외교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미국의 동의내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내가 5·16후에 친선사절단장으로서 동남아 일대를 순방할 때만 해도 어느 나라에든 가면 〈조언(助言)〉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으레히 그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대사부터 찾아가서 방문목적을 말하고 그의 조언아닌 사실상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군 했다.

하지만 명색이 한 나라의 〈수반〉이라는 양반이 〈우방〉을 방문한다면서 이렇게까지 줏대가 없는 줄은 정말 몰랐다.

이조말기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정부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맺을 수 없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정희의 서독방문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구라파 심장부에까지 선양했다고 자부한 나는 그 순간 오히려 한국의 대사됨이 부끄럽게 생각되고 비록 미군이 주재하고 있지만 주견있게 행동하는 서독정부의 관리들이 여간만 부럽게 보이지 않았다.

인력수출

나의 서독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의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서독에 인력을 수출할 수 있게 처음으로 길을 터놓은 것이다.

1964년에 체결한 〈상호협력조약〉에 따라 한국의 광부와 간호원을 독일로 파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1965년 4월에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켜 알아본즉 민족차별과 엉킨 임금문제가 그 동기였다.

나는 대사로서 파업광부들을 찾아가 기업주측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引導)하면서 인력수출이 국내실업자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는 소승적(小乘的) 입장에서 자위(自慰)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정권이 인력수출을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삼고 1년에 수십억 달러를 얻고 있을 뿐더러 KCIA감시하에 있는 노무관(労務官)들의 성화때문에 해외에서조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는 그들의 신세를 감안할 때 이 길을 처음으로 열어놓은 나에게는 공(功)보다 죄(罪)가 더 클 것만 같다.

동백림사건과 나

나는 1967년 3월초 방한하는 서독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천도교 교령(教領)으로 선거받고 서독대사를 사임했다. 하지만 〈본〉에서 4년 동안이나 생활한만큼 서독정부에 정식 사임인사도 하고 생활뒤끝도 깨끗이 처리해야만 할 것 같아서 5월에 다시 서독으로 갔다.

이무렵 서독에서는 양두원(梁斗元)이 KCIA책임자로 주재하면서 한국대사관참사 이상호(李相浩)란 가명으로 공작하고 있었다.

6월 10일로 기억한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1972년 뮌헨올림픽때 한국이 태권도(跆拳道)를 가지고 나가서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 준비차 현지시찰을 가는데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둘이 동행하여 〈뮌헨〉에 갔다. 이틀동안 여관에 같이 있으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양(梁)이 서울에서 긴급전화가 와서 먼저 가 보아야겠으니 대사님은 그냥 더 계시라면서

혼자 〈본〉으로 가는 것이었다.

6월 15일에 나도 돌아갔다. 양두원을 만난즉 임무수행상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사관의 모든 공문서와 전보의 발신 및 수신을 일시 자기 통제하에 두게 했다고 하면서 나의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자가 나를 대사관에서 빼내고 내가 없는 사이를 이용해서 무슨 작간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疑訝心)도 없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기도 뭘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대범하게 눈감아 주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서독국회의원이며 〈독·한(独·韓)친선협회〉회장인 〈와건너〉가 찾아와 국회의원들의 연명으로 된 편지를 내놓으면서 항의하는 것이었다.

〈최대사, 이것이 무슨 일이오. 서독에 와 있는 한국사람들을 대사관에서 마구 잡아가오. 분수가 있소. 우리 국회내에서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내 입장이 곤난하오. 서면으로라도 대사의 회답을 받아가야 되겠소〉

나는 양두원에게 열리었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서기를 시켜 즉석에서 요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답을 썼다.

〈본 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 알지 못했으며 진행초기에도 그에 관여한 바 없다. 도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수습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 사건이 서독의 주권침해로 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나 이 사람이 책임질 수 밖에 없겠다〉

내가 사건관련자가 아님을 이해했는지 〈와건너〉는 더 말 없이 돌아갔다.

그러나 사태가 이쯤 되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사건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39명의 KCIA요원이 몰려와서 3～4명씩 조(組)를 짜가지고 6월 18일부터 서독내 20여개 지역에 퍼져서 이북간첩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일부는 불란서에까지 들어갔다고 했다. 소름끼치는 일이었

다.

그런데 하루는 양두원이 나를 찾아왔다.

〈대사님, 대사님이 본국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한번 만나자고 윤이상(尹伊桑)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분을 〈본〉으로 오게 좀 해주십시오〉했다.

〈나로서는 곤란하오〉

하고 나는 첫마디로 거절했다.

윤이상씨는 서독에 거주하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한국출신의 현대음악 작곡가이다. 1964년에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그는 〈교민(僑民)회장〉으로서 부부가 나서서 성의껏 박정희를 환대했다.

나는 그때 〈한국 뿐아니라 중국 일본 전 동방을 대표해서 작곡하시라〉고 그에게 경의를 표한 바도 있다.

〈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모른다면 몰라도 그를 체포하려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의리상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사람은 거절했을 뿐아니라 한마디 더 부언했다.

〈이런 일에는 정규 외교관들을 관련시키지 마시오. 그들의 차량도 쓰지 마시오. 대사이하 외교직원들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써야지 사건에 관련시키면 후에도 나설 수 없게 되오〉

나의 이런 제언에 대사관 직원들은 안도의 숨을 쉬는듯 했으나 서울에는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며칠 후 이동원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나에게 〈진행중인 공작에 협조하라〉는 전보지령이 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이상씨가 나의 필적이 분명한 편지를 받고서 안심하고 박대통령의 친서를 받으러 〈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다가 KCIA요원들에게 잡혀서 〈이북간첩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최덕신대사와의 관계는?〉 하는 식으로 이틀동안이나 심문을 당하다가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즉 그러면 〈서울에 가서 김형욱(金炯旭)부장에게 말하라〉하고 서울 KCIA본부로 연행해 갔다는 것이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어서 탐문해 보니 서울에서 온 KCIA요

원들의 공작수법이 기막히게 간교무쌍(奸巧無双)했다.

그들은 협의대상자들이 모두 지성인들이라는 데로부터 그들의 명예욕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납치해 가려 한 것이었다.

그들은 협의대상자를 A, B, C로 분류하고 거물급인 A급인사에 대해서는,

〈선생님! 고명은 일찍부터 듣고 있었읍니다. 이번에 박대통령께서 직접 8·15광복절 기념행사에 선생님을 초청하도록 말씀이 계셨읍니다〉하고 대통령의 초청장과 왕복항공권을 주었다고 한다.

학위를 가지고 교직에 있는 B급인사에 대해서는 〈박사님의 존함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있읍니다. 사실 이번에 해외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한국출신의 우수한 학자님들이 고국발전에도 기여하시도록 오는 8·15광복절 기념일에 대대적으로 초청하게 되었읍니다〉하고 KCIA부장의 초청장을 주었다.

C급—유학생, 서독에 와 있는 광부들에게는 〈당신, 여기 와서 어떻게 생활하길래 정부에서까지 주목해? 이번 8·15광복절 기념행사에 참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귀국하는 것 같은데 당신도 이 기회에 같이 가서 아주 깨끗하게 밝히고 오는 것이 좋지 않아!〉하고 한국대사관에 귀국신청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서독 한국대사관에 수십명을 집결시킨 것이다. 윤이상씨는 이중 A급인사로 취급된 것 같다.

KCIA요원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 협의자들을 〈함부르그〉까지 자동차로 비밀리에 호송하고 거기서 일본항공(JAL)으로 〈알래스카〉를 거쳐 서울로 압송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납치하려고 지목한 협의자들 중 몇사람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도주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로 끌어가던 사람들중에서도 〈알래스카〉에 기착했을 때 불란서에 있는 친지에게 암시적인 편지를 한 사람이 있고 비행장에서 독일말로 고함을 치며 위급사태를 알린 사람도 있었다. 이래서 그들의 납치음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자 온 서독땅이 벌둥지 다쳐놓은 것처럼 된 것이다.

서독정부는 이런 납치행동은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항의하면

서 연행된 사람들을 모조리 원상복귀시키라고 강경히 요구하고 7월 1일에는 양두원외 사건에 관련한 노무관 2명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 또 외무부의 한 국장을 서울까지 파견하여 7,000만 〈마르크〉의 대한경제원조를 정지하고 국교단절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박정권은 갖은 고문으로 납치해 온 지성인들의 허위자백을 날조하고 재판을 벌여 사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서독정부의 엄한 태도앞에 시일을 다소 끌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그들을 모두 서독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양국관계가 이렇게 되다보니 서독정부의 이 사람에 대한 태도는 말이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브란트〉가 부총리 겸 외무장관으로 있었지만 그는 4년간이나 대사로 있다가 귀국한다고 인사차 방문간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주재연한 2년이상이면 관례상 으례히 수여하게 되어 있는 훈장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본〉을 떠나면서 동백림사건과 같은 납치사건이 있은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인사말을 서독외무부에 남기고 1967년 8월 16일 서울로 떠났다.

귀로에서 생각하니 이 사람은 한일외상회담에 참가했다가 욕을 당하고 친일족속들이 보기싫어서 서독대사로 나와 있었는데 서독에 와서 뜻밖에 동백림사건으로 또 쫓겨가다시피 되었다.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은 한국정권하에서 이다지도 방황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운명이 기구한 탓인가 내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성직(聖職)을 택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하되 가슴 한구석에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필귀정(事必帰正)이라 할까 그후 이 사람은 동백림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여러 면으로 입증되었다.

이 사건이 있은지 3개월후 내가 서울에 돌아와 있을 때 주한서독대사가 본국의 훈령이라 하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와서 훈장을 전달해 주었다.

또 한번은 한때 KCIA부장이었던 김용순으로부터 윤이상씨가 서울에 잡혀 왔을 때 감방벽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쳐 터져나온 피로 〈최덕신은 동백림사건에 무관하다〉고 써놨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서 좀 안심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윤이상씨는 감옥에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혈서로 나를 옹호해주었는데 나는 밖에 편안히 앉아있으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KCIA가 윤이상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포들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도중에 알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들이 잡혀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체포하려는 KCIA를 방조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 엄격히 말하면 KCIA와 공모하고 같이 움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여 가슴이 아팠다.

나는 사건피해자들에게 아니 우리 민족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엄중한 잘못을 범한 것만 같았다.

그러던중 1978년에 〈본〉에서 윤이상씨가 〈한국민주화촉진협의회〉를 주최하면서 나를 초대해주어 나는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이외에 동백림사건의 총수였던 당시의 KCIA부장 김형욱이 1980년에 그의 저서 〈권력과 음모〉에서 양두원이 〈최덕신대사에게도 특수임무의 내용을 밝혀주지 않고〉 납치공작을 했으며 〈……최덕신이 우리들의 임무수행에 비협력적 태도를 취하면서 공작이 국제문제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해온 데 대해 자신이 〈대사의 우려는 지당하나 다른 방도가 없다. 계획을 강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밝혀준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박정권이 이런 불법적인 납치사건을 왜 벌이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마디 덧붙여 두자면 이 사건은 나의 원교근공의 포부를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추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박정권이 1967년 5월에 실시한 제 7 대국회의원선거의 부정사실이 드러나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 이목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여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꾸민 노릇이라고 본다.

이때만 해도 김형욱은 박정희의 〈충신〉이었고 미국 CIA의 충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형욱이 미국측과 박정희의 속심을 알고 감행한 것이다. 그것은 김형욱이 단독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단적으로 서독에서 서울까지 오자고 해도 장장 수만리 길이요, 자동차편으로

불란서에서 〈본〉까지 수송하자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여러 나라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외교적 차원을 넘는 일인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독의 정보기관의 협력,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제 4 장 포덕천하(布德天下)의 꿈



유신체제반대를 외치는 남한학생들

1967년 봄 나는 10여년간 몸담고 있던 관직을 떠나 성직 천도교 교령이 되었다.

생각하면 나는 천덕(天德)이라고 불리우던 철부지 시절부터 부모님들의 동학사상(東学思想)의 영향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군직과 관직에 있으면서 나는 이 사상을 잘 지키지 못했다. 〈제폭구민(除暴救民)〉〈축멸양왜(逐滅洋倭)〉하지 못하고 도리어 폭정하에 민중이 신음하며 나라안에서 양왜가 발호하게 하는데 일역(一役)했을 뿐이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생을 민중 민족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있던 차에 천도교 원로중진들의 요청도 있어 타의반(他意半) 자의반(自意半)으로 성직에 들어선 것이다. 말하자면 지명(知命)의 몸으로 인생행로를 다시 수정하고 동학의 후예로서 원점으로 돌아가 포덕천하의 꿈을 뒤늦게나마 실현해 보려 한 셈이다.

그래서 나는 광제창생(広済蒼生) 보국안민(輔国安民)으로 교세를 부흥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중흥에도 기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성인(聖人)의 덕화(德化)는 사기덕인(捨己德人)하고 범인(凡人)의 사심(私心)은 이기해인(利己害人)이니라〉고 한 천도교리를 명심하고 포덕한 보람있어 촌보(寸步)의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선거전에 휘말려 들고 남북공동성명으로 밝아졌던 통일의 서광이 유신선풍으로 다시 어두워지는 속에서 신장되는가 하던 교세는 더 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이래서 포덕천하는 나의 꿈으로만 남게 되었다.

제 1 절 교령취임

천명(天命)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67년초 서독 〈뤼브케〉 대통령이 방한할 때 나는 〈본〉에 주재하는 한국대사로서 그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

에 오게 되었는데 3월초 어느날 세종호텔에서 천도교 원로중진들을 만났다.

그들 속에는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선생의 미망인인 70고령의 주옥경사모님도 끼어있었다.

서로 인사가 오고 간후 교내(教內)사태가 화제에 올랐다. 전임(前任) 교령 묵암(默菴) 신용구(申鏞九)선생이 1966년말에 향년 82세로 별세한후 교령자리가 그냥 공석으로 비어있다는 것이다.

교세(教勢)를 살피기 위해서 지방순회를 했더니 영남지방의 교인들 중에서 두 사람이 물망에 오르긴 했으나 두 사람 다 묵암선생의 제자들이라 선거하면 교내 분파를 가져올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내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는 최덕신선생을 교령으로 모시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의견을 모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들이 직접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저 찾아온 것입니다〉

주씨 사모님이 원로중진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짐작컨대 나를 교령후보로 지목한 것은 가친이 1920년대에 종의원(宗議院) 의장을 지내신데다가 쇠잔해가는 교세를 추켜세우자면 당국과 선을 대야 하겠는데 내가 관직에 오래 있어서 박정권과도 통할 수 있다고 본 데 연유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든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여러 원로중진들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이 3대째 천도교인임은 잘 아실터이지만 저자신은 아직까지 교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교리에도 밝지 못하고 포덕의 재량도 없읍니다. 더우기는 오랫동안 관직에 있다보니 몸도 더러워져 교회의 성스러운 직책을 맡기에는 합당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주씨 사모님이 말을 이었다.

〈교리나 포덕, 교직 경험이 없는거야 우리들이 도와드리면 되지 않겠읍니까. 그보다 우리 교회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 관직에 계실 때만큼 대우해 드릴 수 없는 것이……〉

〈네 그렇다면 대우문제야 뭐 생각할게 있읍니까. 저는 관직에는 조금

도 미련이 없읍니다. 다만 성직자격이 없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되었읍니다. 선생께서 승낙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미흡한 저를 그토록 믿어주시니 힘껏 일해 보겠읍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교령중진들과 일차적 합의를 보았다.

이때 나는 관직에 어느 정도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장관자리에서 서독대사로 내려앉은 나로서 〈뤼브케〉 대통령과 박정희의 상호방문까지 실현케 한 이상 서독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될수만 있으면 서서(瑞西)나 오지리 같이 풍치가 좋은 나라에 대사로 가 몇해 더 있으면서 구라파구경이나 실컷 하다 적당히 관계(官界)를 물러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차라 인생전환의 계기로도 삼기 위해서 교령직을 선선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에 기왕에 교령직을 지낸 바 있는 공진항(孔鎭恒)씨가 교회내에 분파싸움이 있다더라고 귀뜸해준 것이 생각나기에 만일 앞으로 교령선거에서 반대파가 나와서 절대다수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교령직을 맡지 않겠다는 것을 한마디 덧붙여두었다.

그런데 그후 천도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나 최덕신을 후보로 교령선출 투표가 있었는데 참가자 112명중 찬성 107표가 나오고 나머지는 산표(散票)였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천명〉인가 생각하면서 교령직을 정식으로 맡기로 했다. 그리면서 나는 동학의 후예로서 〈제폭구민〉 보국안민하여 천도교를 중흥하고 천도교의 최고목적이며 최고이념인 〈지상천국〉을 이룩하기 위해 몸 바쳐 일하자 이것이 곧 내가 이 〈천명〉에 따르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상념(想念)하니까 왜 그런지 6·25동란 때 이북으로 가셨다는 가친의 모습이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아마 그것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가친에게서 동학사상의 영향을 받고도 그날 그때까지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한번도 그 사상을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罪責感)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불효자식을 잘 살피시어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대임을 잘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사 하고 심고(心告)했다.

천도교의 중흥을 기하여

교령으로 선거받은 후 청와대를 방문하고 대사직 사임의사를 표시했더니 박정희는 첫마디로 〈좋습니다. 잘 됐읍니다〉하는 것이었다.

파직(罷職)당하기 전에 내 스스로 사임하기를 잘했다는 감이 들었다.

서독에 다시 가서 잔무처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뜻을 말하고 나는 청와대를 물러나왔다.

그후 〈본〉에 갔던 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뜻밖에 동백림사건을 겪는 바람에 넉달이나 늦게 돌아왔다.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성직생활을 시작하려던 당초 계획은 완전히 깨어져 나는 귀국한 첫날을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다음날 경운동(慶雲洞)에 있는 천도교 총본부로 나갔다.

그간 교령직권을 대리해온 종무원장 김경태(金景泰)씨가 나를 덕암(德庵)선생이라 부르면서 반가이 맞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정말로 성직생활에 들어섰고나 하고 자기의 위치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가 설명하는 교내의 실정을 들어보니 말이 아니었다.

우선 재정이 형편 없었다.

성미(誠米)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보잘것 없고 다만 대신사(大神師) 탄신 100주년 기념관을 영화관으로 빌려주고 월 18만원 받는 것이 유일한 수입원천이라는 것이었다.

성미란 교인들이 교회의 중흥을 위해서 바치는 쌀을 일컫은다. 의암신사때부터 성미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 재정을 전적으로 성미에 의존하리만큼 그 양이 많았었다. 그리던 것이 8·15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18만원을 가지고 교회사업도 하고 10여명의 성직자들에게 봉급을 준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대사직에 있을 때 받던 봉급만 월 40만원이 넘었은즉 성직자들의 생활이 어느 계선에서 맴돌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었다.

재정문제 뿐아니라 교회운영과 교세확장 그 어느것이나 침체상태에 있었다.

나는 〈포덕천하〉〈광제창생〉하겠다던 대신사,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었던 해월신사(海月神師)가 생존하신다면 이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천도교는 이 세상에 출현할 때부터 민중의 생존권을 정면에 들고 나왔다. 때문에 천도교의 최고목적, 최대이상은 〈지상천국〉건설에 있다. 〈한울사람〉처럼 근심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뜻한다.

이렇게 대다수 민중의 권익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천도교는 그토록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일제시대에 그 무서운 탄압 속에서도 지탱해 왔다.

전남 고부(古阜)에서 시작되어 전강토를 진감했던 갑오년의 그 동학(東学)의 아우성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이념, 그 대망은 어떻게 하고 오늘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것인가.

나는 원로중진들이 왜 이 사람에게 교령의 중임을 맡기려 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천도교를 중흥하자면 민중에게 복무하는 교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천도교의 내실(内実)부터 꾸리고 재정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천도교의 내실을 꾸리자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계승할 사람들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에서 동학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로 1968년에 〈신인간연맹(新人間联盟)〉이란 조직을 만들고 나 자신이 그 총재로 되었으며 기관지 〈신인간〉을 발간했다. 동시에 나는 시일(侍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각 교구의 〈천도교청년회〉와 〈천도교소년회〉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직자들의 새로운 양성을 위해서 종학원을 명실공히 교직자양성기관으로 강화했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반공포로〉석방 때 태극기와 대한청년단기와 함께 궁을기(弓乙旗—천도교 깃발)를 든 자들이 대열선두에 서서 나오는 것을 나는 목격한 바 있었다.

그들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천도교본부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교령이 된 후 이것이 생각나서 두루 알아본즉 그런 사실이 있은 것만은 사실이었고 그들로 말하면 본시 이북에 있을 때 천도교청우당 당원들이었는데 이남땅에 들어서면서 천도교본부를 찾아갔더니 받아주지 않아서 〈반공청년단〉에 들었다가 다시 〈기독교청년단〉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이북에서 월남한 천도교인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당시의 천도교본부에서는 그들이 북한군대에 있던 자들이라 북한간첩일 수 있다고 해서 일괄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국토양단의 비극을 새삼 느끼면서 민족중흥을 위해서도 동학사상을 더욱 널리 선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공주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한 데 이어 1969년에는 경운동에 천도교회관—수운회관(水雲会館)을 15층으로 새로 크게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홍익대학 건축과 정인국(鄭仁国) 교수는 자진해서 회관설계까지 해주었다. 나는 여기서 많은 고무를 받고 힘을 얻었지만 재정문제만은 풀 길이 없어 근 1년 동안을 갈팡질팡 하면서 허송했다.

이럴 때 한 친지가 이모재벌 같은 사람은 입주금(入住金)을 미리 받아가지고 반도호텔 앞에 고층건물을 지었다고 하면서 착공(着工)부터 해놓고 보아야 한다고 건축에 착수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재정난을 풀어 볼까 하고 망서리고 있는데 박정희가 동학의 후예로서 천도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에 나는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진정(陳情)이라도 해보자 하고 1971년 1월 중순 어느날 청와대로 그를 찾아갔다.

당시는 제 7 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재계(政財界)가 몹시 긴장되고 있을 때였는데도 박정희는 내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 그 자리에서,

〈도와드려야죠. 비서실장한테도 일러두겠읍니다〉

하고 이외라 할만큼 시원스럽게 응해줄 뿐아니라,

〈천도교야 민족의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도와드리는 것이 응당한 일이지요. 나 개인으로 말해도 선대(先代)로부터 동학과는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데요〉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아비 박성빈(朴成彬)이 동학관계자로서 관헌에 체포되었다가 수많은 동료들을 밀고하여 참형(慘刑)을 당하게 하고 그 보상으로 석방된 후 영월(寧越) 군수까지 지낸 동학의 배신자이며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 그런 내막을 잘 모르고 있던 나는 이날 그가 천도교의 중흥을 위해서 끔찍이도 생각해 주는 줄로만 알았다.

또 실지 그후 며칠 지나서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락이 회관건설주인 이양구(李洋求)와 이 사람을 부르더니,

〈박대통령께서 교령님을 도와드리라는 하명(下命)이 계셨읍니다〉하면서 은행에서 2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해주며 50만달러 상당의 외국차관도 받을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설(新設)도로계획구역에 들어간 천도교회관 부지의 배상금도 서울시청에 지시해서 선불케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나로서는 감동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후 회관건설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어 그 이듬해에 준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미끼로 삼아 이 사람을 그해 4월 대통령선거 때 유세에 끌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선거택일(択日)작전

이 사람이 선거유세에 어떻게 끌려나갔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해 대통령 선거일을 정하게 된 경위부터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자.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다는 공화제하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을 언제 어느날 선거하는가에 대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신경을 몹시 쓴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말하기를 주권자인 국민을 최대한 선거에 참여시켜 민의를 정확히 반영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 말 밑바닥에는 선거에서 여야당이 서로 승부내기를 하려는 계략이 깔려있다고 보아도 잘못은 없을 줄 안다.

왜 그런고 하니 언제 어느날 선거하느냐 즉 농번기에 하느냐 농한기(農閑期)에 하느냐, 일요일에 하느냐 주중일(週中日)에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일부 계층들의 선거 참여도에 유동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정당들의 집권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난다.

이런 시각에서 선거를 언제 어느날 하는가 그 〈택일〉 자체가 선거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에서 1960년 제 4 대 대통령 선거때 자유당정부가 선거일을 처음에는 5월 15일로 정했다가 3월 15일로 앞당긴다고 갑자기 발표한 것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구실은 5월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민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에 선거운동의 시일을 최소한으로 주기 위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에서 역대정권이 선거때마다 선거법을 뜯어고치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집권 여당에게는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선거를 관리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나라들에서는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선거 택일 문제와 관련해서 실로 희한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71년에 한국에서 제 7 대 대통령 선거일을 4월 27일로 택일한 경위이다.

이때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일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전(前) 70일로부터 40일 사이에 정하되 반드시 선거일 35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그해 6월 30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만큼 선거일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어느 날이든 상관없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선거예비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야당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법정일(法定日) 중에서 빠른 쪽을 택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택일작전〉이라 할 만큼 대(對)야당 관계와 역사적 고찰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선거일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실무자선에서 4월 21일안(案)을 만들었었다.

선거법상의 최조일(最早日)을 잡은 것은 조기선거의 취지에 들어맞고

또 4월 21일의 숫자를 합하면 〈럭키·세븐〉이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간부들은 최조선거일을 택하면 야당으로부터 시간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난 받을 우려가 있는데다가 〈4·19〉 학생의거 기념일로부터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공화당 기획조사부에서는 일요일인 22일을 건너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를 놓고 흉일(凶日), 액일(厄日)을 따져보았다.

따져 본즉 이중 25일은 4·19후 교수데모가 일어난 날이고 26일은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한 날이며 28일은 이기붕일가가 자결한 날, 29일은 일본천황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5월 1일은 공산주의자들의 노동절이어서 모두 금기일(禁忌日)이었다. 남은 것은 23일, 24일, 27일, 30일이었는데 어느 한 실무자가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니까 30일은 또 〈제사불의〉(諸事不宜)라는 점괘(占卦)가 나와 실격이었다는 것이다.

또 23일은 최조일에 가깝다 하여 제쳐 놓으니까 결국은 24일, 27일이 남았다.

이 둘중에서 어느날을 택해야 하겠는데 27일로 결정한 것은 첫째로, 제7대 대통령을 뽑는 7자가 들어 있고 둘째로 2와 7을 합하면 〈아홉〉이란 수가 나와 〈가보〉가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정말 포복요절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당의 기획조사부 실무자들의 골통이 이쯤 돼먹었은즉 그 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실은 당시 공화당의 기획조사부에 있던 R씨로부터 이 사람이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믿음에 보답하시오〉

선거일이 어떤 과정으로 택일되었던간에 4월 27일로 확정 공고되자 선거법상 유세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월 27일부터 여야당이 일제히 유세에 떨쳐 나섰다.

여야당의 대결상이 시시각각으로 우심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어느날 공화당 총재 비서실의 K씨가 불쑥 이 사람을 찾아왔다.

〈교령님, 박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읍니다〉

나는 이전에 곤난한 교회 재정을 도와달라고 제기한 바 있었던만큼 그와 관련해서 무슨 기쁜 소식이라도 가지고 왔는가 했는데 그의 다음 말은 너무도 뜻밖의 것이었다.

〈대통령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선거에서 교령님이 좀 도와주셔야겠답니다〉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읍니까〉

〈교령님께서 선거유세에 나서주셨으면 하십니다〉

〈선거유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부탁하실 때야 다 믿는 바가 계셔서 그러시겠는데 거기에 보답하셔야 하지 않겠읍니까〉

회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협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당시 선거에서 박정희의 정적(政敵)은 다 아는 바대로 그 전해 1970년 9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유진산(柳珍山)의 독주(独走)에 반발하는 당내 기운속에서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고 대통령후보를 지명받은 김대중(金大中)이었다.

김대중은 신민당대통령후보로 지명되자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1950년대는 〈암흑전제시대〉, 60년대는 〈개발에 빙자한 독재시대〉였다면 70년대는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라 선언했을 뿐아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면〉 폐쇄적인 남북관계를 서신교환, 기자교류, 체육분야에서의 비정치적 접촉을 통해서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 선언해서 선풍 같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도 이런 김대중을 만만치 않은 〈라이벌〉로 의식했는지 1971년에 들어서면서 2년 전에 폐지했던 공화당의 시, 도 지부를 다시 부활시켜 당조직을 선거체제로 바꾸며 이후락을 주일대사로부터 KCIA부장으로 불러들여서 선거의 총사령으로 내세우는 등 선거대책을 짜고 나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1967년 선거 때에는 100개의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이번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56개 시책 공약을 제시하고 이른바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을 깨는 데 역점을 둘리는 것 같았다.

공화당은 선거유세반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전력을 다했다. 박정희

자신이 대전, 청주, 전주, 수원, 부산, 춘천, 대구, 서울 등 9개 도시를 누비면서 안간힘을 다했을 뿐더러 중진반(重鎭班)이라 해서 김종필이 이끄는 충청·호남반, 백남억(白南檍)이 이끄는 영남반, 이효상(李孝祥)이 이끄는 경기·강원반 등이 있었고 이외에 시, 도 반, 지구당반 등이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신민당도 응전을 폈다. 특히 김대중은 〈유권자와의 대화〉를 위해서 하루에도 서너군데씩 누비고 있었으며 〈당신과 함께〉라는 사인이 든 자신의 사진을 방방곡곡에 뿌리는 등 〈이미지〉 부식에 전력을 다했다.

이와 같이 하여 여·야당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었지만 전반 대세는 김대중에게 유리하게 쏠리는 것 같았다.

유세장에 모이는 인파만 보아도 김대중쪽이 양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질적으로도 우월했다.

박정희쪽에는 대부분이 공무원, 통장, 반장을 동원해서 강제로 동원시킨 사람들이었지만 김대중쪽은 당국에서 여러가지로 방해공작을 해도 자발적으로 모인 청중들이었다.

4월 15일 서울 장춘단공원에서 김대중이 유세하던 날도 일요일이었지만 일부 관청에서는 정상근무를 시키고 은행,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일반업체들이 대부분 들놀이, 낚시대회 따위로 사람들이 유세장에 갈 수 없게 했다. 그렇지만 그날 장춘단공원에서는 유세장 치고는 〈건국이래 최대인파〉로 30여만의 청중이 모였었다고 신문들이 보도할 정도였다.

지난날 야당 지도자 신익희(申翼熙), 조병옥의 인기가 컸었다고 하지만 김대중에 비할 바 아니었다.

그래서 공화당측에서는 당황해서 조금이라도 줄이 닿을만한 인사라면 다 유세에 끌어내자는 것이었다.

공화당총재 비서실에서 이 사람에게까지 와서 유세에 나가 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판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만큼 나의 생각은 복잡했다.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우리 교단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은 뻔했다. K비서도 그런 기미를 적지 않게 비쳤다. 그렇

다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어느 한 특정인만을 찬양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교회의 입장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갈림길에 서서 망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수운회관을 짓는 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지원이 다 그들의 〈믿음〉의 표시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민족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교육기관까지 가지자고 하는데 그러자면 정부와 엇서서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계속 〈믿음〉을 받아야 한다. 포덕천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 선거유세에 나서라는 것을 거절했다가 〈믿음〉을 잃기라도 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아니 그들의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박정희를 위한 선거유세에 나서기로 작정했다.

제 2 절 통일로에 비친 명암(明暗)

공화당의 변사

유세에 막상 나서보니 여야당간의 공방전이 이만저만 하지 않았다. 물론 예견한 바 없지 않았지만 전반상황은 신민당이 야당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기백에 넘쳐 공격적인데 비해서 공화당은 수세에 빠지고 방어적인 감이 있었다.

가령 당시 많이 거론된 장기집권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박정희는 〈이번이 마지막 입후보〉이니 한번만 더 자기를 신임해 달라고 호소했고 공화당은 국가안보문제, 군(軍)의 효과적인 통솔문제, 중단없는 경제건설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문제 등을 박정희의 3선집권의 근거로 설득시키려 했다.

백남억 같은 사람은 박정희의 10년집권은 장기집권이 아니다. 〈계속적인 경제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박대통령의 3선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대중은 〈민주국가에서는 한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장기집권하면 흐르는 물이 괴면 썩듯이 부패하고 만다〉고 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정권이 만일 교체되지 못하면 총

통제도(總統制度)가 생겨서 영구집권이 나오고 앞으로는 선거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신민당이 주로 외국차관을 공격자료로 삼았다.

김대중은 유세에서 〈5·16 당시 단돈 1천원씩의 빚도 없던 국민들이 오늘은 막대한 외채 때문에 1인당 3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 남미의 〃칠레〃와 한국은 빚 많은 것으로 세계 1등〉이라면서 〈요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애기들은 〃응애〃 하지 않고,,3만원,, 한다더라〉고 청중을 웃겨가며 공화당정부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서 김종필은 〈개인이나 국가나 남의 돈 빌려다 운영 잘하는 것은 능한 일이다. 나 같으면 1백억 〃달러〃라도 차관을 들여다 경제건설에 쓰겠다. 우리 나라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면 외국이 빌려줄리도 없지 않은가〉고 반론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놈이 앙탈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김대중은 특히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망국적 선거작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면 독재와 특권경제, 부패를 바로 잡고 자유와 대중경제, 정의를 사랑하는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 되지, 한개 지방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되지 않겠다〉 〈메뚜기 이마빡보다 작은 나라에 경상도는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이것이 국민들 속에 적지 않게 먹혀들어가 일종 신민당〈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선거유세전에서 공화당과 신민당이 주요하게 대결하게 된 것은 향토예비군제도와 〈4대국보장안〉이었다.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해서 공화당은 북의 남침을 막는 길은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와 맞먹는 예비군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신민당은 그것을 없애겠다고 맞섰다.

김대중은 〈예비군이 없으면 북이 당장 쳐들어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비군이 없었던 지난날에 이미 침략을 당하고 말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역습해 나섰다.

일반국민들은 예비군에 동원되면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없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용주의 불만을 사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신민당에 호응했다. 이런 속에서 공화당은 별로 반론도 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겨우 국방부에서 예비군폐지안은 재향군을 선동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혼란시키며 이북의 남침을 유발할 수 있는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외마디 소리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4대국보장안〉이란 김대중이 들고 나온 것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 일, 중, 소 4대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통일 독립을 공동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주로 유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를 비판했다.

4대국보장으로 한반도의 긴장성을 풀고 국가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국들의 각축장(角逐場)이 되어 왔다.

외세에 의존해서 자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조망국사가 보여주고 있다. 외세는 결코 천사(天使)가 아니다. 외세는 자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남을 돌보아 주는 그런 자선자(慈善者)도 아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가 원조를 준다면 그 시발점은 역시 그 나라 자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외세의 이익이란 한국이 그 나라의 세력권하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즉 만일 4대국의 보장하에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늘 4대국의 눈치를 살펴야 될 것이고, 장관들도 통일적인 하나의 입각점에서 국사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개 파(派)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나라들을 쳐다보게 될 것이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통일국가를 이룬다 할 수 있겠는가.

나의 논조는 대체 이러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정희를 돕는 것으로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이 공화당의 변사가 된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통일기세를 고양시키지도 못했고 교단중흥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그가 수운회관건설을 도와주고 나를 유세에 끌어냈지만 나는 내가 그의 요구에 따라 유세에 나가면 앞으로 수운대학건설을 지원받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가 당선되자 나는 청와대를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찾아갔

었는데 그때마다 박정희는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것이었다. 너무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나는 편지까지 냈지만 역시 무소식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잘 아는 청와대의 C비서를 통해서 들은즉 박(朴)이 나의 편지를 보고 〈그 사람은 꽤 많이 도와주었는데〉하고 시치미를 떼더라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그가 국가재산의 모든 것을 마치 자기 사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나는 천도교에 대한, 아니 이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를 똑똑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박정희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대하는 두가지 방법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권력자로서 자기 안중에 있는 자에게 벼슬을 주든가 아니면 현찰(現札)을 주는 것이었다. 벼슬을 준다는 것은 구태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찰을 준다는 것은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달러〉 〈파운드〉 〈엥〉 등의 외화와 새로 인쇄된 한국의 원화를 가득 넣어둔 〈캬비넷트〉를 놓아두고 필요하다고 보는 인물들에게 〈촌지(寸志)〉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외화 또는 원화를 적당히 집어준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그의 이런 〈촌지〉를 받은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표시했다는 것을 들은 바도 있다.

그런즉 교단을 위하고 포덕을 위해 선거유세에 나간다고 한 나는 김대중의 〈4대국보장안〉을 반대함으로써 결국은 통일을 반대하는 박정희를 위해서 춤춘 셈으로만 되었다.

남북공동성명과 나의 심정

이 무렵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접하면서 느낀 나의 심정에 대한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앞에 선한 일인데 1972년 7월 3일 밤 나는 텔레비젼에서 〈내일 오전 10시 이후락정보부장의 중대발표와 기자회견이 있다〉고 예고하는 것을 들었다.

종래 대통령의 중대발표는 더러 있었지만 정보부장의 중대발표란 처음 듣는 소리라 궁금한 바도 있어 나는 4일날 아침부터 교령실에 들어

앉아 있다가 10시 2～3분 전에 <다이얼>을 맞추어 놓았다. 그랬더니 글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뜻밖이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성명은 제 1 항에서 첫째로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고 둘째로 무력에 의하지 말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째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고 했다.

공동성명은 이외에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말고 불의의 군사적 충돌을 적극 방지하며 남북사이에 인적 물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과 평양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으며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해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둔다는 것이었다.

나라가 분단된지 2 7 년만에 처음 들어보는 흐뭇한 성명이었다. 그것은 칠흑 같던 통일로에 밝게 비친 서광이었다.

나는 그것을 우리 배달민족의 희망을 속속들이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공동성명은 전세계에 우리가 자치능력을 가진 훌륭한 문화민족이고 호전적이 아니라 평화애호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과시한 것인즉 그에 반대할 사람은 5천만국민중 단 한사람도 없을 것으로 나는 믿었다.

그리면서 한편으로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이 바야흐로 열리는고나>하는 감으로 하여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이후 6·25동란이라는 동족상잔의 대비극을 겪었고 또 남북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기면서 서로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집단처럼 여겨오던터에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재와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같은 인간이며 동족이고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일부 사람들처럼 공동성명으로 남북통일의 대문이 당장 열릴듯이 뛰어들 흥분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것은 내가 남달리 침착해서 또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첫째로는 미,

소의 소위 공존원칙이라는 화해〈무드〉가 국제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남북이 서로 무력으로 통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내외정세를 공동성명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둘째로는 대화라는 것이 본래 정치의 상투인 것으로서 말하자면 허허실실(虛虛實實)로 응수하게 되어 있는 것인즉 그리 놀랄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한가지 이유를 더 붙인다면 이것이 아마 직접적으로는 더 크게 작용한 감정일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같은 인간이 과연 이런 약속에 성실하겠는가 하는 의구라 할까 불만이라 할까 미묘한 것이 나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박정권 밑에서 외무부장관 주서독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을 권모술수로 해먹는 한국의 직업정객들을 뺨칠만큼 그의 〈정치단수〉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5·16 당초부터 원대복귀는 생각치도 않고 군정 혹은 군정이후의 민정 참여를 작심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정이양〉이니 〈2·18선언〉이니 하고 부산을 피웠다. 〈2·27선서〉 따위는 그가 짐짓 한번 그래본것에 지나지 않았다.

1963년 초에 있었던 일련의 번의(飜意)소동도 이른바 주체세력 내부의 갈등을 무마하면서 야당과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고등전술이었다.

그가 민정불참성명을 하자 일부 인사들은 이를 환영하면서 범국민당이라는 뚱단지 같은 정당조직까지 추진했다가 결국 헛물만 켜고 주저앉지 않았던가.

그는 용인술(用人術)에 있어서도 교활했다. 이승만이 반공에서 김창룡 원용덕을 충성경쟁시키듯이 박정희는 한때 김종필 이후락 김형욱을 충성경쟁시키면서 권좌를 유지했다고 본다.

이런 박정희가 이북과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나는 이북과 외세를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 잡는다는 원칙에서 한 일이라고 짐작되는 바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무신의(無信義)한 인간이 얼마나 성명을 지키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공동성명이 가지는 의의의 중대성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열광적인 환성을 올리고 싶지 않은 야릇한 심정에 싸이게 되었다.

정치란 마술인가

남북공동성명을 아주 흐뭇하게 듣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이런 생각이 파고드는 것을 억지할 수 없었다.

남북의 합의로 공동성명을 자랑스럽게 냈지만 같은 표현을 놓고도 남과 북이 각이하게 분석하고 추측하는 데로부터 예상치 않은 말씨름 같은 것이 벌어지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한동안 관직에 있을 때 쌍방이 한자리에 앉아서 담판한 경우에도 입으로 하는 말과 가슴에 품은 속셈이 달라서 후에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현대정치란 마술과 같다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런 생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이후락이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7월 5일부터 만 8일동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벌어졌었는데 여기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나타난 것이 〈외세〉에 대한 해석이었다. 유엔은 외세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다.

평양을 다녀온 이후락은 신문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여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고 했다.

김종필총리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세계의 보편기구인 유엔은 외세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이전 신민당총재였던 유진오(兪鎭午)도 어느 좌담회에서 유엔은 〈세계평화의 유지기관〉이기 때문에 외세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같은 무렵 이북의 한 요인은 유엔은 외세이니까 물러나야 한다고 평양에서 담화를 발표했던 것이다.

생각컨대 외세란, 말 그대로 외부세력이란 뜻이다. 민족내부세력이 아닌, 민족밖의 세력이면 그것이 개별적 나라이건 국제적 기구이건 또는 그것에 속한 것이건 다 외세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적이냐 초국가적이냐 하는 것이 외세냐 외세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인 것이 아니다. 민족 더 명확하게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밖에, 민족밖에 있으면 그것에는 외(外)자가 붙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유엔헌장 자체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유엔헌장에는 민족자결권을 각 민족의 신성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이 각 민족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유엔이 각 민족에 대해서 외세라는 것이 자명하다.

한국에서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의는 주한미군이 외세가 아니라고 우겨보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명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엔군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전부가 미군이다. 즉 미8군이다.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서 외면상 유엔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자신 당시는 외세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까지 똑똑히 서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론이 분분한 것을 보고 그저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공동성명에 씌어진 표현들을 놓고 이러저러하게 논의들이 있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초월>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남북대화로 사회적 의식구조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 반공체제나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따위들이 그 예라 하겠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견해를 여기서 일일이 밝히려 하지 않으며 또 밝힐 필요도 없다고 본다.

하지만 내가 말하자는 것은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서명 동의한 당국자들이 취한 자세와 입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북과 합의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상은 어디까지나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해서 국민을 선도해야 하겠는데 도리어 그와는

반대로 성명을 지지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입장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국민은 남북공동성명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 〈대화는 평화를 모색하는 한 방법이지 전부는 아니다〉 〈이제까지는 대화없는 대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대화있는 대결〉이라고 방언했다.

김종필 같은 사람은 국회연단에서 〈남북성명이 나왔다고해서 기존 가치체계에 하등 변화가 없으며 감상적인 통일논의나 무분별한 통일방안에 성급하게 휩싸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까지 답변했다.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공동성명은 믿을 수 없고 그 성실한 이행을 책임질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종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했다.

이쯤되면 이남 당국자들이 정치를 마술과 같이 여기면서 양면적으로 작동한것이 분명한즉 박정희가 공동성명을 내는 데 동의는 했지만 속으로는 딴 꿈을 꾸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신선풍(維新旋風)

아니나 다를까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별선언〉이란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즉각 해산되고 정당활동은 금지되었다. 언론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며 대학은 휴교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나는 의아심을 품고 그들을 주시하고 있던 차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양면성에 대한 나의 의혹은 이 특별선언만으로 다 풀릴 수가 없었다.

왜 그런고 하니 당국이 비상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5천만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민족웅비(民族雄飛)의 거사(巨事)라고 하였는가 하면 10월 22일에는 또 담화란 것을 발표하면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앞으로 유신적 개혁작업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노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민족의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유신적 개혁작업에 더욱 헌신〉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동성명 발표후 그야말로 민족의 통일과 중흥을 위해서 떨쳐 나서려는 국민들을 어찌하여 그토록 억누르고 급기야는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는지 시원히 납득되지 않았다.

나는 그후 10월 27일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헌법안이 공고된 것을 보고서야 그들의 계략을 내나름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헌법안이 전적으로 권력집중화를 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고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새 헌법에서는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입법권 사법권까지 통할하며 모든 국가권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受任機関)으로서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으로 되며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일괄 추천할 수 있으며 국가긴급권 국가적 중요정책의 국민투표회부권 국회해산권 정부조직권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새 헌법안은 박정희의 특명을 받고 몇몇 헌법학자들이 그의 종신집권제(終身執權制)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개석의 총통제헌법과 불란서의 제5공화국 헌법을 주로 참고하였는데 〈우리 현실에 맞는 민주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그런 헌법들보다도 권력을 더 집중화한 것이라 한다.

장개석헌법이나 불란서 제5공화국 헌법은 19세기의 흠정헌법(欽定憲法)을 방불케 하는 헌법들인데 새 헌법안이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권력이 집중화되었은즉 박대통령의 권한이 전제군주권과 같게 되었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법학자가 아닌만큼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회의를 선거할 때 당국이 마음대로 조절해서 의중인물(意中人物)들로 구성할 수 있게 꾸며놓고 있다. 그런데다가 박정희가 그 의장으로 되고 이 국민회의에

서만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곧 박정희를 종신토록 권좌에 앉혀 놓을 수 있게 제도화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언젠가 태능골프장에서 한태연(韓泰淵)의원이 한 말을 나는 상금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태연이란 사람은 이 헌법초안의 기초(起草)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하나로서 후에 공화당 공천의원으로 되고 유정회(維政会) 정책심의회의 의장인가 뭔가까지 된 사람인데 어느날 헌법초안 기초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박정희가 헌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공연히 걱정했다〉고 무릎을 치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이다.

그가 헌법개정으로 장기집권을 제도화할 것을 노린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하기에 박(朴)은 11월 21일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서둘러 실시했다.

그 누군가는 독재자들이 실시하는 국민투표란 그의 전제(専制)에 〈민주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라고 했다지만 평시도 아니고 비상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이다. 박정희는 100% 참가하여 100% 찬성했다고 하기가 곤란했던지 투표률 91.9% 찬성률 91.5%로 찍고 〈승인〉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계속하여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으며 23일 동 회의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27일 제 8 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을 공포하고 제 4 공화국을 출범시키었다.

10월 17일 조치후 실로 현기증을 일으킬만큼 온 국민을 쥐고 흔들면서 두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그는 자기의 통치체제를 정비강화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박정희가 이렇게 독재체계강화일로로 줄달음질치고 있을 때 국제적으로는 동서냉전체제가 사실상 완화되기 시작하고 국내에서도 남북대화의 문이 열리려 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여 1972년에 들어와서만도 닉슨이 2월에 중공을 방문한 데 이어 5월에는 소련을 방문했다. 9월에는 일본수상이 또 중공을 방문

했는가 하면 12월에는 동독과 서독 사이에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후락이 5월 2일에 평양을 비밀방문한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남북관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전진하여 11월초 제2차 남북조절위원장회의를 열고 상호 협조자세를 천명하는 〈공동발표문〉까지 내놓았다.

이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으로 대하던 남북이 자세를 180도로 전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후 11월 30일 서울 영빈관(迎賓館)에서 제3차 남북조절위원장회의가 열리고 남북조절위원회까지 정식 발족되다보니 국민들 속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내외정세 속에서 박정희는 왜 공동성명까지 유린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려고 유신선풍을 일으킨 것인가.

그것은 박정희와 미국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군사전초기지화할 것을 대한전략으로 삼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과 북 사이에 대화가 진척되어 평화통일의 기운이 짙어지면 한반도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두개 한국을 만들려는 그의 전략이 뒤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박(朴)은 박대로 정치산술(政治算術)이 있었다. 그가 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체 하면서 자기의 독재지반을 재정리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박을 부추기고 박은 미국에 등을 대고서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통일과 중흥〉이요 〈유신적 개혁작업〉이요 하면서 속으로는 분열의 영구화, 독재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유신선풍을 일으킨 것이다.

바로 그러기에 반통일 반민중의 길로 나간 박정희는 1973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더욱 광란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포악한 〈비상조치〉를 연발하다가 마침내 6월 23일에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내놓고 두개 한국을 현실로 인정해버리면서 통일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섰다. 이때에도 그는 〈평화통일외교선언〉이란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었다.

이래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한때 통일의 길을 밝게 비쳤던 서광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유신선풍이 몰아온 검은 암운(暗雲)으로 통일의 길은 다시 뒤덮히게 되었다.

제 5 장 결별(訣別)



박정권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저자

유신체제야말로 영구집권을 노린 박정희의 가장 철면피하고 노골적인 독재장치였다.

그러나 그는 유신독재로써도 불안과 위극에서 벗어날 수 없어 패륜패덕(悖倫悖德)의 극치를 이루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연방 빚어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천도교 교령인 이 사람의 도덕적 권위마저 땅에 떨구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고 심지어 신변의 위험까지도 느끼게 했다. 나는 1946년에 환국하여 파란곡절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30년 세월 활동하던 고국땅을 다시 등져야만 했다.

나의 인생행로에서 엄청난 궤도수정(軌道修正)이었다. 이 결별이 나를 연공민족주의(聯共民族主義)의 언덕으로 이끌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제 1 절 말기증상(末期症状)

유신 초기에만 해도 나에게는 아직 체제에 대한 엄격한 비판적 안목이 서있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동학의 중흥과 천도교 교세의 확장을 위해서는 정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박정희의 눈치를 살피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타산적인 자세였다.

내가 이러한 치사스러운 자세에서 깨어나게 된 것은 박정희의 광기(狂気)때문이었었다. 그는 광란적으로 독재의 길로 치달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게 되었다.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등 세인을 놀래운 사건들이 연속 일어났다.

일찌기 동백림사건을 겪은 바 있는 나로서는 이런 흉악한 범죄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등골이 오슬해지는 것을 느꼈고 박정희의 광기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공포감마저 가졌었다.

그중 김대중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졌기 때문에 나로서 더 부언할만한 것은 없다. 허나 자신과 관련해서 한마디 밝혀둔다면 1971년 대통령선거때 천도교의 중흥을 기한 이 사람이 박정희의 부탁을 물리칠 수 없어서 한 노릇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의 선거유세에 나가 그를 반

대한 사실이 있어 이것이 일종의 빚처럼 나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납치되었던 김씨가 서울에 돌아와 자택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에게 인사나마 전하자고 간단히 전화로 위문한 바 있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와 정견을 같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나로서는 지금도 그와 정견상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박이 그를 불법납치한 데 대해서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문세광사건은 1974년 8월 15일 내가 종교계 대표의 한사람으로 〈8·15광복절 기념식전〉에 참가해서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건이다.

나에게 지정된 2층 우측 좌석에서는 식장전경이 환히 내려다보였다. 내 앞줄에는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내 옆자리에는 불교를 대표한 조계종(曹溪宗) 종무원장이 앉아있었다.

이날 내가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말한다면 후에 문세광이라는 재일교포청년으로 알려진 사람이 뒷좌석에서 불쑥 달려나가면서 연단을 향해 권총사격을 가하는 순간, 연설문을 읽어나가던 박정희는 방탄장치가 되어 있는 연단 뒤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숨겼으며 육영수의 좌석 뒷줄에 있던 경호실장 박종규가 권총을 뽑아들고 경호사격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격목표로서 완전히 노출된채 연단을 향해 다가가는 문세광을 박종규가 맞추지 못한 것이다. 박종규로 말하면 대한사격협회회장이기도 한 이름난 명사수로서 대통령 경호책임자인데 대통령저격범이 근거리에 다가가면서 탄창의 탄알을 다 쏠때까지 저지시키지 못한 것은 우연한 실수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반대방향의 우측 합창단석에서 여학생의 비명소리가 나고 희생된 그 여학생과 박종규의 위치를 연결하는 일직선상에 위치한 육영수가 사격당했으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총성이 어지럽게 울리는 순간 육영수는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비스듬히 몸을 기울이면서 쓰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 육영수가 실신한 모양이라고 곁에 앉은 종무원장과 속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육영수 살해범이 문세광이고 그의 총탄

에 육영수가 맞아 절명한 것이라면 문세광의 권총 탄알은 유도미사일 모양으로 원호를 그리면서 육영수의 후두부를 타격한 것으로 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그리고 이 소동으로 수라장(修羅場)이 된 무대의 막뒤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진과 경호진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수상스러운 일이다. 쓰러진 육영수가 들려나간 뒤 박정희가 다시 연설을 계속하고난 다음 내버려진 육영수의 고무신과 핸드백을 주어들고 나갈 때까지 비서진이나 경호진은 까딱도 안했으니 말이다.

육영수는 왜 죽어야 했던가?

그녀는 남편인 박정희의 추잡한 여색사냥질에 넌덜머리가 났고 이제는 부부싸움에도 지칠대로 지쳤다.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 그녀는 청와대에서 나와 고향인 충북 옥천(沃川)의 본가집에 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을 박정희가 8·15광복절 행사를 핑계로 얼리고 달래고 해서 데려온 것이다.

사건은 문세광을 살인범으로 몰아 그를 사형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과연 문세광이 진범이겠는가도 의심스럽다. 재일교포청년 문세광이 어떻게 무난히 무기를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었으며 보통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식장에 무난히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사건을 통해 명백한 사실은 문세광의 총격에 박정희가 터럭 하나 다친데 없으며 경호사격에 문세광이 다친 데가 없다는 것과 문세광이 발사한 탄도각(弾道角)과는 엄청난 각도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해 육영수가 절명했고 어린 여학생 장봉화가 희생된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치정관계에 얽힌 살인사건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로서는 육영수의 죽음으로 여색사냥을 훼방하는 장애가 제거된 셈이고 특히 일시적이기는 해도 당면한 정치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 육영수 살해사건을 역이용하여 박정희는 팽배히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여 한일유착관계를 심화시켜 〈김대중사건〉으로 입은 후유증을 가실 수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독재권력의 안보를 위해서는 처까지도 제단에 섬기는 독재광 박정희의 악착스럽고 잔인무도한 성품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어떤 충격도 음모사건으로써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은 소멸할 수 없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국민대중의 함성은 가두데모와 집회에서, 그리고 기도회들과 여러 단체들의 성명을 통해서 힘차게 울려퍼졌으며 반정부 저항운동은 광범한 계층을 망라하여 날로 확대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정황에서 박정희가 또 날조한 정치모략사건이 인민혁명당사건이다.

나는 원체 이 사건에 걸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다. 나와는 인연이 없는데다가 흔히 있는 좌익세력사건이러니하고 별반 관심도 돌리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인목사 죠지 오글이 피고들의 죄가 날조된 것이라 주장해 나서고 가족들은 물론 광범한 사회계가 항의하는 사태에 나도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10년전에 취급했다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석방한 사람들을 새로운 근거도 없이 억지로 〈정부전복음모죄〉를 씌워 사형을 언도하고 벼락치기로 집행하고는 고문흔적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체마저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강제로 화장시켜버리는 야만적 처사를 어떻게 정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결국 국민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꾸며진 악독한 정치적 위협인 것이 명백하다.

실로 박정희는 독재권력을 부지하기 위해서 독살스러운 횡포를 자행했다. 그의 광기는 확실히 말기증상이었다.

이런 판국이다보니 박정희가 천도교중흥을 기한 이 사람의 활동을 달가와할 이(理)가 없었다.

앞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이 사람이 교령취임 후 교세확장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한 보람이 조금씩 나타나 이 무렵에 와서는 학계 일각에서 동학사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청년들속에서도 동학사상 연구열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학사상이란 것이 〈척양척왜〉 〈보국안민〉 〈광제창생〉을 주장하는만큼 박정희의 생리에 맞을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교단에서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묵인하고 은근히 고무하는 터였

다. 그래서 최익환 같은 사람은 해월신사의 손자이면서도 내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의 조부의 묘소를 꾸리려는 일마저 방해해 나섰고 종무원장 곽훈(郭薰)은 구미룡담성역화(聖域化)작업에 대해서 시비해 나섰다. 지어 이들은 작당을 해가지고 교령인 이 사람을 비방중상하며 나중에는 폭도들을 수운회관으로 몰고와서 나를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절망의 벼랑 위에 서 있는 감이었다.

제 2 절 또다시 방랑의 길로

돌아올 기약 없는 출국

사태가 이쯤 된즉 당국에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마침내 내가 수운회관 건설때 수천만원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서울지검(地檢)에 고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는 억울했다.

검찰에서는 아무리 나의 뒤를 캐보아도 기소할만한 물증(物証)을 잡을 수 없어 종당은 담당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고 말았다. 검사는 나에게 앞으로 장부정리를 잘하라고 일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을 매장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비방중상은 계속되었다.

나는 심경이 복잡해졌다. 자신과 박정권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5·16쿠데타후 박정희에게 환상을 가지고 그를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으로서 한일외상회담에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민족정신에 위배되는 그의 대일굴종정책에 크게 실망했다. 이때 나와 박정희 사이에는 정신적으로 금이 갔다고 본다. 이런 감정은 동백림사건으로 더욱 깊어졌다.

그후 성직에 들어간 나는 어떻게 하나 천도교의 교세확장을 통해서 민족중흥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에서 모든 것을 잊고 그가 시키는대로 통

일원고문, 유신학술원원장, 반공연맹이사노릇까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유신파쇼체제를 선포하여 나라의 통일전망을 어둡게 만든데다가 천도교내 분쟁을 방치(放置)한다기보다 조장하여 나의 신변마저 위험케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교령직에서 조용히 물러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장관을 지낼 때 비서를 하던 C군을 찾아갔다. 그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사연을 말하기 전에 벌써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의 조언대로 소문없이 유성(儒城)온천에 내려가 은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교인들이 찾아와 전하는 바로는 내가 없는 사이에 교단내 분규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격심한 혼란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즉 이 사람을 반대하는 세력이 소위 교단정화를 내걸고 따로 임시대의원대회란 것을 열고자 한다는 것이다. 천도교가 완전히 두 쪼각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어이 나를 파렴치사범(破廉恥事犯)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다.

나는 덕부족(德不足) 능부족(能不足)을 통감하면서 그들과 맞서고 싶지 않았다. 다시금 C비서를 방문하여 나의 심정을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요. 더 있고 싶지도 않소. 대만대학에서 나에게 특별강의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이번 2월에 오사까에서 열리는 한일종교인협의회에 참석했다가 그길로 대만에 가서 당분간 관망했으면 하오.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씀 좀 잘해주시오〉

대만의 중국문화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는 나는 이 학원의 〈객좌교수(客座教授)〉였던 것이다.

C비서는 그자리에서 문공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것저것 사유를 설명하니 그쪽에서 무엇을 걱정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이야 염려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도 있고 혼자서 나가는데……〉

이렇게 되어 나는 1976년 2월 17일 한일종교인협의회에 참석한다는 구실을 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없는 출국을 했다.

비행기 시창으로 내려다보이는 남해의 푸른 바다는 어느덧 흰 구름바다로 변하였다. 운상세계(雲上世界)로 들어가니 지나간 나날들이 가슴이 저리게 회상되는 것이었다.

조국이 해방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환국하여 군직에 들어갔다가 거창사건으로 곤경을 당했고 이어 관직에 있을 때에는 동백림사건을 겪었다. 그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직에 들어갔는데 교단내 분규가 생겨 이제 환갑을 지난 몸으로 다시 조국을 등지게 되다니…… 이 사람의 한생은 왜 이다지도 실패작의 연속으로만 된단 말인가. 조국땅에는 과연 나 최덕신이 설 자리가 없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이름할 수 없는 설음이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두 볼을 적시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그날도 어제련듯 한데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 당시 KCIA부장은 신직수(申稙秀)였다. 그가 첩자를 우리 교단에 배치했던 것이며 그 첩자가 내가 교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종무원원장자리까지 맡긴 곽훈(郭薰)이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그의 반란에 의해서 정당한 수속도 없이 도망가게 된 셈이다.

돌이켜볼 때 당시 천도교내에 분규가 있는 조건에서 교령인 나는 응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내분을 수습하고 후임교령까지 선출한 다음에 서서히 출국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는 내가 우리 교단앞에 크게 참회할 일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연고있는 나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던 이 사람은 1957년에 미국으로 가서 워싱톤에 자리잡고 있는 막내동생 종란이를 찾아간 것이지만 그것이 일종의 도피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래서 나는 내 한생에 있어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도피성명

대만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나는 공인(公人)으로서의 존재를 끝내고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고 워싱톤의 한구석에 잠적(潜跡)하였다.

하지만 할 일 없이 숨어사는 것도 고통스럽거니와 조국땅에서 박정희가 유신전제로 날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격을 누를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어느날 태권도국제연맹총재인 최홍희씨가 찾아왔다. 정말 반가웠다.

〈형님! 아무 활동이건 해야지 내내 이렇게 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야 폐물이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폐물이요? 폐물이라도 이용해야 되겠읍니다〉

〈폐물을 이용하다니?! 허허……〉

나는 서글프게 웃어넘겼다.

〈해외에 나와 있다 해서 이남당국자들의 비행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순 없지요?〉

〈아우님이야 국제태권도연맹도 내오고 성공한 터이지만 나야 패하고 도망쳐 나온 몸이 아니요?! 그러니 무얼 할 수 있단 말이요?〉

〈해외 민주화운동에 협력해야 합니다〉

〈?!……〉

〈실은 한민련(民主民族統一海外韓国人联合)에서 그러한 의향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지요〉

〈한민련에서?〉

순간 나는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놀래움과 반가움이 교차되면서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었다. 수치스러운 패배자로 이 세상에서 잊혀진 은둔거사(隱遁居士)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쓸모가 있다고 손길을 뻗치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삶의 보람이 소생하는 감격과 환희로 어쩔줄 몰랐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거창한 반독재 민주화위업을 위해 패 내가 해낼만한 일이 있겠는지 근심스러웠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다시 거리를 거닐며 맺지 못한 간밤의 화제를 이어나갔다.

〈폐물도 이용하겠다니 정말 고맙긴 이를데없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근심스럽소〉

〈독재정권과 결별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해외민주화운동에 큰 도움이 될거구 또 민주화운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성명한다면 그 영향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글쎄 그건 그럴것도 같은데……내가 도꾜에 가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겠는지?…〉

〈여행은 염려마시우 함께 갑시다〉

마침내 나는 결심하고 모든 일을 최홍희총재에게 부탁했다.

토론토로 돌아가서 모든 준비를 갖춘 최홍희총재로부터 곧 떠나자는 전화연락이 왔다. 며칠 후 토론토를 떠난 우리는 호주와 홍콩을 거쳐 1977년 11월 7일 하네다비행장에 내렸다. 배동호선생을 비롯한 여러 분이 마중나와 주어서 매우 감동되었다.

그날부터 한민련인사들과 만나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일본의 여러 신문 통신 기자들과 접촉도 하면서 분주하면서도 보람있는 나날을 보냈다. 드디어 나의 인생행로에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선포하는 감격적인 그 시간이 다가왔다.

1977년 11월 18일 오후 2시 한민통(韓国民主回復統一促進国民会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미리 준비한 성명을 통하여 박정희정권의 민족말살정책과 매국적인 군사파쇼정책을 규탄하고 민주구국투쟁대오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성명에서 나는 굳은 결의로써 반독재민주화운동에 가담함에 있어서 어째서 박정희정권이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믿는가를 몇가지 근거를 열거하여 논증했다.

그 근거는 〈첫째로 한국 최대의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바야흐로 해체위기에 놓여있는 데 대한 박정희씨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였고 근거의 〈둘째는 박정희씨에 의한 국가의 사물화(私物化)와 국민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는 것을 명백히 찍었다.

근거의 〈세째는 우리 민족사가 지향해야만 할 방향에서 너무나 이탈된 박정희의 대일정책〉을 들추어 입증했다.

근거의 〈네째는 조작된 전쟁위기에 대한 박정희의 책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섯째 근거로서 〈권력자 박정희씨의 존재가 민족통일을 위해서 최대의 장애가 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논증했다.

나의 성명이 끝나자 장내가 떠나갈듯이 박수 갈채가 터지는 바람에 나는 매우 감동되었다. 일시에 모든 시름 걱정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으며 새로운 신심과 용기가 온 몸에 차고 넘치는 기분이었다.

일본에 머무른 10여일 동안 나를 백방으로 환대해주고 신변보호에 애써준 교포들과 민주인사 여러분의 극진한 친절과 수고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체류 전기간 젊은 한청(韓青)원들이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 체류기간 10여일 동안에 세번이나 여관을 옮겼다. 기자회견이 끝나는대로 곧 떠날 수 있도록 일정이 면밀히 짜여졌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10여명의 기자들에게 사전취재의 기회를 주면서 발표할 때까지의 기밀 보장을 부탁하였다. 일본기자들은 의리있게 약속을 지켜 주었다.

KCIA 주일요원들은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이 진행될 때에야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요원들을 소집하느라고 야단법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기자회견 장소로 몰려들 때 나는 이미 여장을 갖추고 공항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공항에는 한민련 간부들과 한청원들이 수많이 환송으로 나와 있었다. 공항 응접실에서 한민련 간부들과 담소하고 있는데 건장한 한청원이 들어와서 〈작별인사는 여기서 하고 최덕신선생님은 출구로 나가야겠읍니다. 불량배들이 몰려왔읍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인사를 나누고 출구로 나오니 불량배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청원들이 견제하고 있었다.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게 된 불량배들은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 혼잡속을 유유히 빠져 공항 대기실로 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피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기실 밖으로 낯선 얼굴들이 왔다 갔다 하였다. 나는 어지간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세관 직원이 나타나 나를 찾아 알아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세관 직원실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여권을 한장 한장 번지면서 깐깐히 살피는 것이었다. 트집을 잡자는 것이 분명했다. 여권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지 그는 어느 여관에 머물렀던가고 따지는 것이었다. 쉽게 놓아줄 잡도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비행기가 이륙하면 야단이다.

이때 마침 2명의 일본기자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입국할 때 본 낯익은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세관 직원에게 왜 그러느냐? 어느 여관에 머물렀던지 무슨 상관이냐? 고 따졌다. 대답에 궁한 세관원은 여권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기자는 우리가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까지 따라와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정말로 고마웠다.

최홍희총재는 나를 마주 보면서 웃는 낯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형님 염려하지 말라는데두요!〉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마주 웃었다.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안에서 나는 줄곧 방금 떠나온 도꾜의 교포들과 민주인사들과 함께 지내온 나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었다.

토론토에 도착해 보니 신문들마다 주먹만한 활자로 〈최덕신의 망명성명〉 〈반정부민주화투쟁 참여를 결의〉 등 제목을 단 기사들이 실려 있었다.

그렇다! 이미 방향전환은 결정되었다. 이제는 전진이 있을 뿐이다.

나는 온몸에 청춘의 정열이 다시금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행복감을 느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

1946년 부산항으로 상륙하여 환국한 때로부터 1977년 도꾜성명을 내기까지의 30년동안 남한 땅에서 지나온 나날들에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기억을 더듬어 생각나는대로 적어내려가다 보니 어느덧 처음 작정했던 대목까지 일단 도달한 것 같다.

워낙 무딘 글재주로 쓰다 보니 막상 요긴한 대목들은 엉성해지고 반대로 대수롭지 않은 사말사(些末事)에 대해서는 지루하게 서술된 감도 없지 않다. 말하자면 졸렬한 글이 된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쳐 쓸 형편이 못되는데다 또 그래봤댔자 타고난 재간이 그뿐인지라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런대로 거대한 하나의 〈반공의 늪〉을 이루고 있는 남한사회를 결별하기까지 내가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행로(行路)가 이럭지럭 담겨진 셈이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민족자결의 소박한 꿈을 꾸어 왔으나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형편의 참모습을 투시할 안목도 그에 선처할 자세도 서지 못한채 제나름의 민족정도(民族正道)를 모색하여 방황해 온 범속한 한 인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그래서 제딴에는 의(義)를 위해 살며 열(熱)과 정(情)을 지니고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양명출세(揚名出世)의 세속적(世俗的)인 미련에도 적응하는 생리를 지니고서 대세에 추종해온 얼룩진 인생의 기록을 남겨놓게 된 것이다.

민족자주의 정치풍토를 가꾸지 못한 여건에서 청운(青雲)의 뜻을 편다는 것은 허위일 수밖에 없다. 외세에 종속된 독재권력에 복무해온 군직(1947～1956)과 관직(1956～1967)생활시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성직(1967～1976)생활시절까지도 결국은 독재정치에 대한 창녀(娼女)의 구실을 한것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애환(愛歡)과 고뇌(苦惱)로 엮어진 좀스럽고 떳떳치 못한 그 모든 사연들이 독자 여러분에게 구역질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한 이야기들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온 기구한 수난의 역사가 배경으로 비끼어 있음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독재와의 결별을 고하는 도꾜선언을 하게 된 경위를 이해해 준다면 필자로서는 다행한 일이라 할 것

이다.

이제 막 붓을 놓게 되면서 마음에 걸리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입장과 자세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30년동안 취해온 나의 반공 반북의 자세와 입장에서 근본적 전환이 일어난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공친미독재의 권력체제하에서 자기보존의 호신부(護身符)로 출세가도의 통행증으로 되어온 반공자세를 탈피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단지 유신독재권력과 결별하여 안식처를 미국에 정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도꾜성명에서도 친미반공의 자세에서는 근본적 변화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 바로 이 책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두 발을 잠그고 있던 〈반공의 늪〉에서 〈연공의 언덕〉에 도달한 나의 사상정신상 전환의 대목이다.

그 전환의 계기와 과정은 몇차례에 걸친 북한견문(見聞)에서 이루어졌다. 북한견문에서 받은 깊고 강렬한 감명은 모든 영역과 분야에 걸쳐 전사회에 민족정기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영도자를 중핵으로 전체 사회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되어 민족중흥(民族中興)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나아가고 있는 건설의 약진상에서 온 것만이 아니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에서도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 의연(毅然)한 입장과 당당한 자세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갈라진 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결같은 조국통일 열망앞에서는 끓어오르는 감격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산주의사상이나 그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깊이 아는 것이 없다. 다만 내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지도간부들이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장래에 대해 책임지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것과 북한동포 모두가 진정으로 자주평화통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닌 이들 북한동포들과 지내면서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을 가슴 가득히 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동포들과 손을 잡지 않고 그들을 반대배척하는 반공반북(反共反北)의 감정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을 운운하는 것이 완전한 허위이며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반

공반북의 낡은 사상정신적 울타리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한 그 어떤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민족주의자일 수 없다.

연공합작(聯共合作)에서만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이 담보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생애를 통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달한 진리이며 결론이다.

후 기

『민족과 나』(통일의 한길에서)에 이어 본책 『남한땅에 30년』을 출판하게 되었읍니다. 오랫동안 남한의 정치, 군사부문의 중추에 있은 필자의 애국, 애족의 충정은 독자제씨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안겼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본책 출판에 제하여 이중기씨로부터 물심양면에 걸친 협력을 받았읍니다. 심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독자제씨께서 계속 편달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통일평론』 편집부

남한땅에 30년
민족분단의 비극속에서

저 자	崔 德 新
발 행 처	統一評論社

〒101 東京都千代田区外神田 5 — 2 — 2
浜田ビル2F 電話03(834)4061〜2
振替 東京2-65085

1985년 9 월20일 인 쇄
1985년10월 1 일 발 행